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석굴암

국보 제24호 석굴암석굴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지혜로운 이는
슬기의 눈으로 나쁜 욕설과 비방을
능히 참는다. 〈잡보장경〉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3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883호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노후걱정 없이 수행에만 전념하자"

조계종 선원수좌회 노후복지법인 설립

나이가 많고 연로해 선방에 방부를 들일 수 없는 노수좌 스님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무여, 지환)는 4월 3일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수좌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수행문화 확산을 위해 수행복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무여 스님과 선원수좌회 이사장 의정 스님,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선원장 육문 스님 등이 참석했다.

무여 스님은 "1962년 종단 출범 이후 1만2000여 스님이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그 중 2300여 수좌 스님이 전국 선원에서 해마다 안거에 들어가 참선수행, 무소유와 근검한 생활을 근본으로 부처님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승가공동체에도 승가 내부의 노후복지가 큰 문제가 돼 제도적 대안이 필요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2010년부터 조계종 前 종정 법전 스님과 종정 진제 스님, 송담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국 선원수좌회를 대표하는 50여 수좌스님들이 발의해 '전국선원수좌회 특별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수좌회는 회칙 및 실천 타당한 지원방안 등을 만들기 시작해 월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회' 설립을 인가 받았다.

전국선원수좌회의 임원진은 의정 스님을 대표이사로 하며 원각 스님, 정찬 스님, 현묵 스님, 불산 스님 등 7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선원수좌회 법인 설립에 다수의 스님들이 기금마련에 동참했다. 송담 스님(인천 용화선원장)은 7억 5000만원을 기부했고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은 4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스님들의 십시일반으로 9억 3000만원의 재산출연금이 모아졌다.

65세이상 수좌스님 대상
의료 및 생활 · 간병비 지원
문경 봉암사 원로선원 건립
송담 스님 7억5천만원 기부

무여 스님은 "수좌스님들을 위한 복지가 마련됨으로써 정신 · 사회적 가치를 전승해 주는 참선수행자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며 "앞으로 스님들이 미래 사회와 국민의 정신적 건강에 횃불이 돼 전법교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참선 수행 지원 및 교육 ▷수좌들을 위한 의료, 노령 지원 ▷수행복지 연구 및 선 문화 전승 ▷선 문화 학술 · 출판 및 홍보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의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불교계 의료기관과 협약해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및 치료비가 많이 드는 수좌스님의 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의정 스님은 "지난겨울 7명의 스님에게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8명 수좌스님에게 수술비 3700만원을 후원했다. 올해부터는 비구니 스님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받을 스님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수좌회에 제출하면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병원비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선원수좌회는 원로선원 입소지원안을 마련했다. 65세 이상의 노 수좌 스님이 자유롭게 정진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에 원로선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 4개 동의 건물이 완공될 계획이다. 이 밖에 불교노인요양원을 연계해 노스님들의 입소를 지원하고 불자호스피스 연계 및 간병비 지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선원수좌회는 행정지원서비스와 장례제도 지원사업도 전개해 나간다.

의정 스님은 "선원수좌회는 장례제도비 지원 및 장제서비스 행정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좌복지 욕구조사를 통해 홍보물을 간행하고 선 문화 출판물을 발행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정빈과 나눔으로 수행하는 납자들이 병고와 노령, 사후 입적에도 걱정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031)771-4634 관련기사 3면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종로구 어르신 최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4월 6일 복지관 앞 마당에서 장기이용회원 소속감증진 및 신노인상 실천 프로그램인 '종로만이야(mania) 3탄'을 개최했다. 개관 5주년 기념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종로만이야' 1 · 2탄에 참여했던 250 명의 어르신들이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그 동안 각자 모아온 동전 저금통을 선물상자에 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차 모금액은 371만5061원으로 모금은 계속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강정마을 화합에 불교계가 나선다

조계종 화쟁위, 강정마을서 생명평화법회 개최

불교계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는 4월 2일 강정마을 평화센터에서 강정마을 생명평화 법회를 개최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이 강행되며 찬반주민 간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생명평화법회는 과반수 이상이 불자인 강정마을 불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이뤄졌다. 2월 도법 스님과 조계종 주요 스님들의 강정마을 주민들과 면담에서 강정 주민들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불자라며 불교계가 나서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종회의원 장명 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 현지에서 제주 관음사 부주지 동재 스님, 관촉사 주지 석연 스님을 비롯해 지역사찰 스님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정마을불자회(윤한범 회장), 제주포교사단, 대불련동문회, 서귀포 불교대학 등에서 온 150여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멀리 마라도 기원정사에서 주지 혜진 스님을 비롯해 신도 3명과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천주교

4월2일 마을 불자회도 창립
법회 열며 갈등의 골 상처 치유

와 개신교, 원불교 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먼저 "불교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그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종교지만 지금 이 마을에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다"며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지 못해 깊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을 열었다.

강정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과 화합을 위한 당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생명평화결사운영위원장 김경일 신부는 "강정마을 불자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고 드디어 불교계에서 이들을 보듬기 위해 왔다"며 "강정마을이 평화의 마을,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는데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단 차원의 평화적 사태해결 촉구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공권력을 동원한 진압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행복 앞에선 어떤 논리도, 더구나 독단 독주에 의한 급격한 변화는 안된다"고 말했다.

화합에 대한 열띤 목소리에 2시간에 걸친 법회도 금방 끝이 났다. 이들은 윤경용 강정마을불자회 사무국장의 발원문 대표낭독에 이어 다과회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나갔다.

윤한범 강정마을 불자회장은 "해군기지 건립 이전 법회에는 젊은 층들만 70여명이 참석하곤 했다. 이번 창립법회를 계기로 강정마을불자회는 매주 정기 법회를 열고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883호 CONTENTS

종단 2
"범어사 · 법주사 총림지정을"

종합 3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출석률 30%
조계종, 노동위 만든다

시방세계 5
통도사 극락암 극락선차 시연



문화 20
유나방송 개국 5주년 치유음악회

신상품
LED인등 · 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부처님오신날 행사 북측 참여 4월 중 결정

남북불교교류 심양실무회담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북측 불교계가 참여가 4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3월 29~30일 중국 심양에서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민추본은 봉축행사 초청을 성사시켜 남북불교교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 해소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조불련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봉축행사 참가를 위한 남측방문 가능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북 불교계는 상호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4월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실무회담에 남측에서는 민추본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 총무원 사회국장 묘장 스님, 실무진 등 4명이 참석했다. 북측은 조불련 중앙위원회 리규룡 서기장, 차금철 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용 안 목 (龍眼木)

육환장, 주장자, 지팡이 특별 전시회

■일 시 _ 불기2556(2012)년 4월 12일(목) ~ 18일(수)
■장 소 _ 서울 관훈동 백악미술관 1층 ☎ (02)734-4205
■문 의 _ 신원사 금룡암 (041)852-9541, 011-752-1122(두타스님), 010-5026-5587(시자 문학)

용안목(龍眼木)은 다른 이름으로 천둥목, 연수목(延壽木), 갑자목(甲子木), 벽뢰목(霹雷木)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나무의 본래 학명은 감태나무입니다. 특히 용안목 또는 천둥목은 이 감태나무 중 벼락을 맞아 나무에 마치 용의 눈처럼 여러 부분이 고르게 터져 나와 있는 것을 일컬으며, 옛날부터 큰스님들께서 주장자나 지팡이 또는 육환장으로 만들어 많이 애용하였습니다. 소납이 처음에 용안목을 찾아 나선 것은 은사스님께 지팡이를 하나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천성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산을 헤매면서 어렵게 용안목을 구해 은사스님께 지팡이를 만들어 드리고 계속해서 용안목을 모아 육환장과 주장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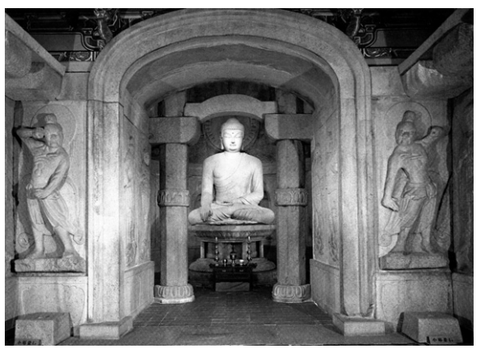
은사스님께 수계를 받고 용안목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좋은 인연들과의 만남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기나긴 시간 동안 육환장과 주장자, 지팡이를 제작하게 되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신원사 금 룡 암 회주 두타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4호 석굴암석굴



석굴암

고은

얼마나 많은 밤들이 있었더냐
그 얼마나 많은
바람 부는 날들이 있어야 하였더냐

천년을 울어
또 천년을 울어

여기 찬 돌덩어리 속 울음으로
이토록 숭고한 아침 해돋이더냐

고개 숙여 흐느끼어라

그 언젠가 그대 여기 앉아
환히 환히 달 떠오르리라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고은 시인은… 전북 군산 출생. 195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만인보〉 〈히말라야 시편〉 등.

"원융 화합해 종단 운영하길"

前 종정 법전 대종사,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에게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이 4월 3일 해인사 퇴설당을 방문해 지난 10년간 제11·12대 종정을 지낸 법전 대종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정예하께서 10년간 계시는 동안 종단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늘 화합을 강조하신 덕에 종단이 안정됐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법전 대종사는 "그동안 종단이 이만큼 발전했는데 종단과 원장스님에게 도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새 종정스님 모시고 화합해 종단을 운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법전 대종사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올렸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큰스님이 종단을 위해 주신 많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추후에도 마음의 이정표로 삼아 종단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례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기획실장 정만 스님, 재무부장 도문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원담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경우 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태성 스님,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범산 스님이 참석했다. 또,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등 소임자들이 배석했다.



4월 3일 조계종 前 종정 법전 대종사(왼쪽)가 해인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날 하례는 종단의 최고 정신적 지도자로 큰 가르침을 주신 제11·12대 종정 도림 대종사의 깊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뜻을 이어 종단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염원을 담아 마련됐다. 4일에는 원로의원 스님들도 해인사를 방문에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는 하례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어록 중심 산림 운영할 터"

범어사 신임 주지 수불 스님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선풍 진작을 위해 '어록산림'을 열겠습니다."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신임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 받은 직후 이같이 밝혔다.

'어록산림'은 간화선의 주요전적인 〈서장〉 〈선요〉 〈육조단경〉 등 선어록을 공부하는 산림 법회이다.

수불 스님은 "공심을 바탕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의 공의와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부산지역 불교활성화에도 더 매진할 계획이다. 스님은 범어사 주지가 당연직인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직 수행을 통해 타 종단과 연대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불교중흥을 꾀하고 있다. 또, 부산지역 내 조계종사찰 모임인 조계종연합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교신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님은 "총림을 세우는 것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서울·대전에 거점포교당 마련"

법주사 신임 주지 현조 스님



"포교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전 등에 거점포교당을 열어, 속리산 산중에 위치한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겠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신임 주지 현조 스님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명장 수령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최근 법주사는 신도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도 줄고 있다. 신행공간이라는 사찰의 역할을 못하면 법주사는 화석화되고 만다. 사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묘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조 스님은 "어른스님들의 뜻을 수렴하고 잘 모시기 위해 예경국장 소임을 만들었다. 어른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본사 운영에 반영해 원융살림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산림운영의 주체로 삼을 방침이다.

현조 스님은 "지금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바꿀 시점이다.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 분야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진제 종정, 자비나눔 2000만원 기탁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가 자비나눔기금 2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정스님을 대신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종정예경실장 스님(사진 맨 오른쪽)은 "추대식이 원만히 회향한데 대해 종정스님께서 총무원장 스님께 각별히 고마움을 전하라고 하셨다"며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종정스님을 모시고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범어사·법주사 총림 추진을"

총무원장스님, 선거 후유증 해결책으로 제안

돈봉투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범어사·법주사 주지 선거에 대한 대안으로 총림 지정 추진이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과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스님은 "범어사 주지는 부산불교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위치인 만큼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주사 역시 각 문중의 어른스님들이 많은 만큼 문중이 화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중 어른스님을 모시고 주지를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범어사와 법주사도 이미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도 "총림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일정정도의 사격을 갖춘 교구본사의 경우 총림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 량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암 사진 (안 · 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종정큰스님의
법성게 친필휘호
보급 안내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게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게 휘호는 신묘한 氣가 있습니다.

○ 보급가 15만원 (해인도 2매+족자 1매)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 우리불교조계종)
○ H · P 010-6478-1569



해인도 10.5×17.5㎝

〈족자〉



법성게 38×145㎝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시설확충, 수행·요양 병행할 환경조성 필수

수좌회 노후복지법인 설립 배경과 승려 노후 복지현황

몇 년전 80이 넘은 수좌 스님 두 분이 시골 빈집을 빌려 기거하다 열흘 간격으로 입적했다. 시골집을 토굴로 사용하며 노쇠한 몸으로 손수 끼니를 지어 먹고 추운 방에서 살던 스님들은 병원에서 쓸쓸히 별세했다. 이는 평생 수행해도 나이 들어 갈 곳 없는 스님들의 현실을 대변해 준 사건으로 수좌 스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시대에 따라 절집 문화도 변한다고 하지만 승가공동체의 이와 같은 풍토는 스님들의 수행 풍토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좌 스님 의료비 및 노후 생활 지원에 나섰다. 수좌 스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종단의 수행풍토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사장 의정스님은 "2009년 가을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 수좌 스님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조계종 소속 2천 3백여 참선수행자들 중 노환, 질병 등으로 한 해 50명에서 80여 스님들이 제방선원에서 나와야 하지만 이들이 마땅히 갈 곳은 없다. 이런 스님들이 마음 놓고 치료 받고 수행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수좌회의 재단 설립은 수좌 스님들의 복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스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회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의정 스님은 "현재 공사중인 봉암사 원로선원을 시범 운영해 본 후 범위를 점점 각 교구본사 별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납자들이 노후에 의식주나 걱정 없이 계속 수행 정진으로 회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전국선원수좌회 재단법인은 현재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에 2천평 규모의 원로선원 불사를 진행중이다. 총 공사비가 2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문경시 지원금 15억원을 뺀 나머지는 회원 보시 동참기금과 종단지원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계종 … 승려노후복지회 설립, 21곳 위탁 운영
진각종 … 종단 창립 초기부터 기로원 설립

이렇게 조계종이 종단차원에서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부터다.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회를 설립해 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산하에는 전국 21곳의 노인협약요양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승려노후복지회는 충북 음성 미타사 경내에 비구니 스님 전용 공간인 밝은언덕요양원을 마련해 노비구니 스님의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 선운사에 설립된 '승려노후수행마을'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제도는 종단 설립 초창기부터 노후 복지 공간인 기로원 설립, 연금 지급 등을 통해 성직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진각종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있다는게 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유제 진각종 정사는 "대구 비산동에 설립된 기로원은 65세 이상의 정사들이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최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기로원은 정사들이 수행에 전념하며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천태종 구인사의 양로원, 총지종의 기로원 등도 불교 성직자들을 위한 종단 차원의 대표적 노후 대비 시설들이다.

올해 초 설립된 홍천 자명사 비구니 전용 요양시설은 초종단적으로 비구니 수행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

승가대사회복지학과 보각스님은 "예전에는 스님들이 상좌를 통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문중 개념이 퇴색된 요즘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원로선원 건립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각 스님은 "하지만 시설건립에 앞서 이를 어떻게 지속시키고 운영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꾸준히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마련,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이 지속돼 스님들이 수행과 요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승려 노후 복지시설**

지역	요양원명	연락처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02)2202-8733
서울 은평구	붓다마을	(02)385-8205
경기 여주	신륵사요양원	(031)885-5275
경기 안성	파라밀요양원	(031)676-4677
경기 화성	묘희원	(031)356-5799
경기 파주	진인선원	(031)958-3043
충남 논산	영은사노인요양원	(041)734-9331
충북 음성	밝은언덕요양원	(043)873-0330
강원 평창	월정사노인요양원	(033)334-9595
강원 춘천	연화마을	(033)261-9300
강원 양양	낙산사상락원	(033)673-9801
부산 금정	부산금정노인요양원	(051)508-8822
경북 경주	불국성림원	(054)746-9900
경북 김천	직지사노인요양원	(054)431-9801
경북 영천	은해사포근한집	(054)335-3314
경북 의성	고운노인요양원	(054)833-5900
경남 남해	화방동산	(055)863-2286
전남 나주	백양실버타운	(061)333-5622
전남 신안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061)271-6100
전남 여수	하얀연꽃	(061)644-8877
강원 홍천	자명사	(033)432-9130
전북 고창	선운사	(063)561-1422
충북 단양	구인사양로원	(043)423-7100
대구 비산동	진각종기로원	(02)913-0751
경기 성남	총지종기로원	(031)751-8685

중앙종회의원 30% 출석…"실망스럽다"

조계종 중앙종회NGO모니터단, 모니터링 평가

3월 27~30일 열린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종회는 종단 최고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서가 나왔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3월 27~30일 열린 조계종 제189회 임시중앙종회 모니터링 결과를 4월 5일 발표했다.

모니터단의 이번 평가는 ▷입법활동 ▷예·결산활동 ▷자성과쇄신결사 ▷시민사회활동 ▷성평등의 5개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모니터단은 "이번 종회는 전년도 예결산 및 종헌종법 개정안 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으나 종회기간동안 의원스님들 출석률이 평균 30%에 이르는 등 불참율이 심각했다"고 평가했다. 또, "2011결산서·2012예산서 제출이 각각 11%와 13%로 미흡하다"며 "사찰 분담금 책정 근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10·27법난 피해자 보상 문제와 문화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2500억원 규모의 사찰 방재 사업에 관해서는 "의원스님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종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니터단은 2011년 세출에서 예비비 사용 비율이 총무원 60.6% 교육원 24.6% 포교원 12% 중앙종회 3%인 것에 대해, "다수 부처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차기연도 사업예측력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계획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포교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지적됐다.

사찰 예·결산서 제출 10%대 불과
2500억원규모… '스님들 잘 몰라'
연구활동비는 고작 50만원
"비구니의원스님 더 적극적이어야"

모니터단은 "포교원 예산은 전체 총무원 예산의 12%였다. 포교행정 지출금액 15억원 가운데 청년포교에 쓰인 돈은 9900만원에 불과했다"며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청년포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원스님의 연구비 지출이 250만원 가운데 50만원만 지출된 것은 의원스님들의 연구활동이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단은 ▷승려복지를 위한 직접비용 확대 ▷비구니의원스님들의 적극적 의사표현 ▷성별통계 등을 제안했다.

모니터단 옥복연 소장은 "부정선거를 예방하고자 많은 논의를 거쳐 발의된 선거법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의 허물은 덮고 우리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단은 이 평가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해 종회 운영에 반영토록 했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지난 2월 발족했다.

이에 앞선 2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공동대표 퇴휴, 이하 불시넷)도 임시중앙종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개혁 입법안이 줄줄이 폐지내지 부결되고 종단선거법은 논의조차 없이 이월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며 '과연 중앙종회라는 기구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과 회의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불시넷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된 중앙종회는 닭벼슬 보다 못한 권능에 빠져 종도를 기만하고 우롱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동섭 기자

"노동위 설치, 종단 관심 기울이겠다"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쌍용차 해고노동자 예방 자리서

"엊그제 22번째 동지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불교계가 도와주십시오."

정리해고로 3년 여 동안 복직투쟁을 해온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들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한상균 노조지부장 가석방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종교인 연석회의에 불교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중생들이 못살겠다. 힘들다. 더 이상 동지들의 죽음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더 이상 노동자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 종교계에서 함께 힘을 모아 압력을 넣어주시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스님은 "22명의 죽음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4월 21일 범종교인 연석회의에는 사회부와 결사본부가 상의해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부처님오신날 사면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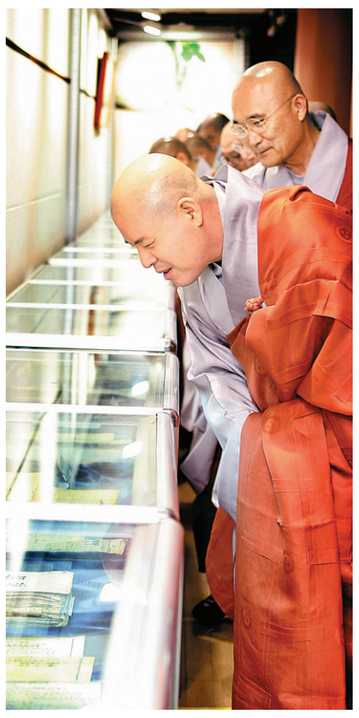
특히, 스님은 "종단이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약하다. 노동위원회를 구성해 서로 도울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주관으로 쌍용차 희생자 천도재, 희망텐트 방문 등을 해왔다. 이날 예방은 지난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희망텐트 방문시 노동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조동섭 기자



4월 5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범종교인 연석회의 등을 요청하고 있다.



조계종 50주년을 돌아보며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4월 4~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50년, 기록과 대화하다'를 주제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전을 개최했다. 전시된 대부분의 사진은 1982년부터 종단 주요행사를 촬영해 온 배영수 불자의 소장자료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와 함께 조계종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사부대중 결집대회, 학술세미나, 육조혜능 대사 좌상 봉안법회 등 통합종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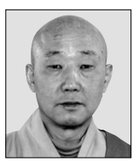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일 주 문



맑고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수여식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운 스님은 4월 14일 오후 1시 30분 길상사 내 소강당에서 길상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해수관음 노천석불 봉안 점안법회

성주 지안사 주지 지안 스님은 4월 15일 오전 10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초청, 지안사 경내에서 해수관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영암 도갑사 복장불사 회향식

영암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은 4월 7일 도갑사 대웅전 목조탱화 개금불사 및 해탈문의 문수보현보살 복장불사 회향식을 거행했다.



이리불교대학 21기 불교대학 입학식

이리불교대학 학장 덕림 스님은 4월 1일 이리 관음사 큰법당에서 2012년 21기 불교대학 입학식 및 수계법회를 했다.



청도 선농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청도 능인사 주지 혜동 스님은 4월 1일 종단 소임스님과 지역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농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열었다.



부산 영축사 텐파린포체 초청법회

부산 영축사 주지 혜성 스님은 4월 1일 울산 간절곶에서 티벳 텐파린포체 초청 국제대법회를 봉행한다.



광진 노인 게이트볼 대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4월 13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제6회 광진게이트볼 대회를 연다.



경주 동국대, 수계대법회 봉행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4월 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문무관에서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개최했다.

중국불교협회 명예회장 번환 스님 입적

중국불교협회 명예회장이자 임제종 제44대 전승인인 번환(本煥) 스님이 4월 2일 세랍 106세로 선전 홍법사에서 입적했다.

1930년 23세에 출가한 번환 스님은 1959년 쉬윈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 임제종 제44대 전승인이 됐다. 번환 스님의 추모법회는 4월 4일 주석처인 홍법사에서 열렸다.

불교계 선거 공약 '제안'

정치권에 문화정책 내놓은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법응 스님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국민의 권리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불교계 쟁점 현안들을 정치권에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법응 스님이 '2012년 양대 선거에 대한 불교문화정책 공약제안'을 발표했다. 법응 스님은 4월 2일 조계사 인근 갤러리 나무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교관련법령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25개의 안을 발표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그동안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여론화 되었던 사안들로 불교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공약으로 정리했다. 이들을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부라도 수용해 1700년 불교문화의 국가 문화 홍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문화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주요 쟁점 현안으로 △불교관련법령정비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한국불교 역사인물사 집대성 및 연구사업 △전국전통사찰 전자지도 정보구축 △국유지 전통 사찰의 토지 불하 △국립공원 등 전국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등 25개의 안을 내세웠다.

이 중 대통령 직속기구로 제안한 불교관련 법령정비 특별위원회 상설기구는 불교관련 법령들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이를 통해 전통사찰의 지위 사찰토지의 구분, 국가문화재 성보의 지위, 용어 개념의 통일, 법률의 단일화 등의 문제들을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법응 스님은 "정부관계자 · 불교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할 수 있다. 불교관련 법령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교와 관련한 법령을 일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번 정책 제안을 107 페이지 분량의 컬러 책자로 제작 정치권과 교계 등에 전달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물론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각 교구 본사 등에 책자를 배포한 상태다.

스님은 "이번 공약은 총선보다는 대선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종단과 협의해 공약의 내용들을 좀 더 다듬고 보강해 연말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 전할 터"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에 이기흥 중앙신도회 부회장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단장으로 이기흥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선임됐다. 이 단장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 홍보임원, 2010년에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장을 맡아 종합 2위의 성적을 올리는 등 다양한 공로를 쌓아 왔다. 이 단장은 이런 국제대회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 런던올림픽 단장으로 임명됐다.

이 단장은 "영예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종합 10위 이내, 금메달 10개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준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단장은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장,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을 맡아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는 중앙신도회 부회장, 체육인불자연합회장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실신한 불자이기도 하다.

특히, 이 단장은 체육인불자연합회 창립과 함께 초대회장 임명돼 태릉선수촌과 올림픽공원에 법당 개원을 이끄는 등 체육인불자의 신심증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11년 4월 불자대상 수상하였으며 상금 전액을 민족문화수호기금으로 쾌척한 바 있다. 또한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설립 2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인재불사를 통한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장애인도 도움 줄 수 있는 존재"

장애인 위한 잔치 여는 이건식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



과연 장애인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일까? 장애인이 소외 이웃을 돌보며 봉사정신을 기르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과 불자들이 주최하는 '우리도 베푸는 마음잔치'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이건식 원장을 만나 행사의 취지와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들어봤다.

이 원장(55)은 "장애인은 사회에서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는 존재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주축이 돼 독거노인 50세대, 다문화 가족 15세대 등의 소외 이웃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무료공연을 펼치며 봉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라며 취지를 전했다.

지난 1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그동안 노인전문병원 연화복지원, 경기북부자원봉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히 복지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의정부불교신도회 부회장, 대한불교 해외자원봉사 선발대장 등 꾸준히 불교계 봉사 활동을 이끌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장애인복지에 취약한 불교계가 앞으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는 "불교계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한 상태다.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진각종 통리원장 주한네팔대사관서 법문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사진)는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후암동 주한네팔대사관에서 '네팔 룸비니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설법한다.

이 법회는 '2012 룸비니 방문의 해'를 맞아 네팔불교와 한국불교의 교류증진 및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는 진각종과 네팔불교전통의식에 따라 환영의식, 귀명삼보의식, 오계독송,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염송, 네팔불자모임 대표의 환영사, 설법과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2012 룸비니 방문의 해' 한국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법회를 준비한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너빈 법사(주한네팔불자모임 지도법사겸 고문)는 "룸비니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 불자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불자 등이 보다 많이 룸비니를 방문해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신의 신행을 북돋기를 바란다. 이번 법회가 잘 회향돼 우리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고판화박물관 전통판화학교 개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2년 생생문화재 사업 '지정문화재(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를 실시한다.

전통판화학교는 인쇄술을 알리기 위해 고판화박물관 소장의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및 국제학술대회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 어린이 및 노인 · 새터민 · 다문화 · 군장병을 위한 프로그램, 판화전문가육성프로그램이 주 1회 씩 총 40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 8월 한중일 목판본 삽화판화전시회와 한중일 목판본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련사 심향 불교합창단 창단

장흥 청련사(주지 백우)가 '심향 불교합창단'을 창단했다. 청련사는 3월 31일 토요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창단법회를 열었다. 단장 조금자, 지휘자 김승화, 피아노 반주 김윤진 씨 등이 맡았다. 단장 조금자 씨는 "삼계 대 스승이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여법한 음성공양을 올리고자 한다. 또한 찬불가를 통해 불법 홍포에도 이바지 하고자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합창단의 명칭인 심향(尋香)은 제석천을 모시며 기악을 연주하는 음악의 신을 뜻한다.

정혜숙 기자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 책구입은 인터넷 서점이나 우리출판사(02-313-5047)로 신청하세요.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귀신 [빙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정신질환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다른 곳에서 귀신(빙의) 처리를 못하신 분
- 귀신(빙의) 처리를 못할 경우 돈을 받지 않습니다.(환불해드립니다)
- 말기 간암환자

상록정사 빙의의 시대 저자
일광도인 ☎ 02) 743-7679 H·P 010-5040-7679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번지 롯데캐슬Ⓐ 지동 309호

※ 직접 상담요망, 전화상담은 사절합니다.

“차와 선 한 맛에 젖으니 여기가 극락”

경봉 스님 탄신 120주년, 통도사 극락암 극락선차 시연회
다향 정신 잇는 경봉선풍중진불사회 기념사업 일환

차(茶)와 선(禪)은 ‘다선일미(茶禪一味)’ ‘선다일미(禪茶一味)’라 하여 같다고 말한다.

입안을 감아 도는 차맛과 차향을 통해 ‘다선일미’의 참뜻을 어슴푸레 느낄 수 있다면, 차도 알고 선도 알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아닐까?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에서 4월 3일 열린 다도 시연회가 바로 그랬다. 경봉선풍중진불사회가 선보인 ‘극락선차 삼소다회’는 통도사의 빼어난 선지식이었던 경봉 스님(1892~1982)의 탄신 120주년과 열반 30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선풍과 다맥을 소개코자 마련한 행사이다. 통도사는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천년고찰이다. 통도사 경내를 중심으로 영축산 자락을 휘감아 도는 소나무 사이 너른 들에는 연밭 차나무밭 등이 있다. 스님들이 천년 넘는 세월을 가부좌를 틀고 수행해 왔으니, 또 너른 벌판에 차밭이 있으니 다도라 불릴 것이 있음은 당연하다.

극락암에 오르니 통도사 대중스님들이 왜 이곳을 ‘극락’ 이라 부르는지 알만 했다. 솔숲 굽이진 비탈길을 돌고 돌아 만나는 작은 암자, 눈앞에 펼쳐진 동화 속 같은 아름다움은 눈비 섞인 가운데 휘몰아치는 일진광풍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극락암은 경봉 스님이 50여 년간 머물다 입적한 곳이다. 스님은 이곳에서 깨달았고, 이곳에서 후학을 제접하고, 이곳에서 긴 고요함에 들었다. 경봉 스님의 극락암 생활은 순간순간이 모두 수행이었고,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문화로 남았다. 스님이 시(詩)·서(書)·화(畵) 삼절(三絶)에 선(禪)·차(茶)까지 오절(五絶)을 갖춘 대선사(大禪師)라 불린 까닭이다.

시연회는 경봉 스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삼소굴에서 열렸다.

1927년 11월 20일 새벽, 경봉 스님은 촛불이 바람에 춤추는 듯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환해짐을 느꼈다. 깨달음이었다. 그때의 법열을 스님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껄껄껄 이제야 만나 의혹 없어지니/ 우담화 꽃빛 온 누리에 흐르네. (我是訪吾物物頭/ 目前即見主人樓/ 呵呵逢着無疑惑/ 優鉢花光法界流)”

삼소굴 대문에는 ‘일기일회(一機一會)’라는 스님의 선구(禪句)가 붙어 있다. “기회는 지금뿐이니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스님의 글로 마음의 때를 씻어냈다면 삼소굴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놓인 물항아리에 손가락을 적셔 몸을 깨끗이 할 일이다. 다도는 경봉 스님의 영정에 합장하고 전각 안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본격 시작된다.

시연에는 원행 스님이 팽주(행다하는 사람)로 나섰다. 스님은 고려대장경 ‘청규’에 나와있는 수십여 다도법을 실제와 비교해 새로 정립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문화재급 진귀한 다관에 양산 통도사·나주 운흥사 등에서 제다된 차로 시연했다. 순서는 녹차를 시작으로, 발우 공양, 황차, 극락선차를 선보였다. 녹차 시연에는 토우선생의 다관, 명나라 자주요 철회 찻잔, 청대 주석 잔받침, 고려 청자 자호, 청나라 출산석가도가 그려진 차칙이 사용됐다.

공양에는 굴림만두 쑥국, 봄나물 무침, 연근침, 능이초회 등 사찰음식이 발우와 송~원대 그릇에 제공됐다. 황차 시연에는 1930년대 제작된 은제 탕관, 청나라 청화백자 찻잔, 고려시대 청자 연화 퇴화문 차호, 고려 연봉형 숟가락 등이 사용됐다.

극락선차가 시연된 네 번째 음다에는 청대 자사다관, 청화백자나한도가 그려진 찻잔, 청대 주석 잔받침·차통·삼우도차칙·주석만자문 등이 쓰였다.

극락암 도감 혜원 스님은 “차 맛이나 격식을 따지려는 자리가 아니다. 이번 행사는 지금 여기 살아가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차를 대접하며 선담(禪談)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팔각화로 위 물주전자에서 물이 끓자, 원행 스님이 끓는 물을 다관으로 옮겼다. 스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맛있는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온도를 손끝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차통의 차를 대나무 차칙에 덜어 차를 우려냈다. 첫 잔을 건넸다. 입안에 차향이 그윽하다. 두 번째 잔은 숙우에 내놓아졌다.

혜원 스님은 “잔에 다시 따르지 않고 숙우에 내놓음은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나눠 마실 수 있도록 각자가 배려해 스스로 양을 조절해 직접 따라 마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순서는 발우 공양. 흰 쌀밥, 쑥국, 봄나물 등 반찬이 담긴 발우 세 개가 각자 앞에 놓였다. 오신채(五辛菜)를 뺀 사찰음식을 뜨면 산천의 봄내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이어 녹차를 발효한 황차가 내어졌다. 황차는 끓는 물에 바로 넣어 끓여 먹어도 돼 녹차보다 간편하다. 때문에 유학자들도 즐겨 마셨다는 것이 원행 스님의 설명이다.

시연회는 극락선차를 끝으로 회향했다. 극락선차는 극락암에서 기른 우전(雨前)을 깊이 우려낸 것으로 맛과 향이 깊기로 유명하다.

극락선차 삼소다회 시연은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경봉선풍 중진불사회는 극락선차 삼소다회를 정기화해 일반 대중도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삼소굴 큰 방 한켠에는 경봉 스님이 적은 글이 걸려 있다. 이것이 ‘다선일미’의 참 뜻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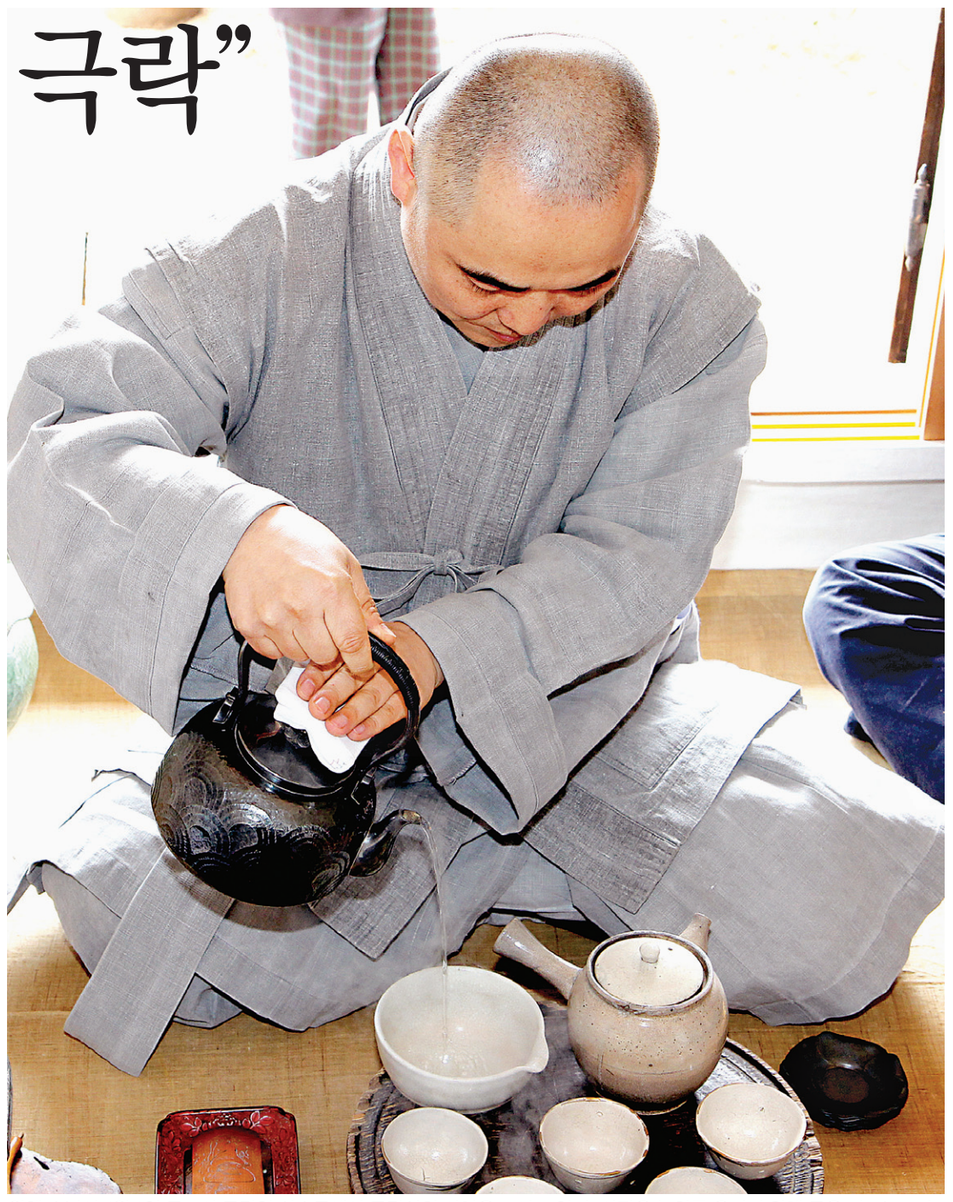
밥 먹고 차 마시는 살림살이가/ 일상 삼매의 소식이라./ 이 소식을 알겠는가!/ 차.(喫飯喫茶人生/ 日常三昧之消息/會得麼/ 茶)

통도사=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 모셔진 경봉 스님(1892-1982)의 진영

녹차-발우공양-황차-극락선차 순
공양은 쑥국과 봄나물 무침
경봉 스님의 ‘오절’ 삼매 소식
극락선차 삼소다회서 정례화 예정



원행 스님이 4월 3일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서 극락선차 시연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녹차를 우리기 위해 물을 따르는 모습. 스님은 대장경 청규에 나와 있는 다도법을 새로 정립했다.

“茶는 지친 수좌들에게 정신적 등대”

통도사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

“경봉 스님과 주로 무슨 차를 드셨습니까?”

“곡차”

“차 한잔 더 주십시오.”

“그럼 돈 내라.”

조주 스님은 불법의 대의를 묻는 후학에게 차나 마실 것을 권했지만,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은 달랐다. 대중의 물음에 주저없이 터져 나오는 스님의 선기 어린 즉답은 삼소굴에 걸린 ‘일기일회(一機一會)’가 분명했다.

경봉 스님의 ‘선다일미’ 경지는 스님을 20여 년간 시봉했던 극락암 선원장 명정 스님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고희의 스님은 상좌의 시봉을 받는 세납임에도 여전히 큰스님의 효상좌로 남기를 자임하는 선지식이다.

명정 스님은 “젊어서 불국사선방에 살 때 하루 세 시간만 자면서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했다. 당시 차는 피곤에 지친 수좌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정신적 양식이었다. 차가 없는 참선은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가부좌 틀고 앉아 공부하기도 바빴던 때라 그냥 차 한 움큼을 집어넣어 우려 먹고 공부했다”며 극락암 원광재(圓光齋)를 가득 채운 손님들을 위해 선방에서 했음직하게 털털한 차를 우려냈다.

대충 우려낸 듯했지만 차 맛은 달랐다. 쉬워 보인다고 명정 스님의 다법을 따라했다가는 속 버리기 십상이다.

명정 스님에게 물었다.

“극락선차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봉 스님 계시던) 당시에도 차 마셨지, 안마셨겠나.”



명정 스님이 경봉 스님 당시의 해제게를 펼쳐 보이고 있다. 뒷편의 ‘정석’ 편액은 만해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써준 글씨.

극락암을 나서는 길, 상좌 혜원 스님의 “명정스님 차는 마시고 서너 시간 지나도 그윽하게 향이 올라온다”는 말처럼 차 향기가 입안에 그윽했다. 스님과 주고 받은 문답 역시 차향과 같은 향운을 전했다. **조동섭 기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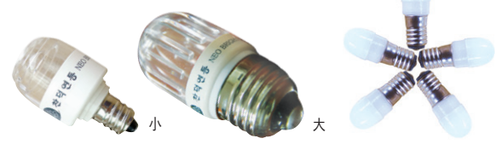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간화선으로 몸과 마음 치료하세요”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과정 운영

직장인 A(38)씨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오십견이 일찍 찾아왔다. 재활의료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의사는 오십견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처방을 내렸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 이하 국제선센터)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마다 진행하는 수행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려 보자.

간화선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수행법을 초심자도 쉽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지난 3월 10일부터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6시 ‘간화선 수행모임’을 연다.

둘째 주 토요일에는 국제선센터 선원장인 수불 스님이 직접 간화선 수행을 지도하며, 넷째 주에는 김흥근 한국간화선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지도자로 나선다. 프로그램은 〈전심법요〉를 바탕으로 간화선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스님에게 직접 수행 점검을 받는다.

외국인, 일반인, 동국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모임은 지난 1월 12~19일 열린 간화선 집중수행을 통해 이미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수 동국대 국제선센터 과장은 “현대인들의 명상과 참선에 관심이 증폭되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청 문의가 쇄도했다”며 “‘간화선 수행모임’은 당시 참가자들의 호응이 커, 간화선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약 40여 참가자들이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하고 있다.

김 과장은 “참가자들은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삶의 변화에 굉장히 놀라워 한다”며 “참가자들을 하나같이 오십견, 허리통증 등 몸의 불편함도 점차 나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제선센터는 이밖에도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외국인 스님 초청 영어법회를 실시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그래서 이 법회에는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미국), 무상사 주지 대진 스님(미국), 선준 스님(미국, 운문대 승가대 졸업), 무상사 관미 스님(폴란드), 용화선원 환산 스님(미국) 등 외국인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벽안의 스님들이 초청돼 불교입문과 참선방법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법회는 외국인은 물론 유학생 및 영어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외국인 스님 초청 영어법회의 모습

국제선센터 측은 “한국의 간화선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라며 “간화선 외에도 위빠사나 등 다른 나라의 수행법도 소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영도 학생(동국대 불교학부 2년)은 “간화선이란 낯선 용어가 지도법사님들의 상세한 지도하에 직접 따라해보니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때마다 쉽게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즐거워 했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오는 6월 중 하계 간화선집중수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아버지 역할속에서 나를 찾고 배우자”

한마음과학원, 아버지마당 ‘눈길’ 대행스님 가르침으로 자기 성찰도

“처남이 취업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같이 있는 기간이 두 달 넘으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갈등도 생겼고요. 이런 상황을 표현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가족관계와 집안상황을 설명한 뒤 팀원들과 함께 몸으로 가족을 묘사한다. 잠시 얹혀사는 것이 눈치 보이는 처남, 처남과 남편사이를 신경 쓰는 아내, 삼촌에게 방을 빼앗긴 조카 등 남성의 상황을 들은 팀원들은 가족 간 거리, 높낮이, 신체적 동작, 얼굴표정과 시선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몇 분이 지난 후 이경욱 교수(원광디지털대)가 팀원들에게 느낀 점을 물었다.

“상대의 입장이 돼 생각하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이경욱 교수는 내가 바라는 가족으로 조각해보기를 주문했다. 팀원들은 둥글게 손잡고 화합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3월 24일 토요일오후, 27명의 남성들이 모여 가정에서 겪는 고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발표를 했다. 모두들 아버지 · 남편 · 가장으로서 겪었던 경험들이라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안양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은 3월 10일부터 6주간 ‘2012 한마음 아버지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처음 진행된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자신을 돌아보고 다양한 아버지 역할 속에서 나를 찾고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3회째 프로그램을 여는 한마음과학원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의 참된 소임과 역할에 대해 묻고 그 질문의 답을 아버지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도록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인 아버지들은 6개조로 편성돼 이경욱 교수의 지도아래 ▷다르게 세상보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한마음이 되는 대화 ▷나와 가족의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버지들은 매주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가족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또한 평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써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자녀에 대한 칭찬과 희망적인 말을 전하는 연습을 통한 결과와 소감을 공유했다.


한마음 아버지마당에 참여한 남성들이 가정에서 겪는 고충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진덕 씨(45)는 “모든 일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롯되는 것을 알았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속에 담지 않고 항상 믿고 맡기면서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김선희 씨(42)는 “아이와의 마찰이 커지기 전에 아버지 역할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을 많이 보듬어주고 내 근본자리를 찾기 위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마음과학원측은 “남성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한마음 아버지마당은 나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자성을 밝히는 주인공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 아버지들에게 용광로 동영상을 보여주고 ‘믿고 맡기기’ 수행을 하도록 하고, 대행 스님의 법문을 읽어서 새기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제4회 한마음 아버지마당을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교사 꿈꾸는 딸 보며 빨리 일어나고파”

생명나눔실천본부 4월의 환우 선정

올해 2월, 황창용 씨(41세 · 사진)는 갑작스런 황달과 복수로 복통을 심하게 느꼈다. 의식이 혼미해져 인천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황창용씨는 10년 전 발병한 간경화 때문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황 씨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살아야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부인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손에서 씩씩하게 자란 고등학교 1학년인 예쁜 딸을 놓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황창용 씨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갑작스런 사고로 뇌사자가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된 것.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현재 황 씨는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에 있다.

황창용 씨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그러나 문제는 3000만원이나 되는 치료비다. 제과점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황 씨는 간경화 발병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고 황



씨의 부모는 청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신행 · 나눔 소식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모집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가 4월 13일까지 사찰 어린이 · 청소년법회를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을 모집한다. 청소년문화재지킴이활동은 문화재청이 청소년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운동’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문화재 현장봉사 활동이다.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 · 청소년법회 회원들은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문화재지킴이단 가입 시 문화재청장 명의의 위촉장 발급 및 문화재 교육 · 봉사활동, 자원봉사증 발급, 우수활동자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02)723-6165~6

공불련 제21차 성지순례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상인, 이하 공불련)가 4월 28~29일 충주 석종사에서 제21차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의 참선수행법과 실수 강의, 새벽예불, 암자순례, 문화재 관람으로 진행된다.

이번 법회에는 공불련 임원 및 회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공불련은 설동근(前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사임으로 인해 이번 법회에서 대의원 총회도 함께 진행한다.

대불련 템플스테이 진행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 이하 대불련)가 학기 중 처음으로 전국적인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대불련은 3월 31일~4월 1일 충주 석종사에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2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불법홍포 전달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불련은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충주 법성원 양로원에 전액 전달했다.

제25기 기초불교 영어강좌 개최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한국불교의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6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마다 서울 종로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제25기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기초불교 영어강좌는 수료 시 국제포교사양성과정 선발시험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02)722-2206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녹여주는 골굴사
◈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중흥사는 태고불교의 상징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서 발표

대표적인 호국도량이었던 북한산 자락의 고양 중흥사(重興寺)는 18세기 초 북한산성 축성때까지만 해도 30여 칸에 불과하던 작은 사찰이었다. 1712년 북한산성 축성과 함께 중흥사는 수도방위의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136칸에 달하는 대규모 승영(僧營) 사찰로 확장됐다. 북한산성 안에서도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중흥사에는 팔도도총섭을 겸한 승대장이 머물렀고, 산성의 유지관리와 승군 지휘사령부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대표적인 호국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중흥사 위상은 승병제도 폐지와 일제의 한반도 침탈로 인해 쇠락해졌다.

의병운동이 한창이던 1907년 일본군은 도적 소탕을 명분으로 중흥사에 헌병대를 주둔시키게 되면서, 외침을 막기 위한 호국도량 중흥사는 외세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치욕까지 당하게 됐다.

폐사된지 100여 년만에 복원을 시작해 4월 18일 대웅전 상량식을 앞둔 중흥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불광연구원(원장 지홍)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를 주제로 승군 수사찰 북한산 중흥사 복원기념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 '북한산지를 통해 본 북한산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북한산성을 관리했던 북한산 여러 사찰들과 중흥사의 위상에 대해 고찰했다.

황 교수는 "북한산 불교는 백제 초기 시작됐으나, 사찰명이 확인되는 것은 삼국통일기 장의사가 최초이다"라고 소개했다.

장의사는 신라말 900년을 전후해 원종대사 찬유와 법인 국사 탄문이 구족계를 받았던 화엄종계 사찰로, 조선 중기까지 북한산의 중요사찰이었다.

황인규 교수는 "북한산 불교가 크게 부각된 것은 현종을 비롯한 고려 왕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라며 "거란 침입시에는 북한산 향림사를 태조 왕건의 재궁으로 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재광 전쟁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은 '수도방위와 북한산성의 전략적 · · 지정학적 가치'에서 수도방위에 있어서 북한산성의 전략적 가치와 국방학적 관점에서 본 중흥사에 대해 발표했다.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 '북한산성의 축성과 관리에서 승군과 중흥사의 역할'을 통해 북한산성 축성에서 승군의 역할과 중흥사의 위상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조선후기 불교계는 산성의 축성과 방어를 위한 의승군 제도로 인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임진왜란처럼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의승군에 참여했던 사실을 조선후기에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명제 교수는 "중흥사 복원은 국가에 의한 불교계 수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험난한 시대를 겪으며 불교계를 유지 · 계승한 과거사를 정확히 성찰하는 것은 오늘의 불교계의 자화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은 '승영사찰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복원방향'을 주제로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고양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태고보우 1341년부터 주석
유생과 불교 잇는 가교 역할도
이능화는 '제일기념지' 역설

중흥사는 태고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위상을 지닌 도량이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가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중흥사의 중창불사에 태고보우 스님이 참여 했기 때문이다.

김상영 교수는 "태고보우 스님은 1341년부터 중흥사 중창불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태고암을 신축하고 5년에 걸친 수행 기간을 보냈다. 보우 스님 입적 후 중흥사와 태고암에는 보월승공탑과 원증국사탑비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흥사가 '조선불자 제일기념지지(朝鮮佛子 第一紀念之地)'로서의 위상을 지닌 도량이라고 강조했다.

근대기 이후 한국불교 승단은 종파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조선불교조계종을 거쳐 오늘날의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할 수 있었다. 중흥사와 깊이 연관된 태고보우 스님은 한때 조계종 종조 위상을 갖고 있었고, 현재는 조계종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영 교수는 "'태고법통'은 조선 중기 이후 한국 선불교의 유일 법통이었다. 때문에 이능화 박사는 '중흥사를 조선불자들이 제일기념지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능화는 중흥사를 찾아 "흰구름 흩어지고 그림자 저만치 옮겨가니, 고요함이 태고 때와 같아라. 보우스님 여기 와서 시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줄줄이 늘어선 산들이 자손이 되었네"라는 시를 읊기도 했다.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는 태고보우 스님을 통해 중흥사의 사격을 조명했다.


북한산 중흥사의 옛 모습. 현재 과거의 사격을 회복하기 위한 중창불사가 한창이다.

김상영 교수는 중흥사가 북한산성의 수사(首寺)이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진호 · 비보도량이었다는 특색도 설명했다. 보우스님의 중흥사 중창과 주석은 스님이 주창했던 한양천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중흥사는 보우대에 이르러 진호 · 비보도량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는 서경 중흥사가 수도 개성의 북방을 진호하는 도량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우는 북한산 중흥사를 천도대상지인 남경의 북방을 진호하는 의미로 중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사는 호국도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찰이기도 했다. 또, 한양의 지식인들이 즐겨 찾던 독서 · 수학 도량이었다.

김상영 교수는 "김시습 등이 중흥사를 찾아 수학했다"며 "이들의 문집에서 중흥사에 대한 비판글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중흥사는 유생과 불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탄허 스님 생애와 사상 조명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현대 불교교학의 대종장 탄허 스님(1913~1983 · 사진)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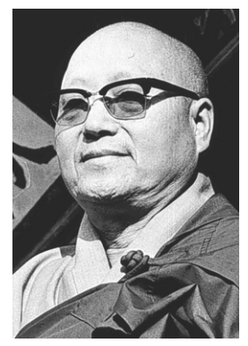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와 공동으로 4월 27일 12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대산 화엄의 특징과 탄허의 원융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의 축사,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의 치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발표 1부에서는 자현 스님(월정사 교무)이 '오대산 문수화엄 신앙의 특수성 고찰'을,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탄허 택성의 한국불교사적 지위'를, 임상희 동국대 외래교수가 '탄허 택성의 화엄사상'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윤창화 대표(도서출판 민족사)가 '한암과 탄허의 同 · 異비교'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탄허의 시대인식과 종교관 고찰'을,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탄허 스님의 도참설, 그 배경과 의의'를 주제발표한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 후에는 한국불교학회 임시총회 및 제20대 회장선거가 치러진다.



한국불교학회 김용표 회장은 "현대사회는 학문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져 통합되는 융 · 복합(회통) 시대이다. 이즈음 스님의 화엄철학과 원융관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의 정리만이 아닌, 미래 방향 제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번뇌-자비, 인심(人心)-도심(道心)

김근우 교수, 융합연구 학술세미나 '불교와 사상 의학의 만남'

동양의학은 인간 내면 즉, 마음을 중시한다. 불가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 · 도가에서도 마음을 바탕으로 정신의학 체계를 형성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동국대 한의학연구소는 3월 31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을 주제로 융합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근우 교수(동국대 분당병원 신경정신과)는 주제발표 '유 · 불 · 도 사상의 심신치유적 적용을 위한 심(心)의 연구'를 통해 마음과 심신치유의 관계를 조명했다.

한의학의 대표 경서인 〈황제내경〉의 사상적 원류는 황노사상 등 도가에서 찾을 수 있다. 김근우 교수는 "'의도동원(醫道同源)'이라는 태생적 특징은 한의학이 도교와 같은 기원에서 유래했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교와 한의학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중생의 가장 근본적인 고뇌의 해결을 위한 과제에 다 같이 접근하면서 그 고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궁극적 목적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불교의학에서의 마음은 한의학과 사상의학과 비교연구의 대상이 가능한 초기불교 · 유식에서의 마음의 개념으로 한정된다. 사상의학에서의 마음은 용어나 이론 등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근우 교수는 불교의학과 사상의학, 한의학에서의 정신 · 심리 활동적인 측면을 비교 · 고찰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학에서는 마음에 대한 유형적 인식론의 폭이 넓지만, 사상의학과 한의학에서는 신체를 구성하는 각 인자로 범위가 한정된다"고 말했다.

김근우 교수는 "불교의학은 마음의 기능적인 면을 '의식' '말라식' '아뢰야식'으로 사상의학은 '심욕(心欲)'으로, 한의학은 '이(理)' '신(神)'으로 설명했다"며 "마음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학의 '신(神)'이 가장 포괄적이고 불교의학의 '아뢰야식'이 사고와 의식에서 그 표현이 깊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불교의학 · 사상의학에서 마음의 양극은 각각 '번뇌'와 '자비정신',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경주캠, 창의적 인재 양성프로그램

'불교명상과 심신의학' 등 융복합 교양교과목 개발, 운영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양교육원(원장 박상신)을 중심으로 학제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올해 1 · 2학기 동안 15개의 융복합 교양교과목을 개설했다.

융복합 교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융합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근거를 밝히는 교과목, 또한 한 가지 학제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나 그 학문을 융합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1학기 실시되는 융복합 교과목은 '불교명상과 심신의학' '과학, 우리시대의 교양' '녹색 아이디어 창출론'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등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양교육원은 지난해 교양교육개편위원회 운영을 통해 12차례에 걸친 회의와 워크숍,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융복합 교과목 개발 기준과 구성 지침 등을 연구했다.

박상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양교육원장은 "융복합 교육과정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수호 인력 양성코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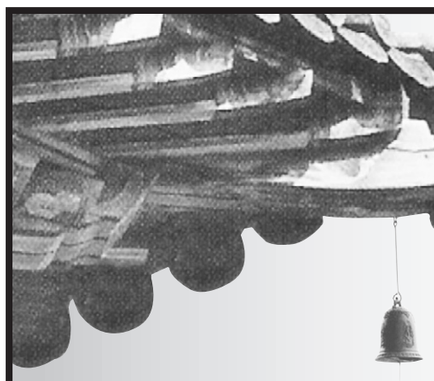
동국대가 문화재 수호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국가공인 문화재단청기술자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김황록)에 개설된 이 과정은 4월 7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7월 까지 16주간 진행된다.

강좌는 단청기술자 양성, 성보문화재 복구 · 보존 전문가 양성, 실질적인 불교문화 계승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강좌는 ▷한국사 ▷한국건축사 ▷문화재관련법령 ▷단청이론 ▷색채론 ▷도학 ▷도학실습 및 단청채색실습 ▷현장 강의 등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게이트볼로 강화 주민 한마음 돼”

전등사, 최대 게이트볼 대회 개최
동국대 일산병원 무료 진료 인기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는 4월 3일 강화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제7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2006년 첫 실시 이후 해마다 참가팀이 늘어나 올해는 역대 최다인 118개 팀이 출전해 단위 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은 대회사에서 “작은 정성으로 시작했던 대회가 이제는 규모가 가장 큰 대회로 성장해 감개가 무량하다. 이 대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열 대한노인회 강화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강화 게이트볼 대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질 줄 몰랐다. 이 대회를 주최한 전등사 회주스님께 감사드린다. 규모가 커진 만큼 내용도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의회 유호룡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화군 길상면에서 이런 큰 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것은 전등사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기를 빈다”고 말했다.

경기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가 넘어 끝났다. 열띤 경합 끝에 교동면 양갑팀이 우승을 했다. 준우승에는 역시 교동면 난정2리 팀이 차지했다. 이날 4강에는 모두 교동면 소속팀이 올라 결승전답지 않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경기가 펼쳐졌다.

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은 “강화에서 게이트볼을 즐기는 사람이면 모두가 전등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한다. 인천지역까지 포함해 1박2일로 대회를 개최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이 신중히 퍼팅하고 있는 모습

한편, 동국대 일산병원은 의료진을 게이트볼 대회장으로 파견해 한방 무료 진료를 펼쳐 지역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50여 전등사 신도회원들은 따뜻한 국밥과 부침개 떡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대회 참가자들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자따마따 개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공동대표 법일)는 2012년 총 4회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따라 마음따라(자따마따)를 1박 2일 동안 개최한다.

3월 24~25일 강진 백련사를 시작으로 4월 28~29일 합천 해인사, 6월 23~24일 대구 유가사, 9월 8~9일 고창 선운사, 10월 27~28일 완도 신흥사에서 각각 봉행된다.

행사에는 각 사찰의 유적 둘러보기, 다도, 차 만들기, 환경교육, 건기명상 등의 내용으로 초등학교 2학년~6학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또 9월과 10월에는 어린이 생태학교가 영광 불갑사와 광주 증심사에서, 8월 3~5일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지리산마음캠프가 개최된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3월 31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 30여 평의 전용공간과 회의실을 마련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협약 눈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은 4월 6일 고창군청소년지원센터 외 6개 교육기관과 함께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학교사회사업은 고창고등학교 등 지역 내 5개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일탈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품성개발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 내 여가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욕구 충족을 위해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캠프, 청소년자원봉사아카데미을 개최하며 청소년의 학습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학습멘토링사업, 결연후원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숭모제에서 대구 부인사 신도회가 한울북춤을 선보였다.

선덕여왕 호법 정신을 계승하자

제26회 숭모제, 부인사서 열려

신라불교를 융성하게 이끈 신라 선덕여왕을 기리는 제26회 선덕대왕 숭모제가 4월 5일 대구 부인사(주지 종진)에서 봉행됐다.

숭모제는 선덕여왕 영정이 모셔진 숭모전에서 헌공의식을 시작으로 헌향, 헌다, 숭모사, 참봉례, 정제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숭모제에 앞서 선덕여왕 행차를 재연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동화사 일주문에서 부인사에 이르는 3km 구간에서 펼쳐졌으며 베르데 에코 중창단의 노래 공연과 한울북춤 공연 등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또 부대행사로 닥종이 인형전시, 가훈 적어주기, 전통 한지공예 전시 등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불법의 힘을 빌려 난국을 극복하려고 했던 선덕여왕의 뜻과 서원을 받들어 숭모제가 이 시대의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행자 선덕여왕 숭모회장도 “숭모제 봉행으로 어려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남북한의 대치가 눈 녹듯이 해소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에 선 체험하러 오이소~”

동화사, 국제관광선체험관 개관

대구 동화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을 테마로 한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4월 1일 통일약사여래대불 앞에서 국제관광선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김범일 대구시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 1천여 대중이 참석했다.

통일대불 지하공간에 조성된 선 체험관은 총면적 2710 제곱미터 규모로 한국불교의 선문화를 소개하는 각종 영상과 사진 등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사찰문화 관광상품 가치크다”

선운사, 팸투어 열띤 호응

고창 선운사에서 구미지역 여행사 관계자와 언론인 초청 팸투어(홍보 사전답사 여행)가 개최됐다. 4월 5일~6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선운사 팸투어에는 미국·캐나다·러시아·영국 등 8개국 29명의 여행사 관계자와 언론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륜 스님 지도로 발우공양과 타종, 예불 등 불교문화 체험이 진행됐으며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과의 차담도 진행됐다. 6일에는 진광 스님의 지도로 새벽예불에서 108배와 명상, 도솔암 묵언 포행 등 수행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날 ‘리더스다이제스트 캐나다’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앨리슨 켄트 씨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특히 한국사찰의 수려한 경관과 수행문화가 매우 매력적이었다,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팸투어 행사는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와 불교수행문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갑사, 왕인축제 앞두고 고유재 봉행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와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3월 8일 도갑사 국사전에서 ‘2012년 왕인문화축제 원만 회향을 위한 도선국사·수미왕사 추모 고유제’를 열었다.

8년째 진행된 이날 행사는 4월 6~9일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펼쳐진 왕인문화축제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다.

도갑사는 축제기간 중 템플스테이와 사찰문화유적을 안내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일반인과 일본답사단에게 사찰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원법회에는 월우 스님, 김일태 영암군수, 박영배 군의회 의장, 하대주 도갑사 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좋은우리절, 청소년 인성교육 나서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3월 30일 ‘명상수행과 함께하는 한나무 인성교육’과 ‘신나는 청소년 주말문화노리터’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청소년법회 운영단 지도법사 동현 스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경쟁중심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자기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주말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침체돼 있는 청소년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여러 청소년 관련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4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5월 1일(화요일)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인문학, 사람답게 사는 법 일러줘”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계종 화쟁리더십아카데미-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경제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침투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 삶의 목적은 온통 돈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인문학, 속된 말로 돈이 되지 않는 인문학이라는 학문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미 멀어졌다. 그러면 인문학은 저 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야 마땅한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은 이 삭막한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4월 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화쟁리더스아카데미에서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71)가 인문학의 역할을 논했다.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를 통해 현대 사회 속 인문학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정리=정혜숙 기자**bwjhs@hyunbul.com

자본주의 사회 인문학의 가치 전락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은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과 우정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인문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똥값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 모두가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버리고 가치가 물구나무 서고 있는 것이죠”

도정일 교수는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며 인문학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현상 자체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을 돌리는 시장 가치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돈이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돈이 만물을 재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 수 없는 것은 시장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리죠”라고 설명한다.

그는 현재 돈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대학 사회를 예로 들며 시장사회의 폐해에 대해 얘기했다. 도 교수는 “지금 우리는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말하던 대학도 모두 시장판이 되었습니다. 학생 기숙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뛰어들어 시공하는 세상입니다. 스타벅스 등 대기업 매장들이 모두 대학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학제에도 시장 용어가 도입돼 학생을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도 하죠. A학점 많이 줘라,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 과목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 등등 마치 고객의 입장이 돼서 불만들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배금주의는 소통 불가능 사회 낳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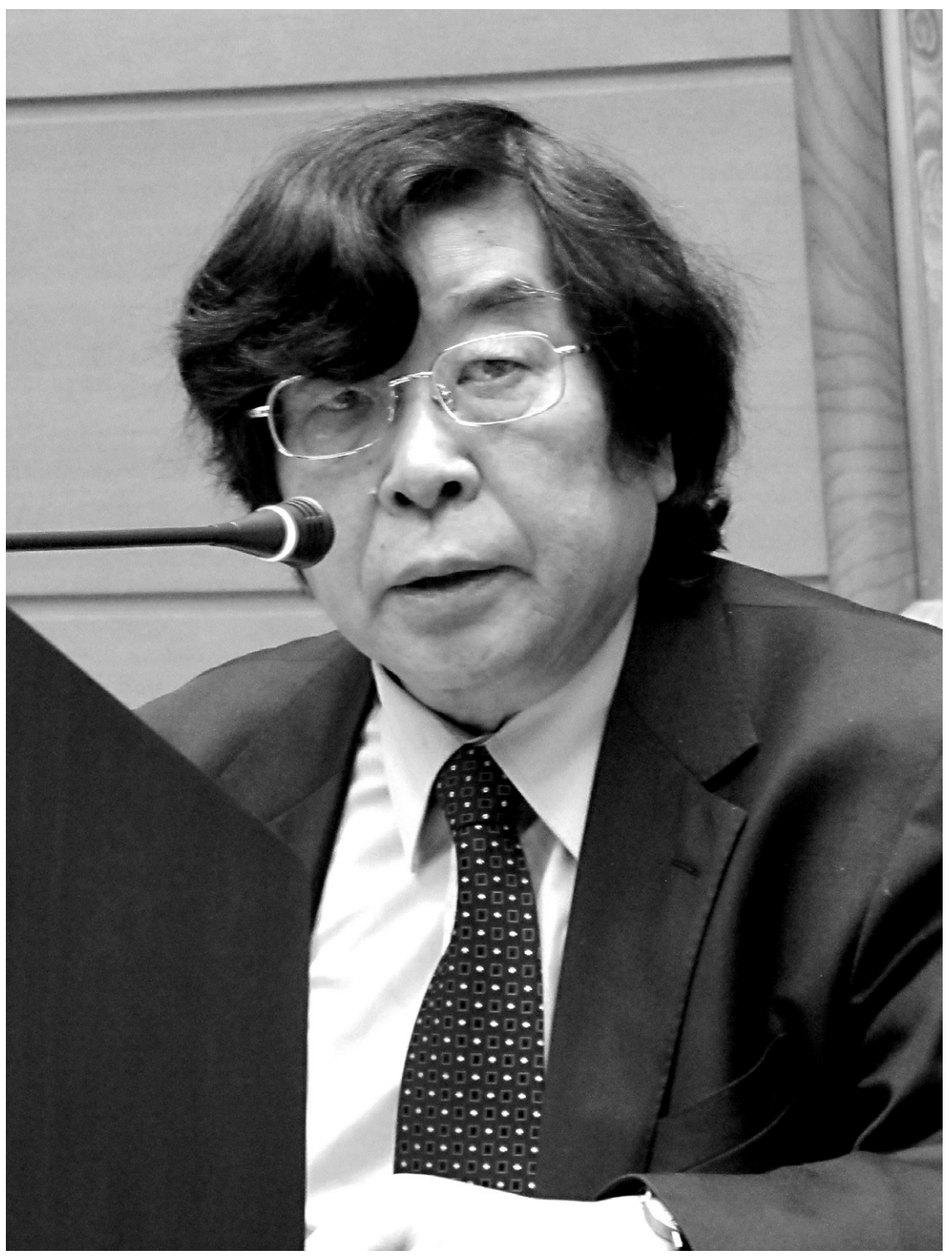
이러다 보니 대학은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혼돈된 사회가 되고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 또한 돈을 신봉하는 구성원으로 길러지게 된다는게 도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5개 이상 써내라고 하면 대부분이 1등 아니면 2등이 돈입니다.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아마도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하루만 인문학 강의를 하라고 한다면 중생이고 보살이고 다 귀찮다고 도망 갈 것입니다”라며 현 대학 교육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도 교수는 미국의 호화 감방, 대리모 제도, 기념품점으로 전락한 영국의 대성당 등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대리모는 자궁을 파는 거죠. 백인 여성 자궁은 7만 불, 인도 여성은 7천불 한다고 합니다. 인도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가격이 10분의 1 정도 싼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생명 조차에도 다 가격을 매겨 팔아먹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팔아먹을 수 없는 것은 똥값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수단이 목적을 제치고 목적에 대한 사유도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라며 정신적 가치가 사라져 버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결국 이런 시장 사회가 길러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사회현상을 낳는다. 그는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내야만 하는 시장 사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면서 소통 불가능의 사회를 만들고 있죠”라며 서글픈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선거에 나온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은 A학점을 맞기 위해 남의 레포트를 베끼기 짜깁기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겨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앞으로만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공동체 붕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돈이 최우선 가치 된 현대사회
학문의 상아탑 대학도 시장판
나 위해 남 짓밟는 모순 반복돼
불교의 자비심 최고의 윤리 지침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4월 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의했다.

도 교수는 “인간은 공동선을 추구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인문학은 이런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미국 등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도 교수는 “미국의 금융 파동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에만 몰두하다보니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 격차가 늘어 고통이 늘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시장원리가 사회로 그대로 들어와 적용돼 생긴 부작용입니다”라고 전한다.

혼돈 극복 위해 공존과 공생 모색해야

이런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이유를 사유하고 공존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국민들 삶의 윤리적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도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공존과 공생은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가치가 반영돼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시장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가치죠.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꾸준히 얘기해 왔던 분야가 바로 종교와 인문학”이라고 말한다.

특히 도 교수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 비폭력 등이 최고의 윤리적 행동 지침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연민 동정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그는 “결국 인문학을 통해 내가 타인의 입장에 서 볼 수 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종교 예술 인문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가치죠. 그래서 인문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시 한편 또는 소설책 한 권을 통해 우리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이해할 수 있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또는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 등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가치라고 말한다. 도 교수는 “인간을 수단으로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엄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철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는 시민은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행위죠.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자비심이고 측은지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성적 판단과 정서적 함양을 위해 인문학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도정일 교수의 인문학 강연을 경청하고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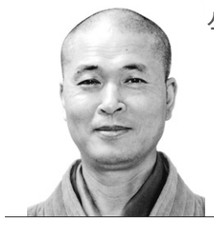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자네는 묻는 법을 모르고 있어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천제(闡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보리를 묻지 않는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보리(菩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만 천제일 뿐이야."

問 如何是闡提 師云 何不問菩提 云如何是菩提 師云 只者便是闡提

천제(闡提)는 둔재를 말한다. 지혜의 반대개념이다. 천제는 자신이 완벽한 붓다임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천제는 지혜와 믿음이 부족하여 부처가 되지 못하는 자이다. 지혜와 천제는 통한다. 천제를 알려면 먼저 지혜를 알아야 한다. 지혜를 알려면 먼저 천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천제를 알려면 지혜를 물으라 했다. 그리고 천제가 바로 지혜라고 했다. 오직 모를 뿐! 고집불통 천제! 최상의 지혜를 얻은 자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역대 선사가 모두 그러했다.

조주 스님이 어느 때 주먹을 쥐고 말했다.
"나는 주먹이라고 부른다. 자네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학승 말했다.
"화상께서는 어찌 사람에게 경(境: 경계)을 보이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도 경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만약 경을 자네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자네를 경(境)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어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은 곧 "잘들 있게"하고 인사말을 했다.

師有時屈指云 老僧喚作拳 你諸人喚作什麼 僧云 和尚何得將境示人 師云 我不將境示人 若將境示闍黎 即埋沒闍黎去也 云爭奈者箇何 師便珍重

선사가 주먹을 주먹이라고 말하고 사과, 주장자, 나무, 돌, 책상 등의 명칭을 그대로 말한다고 해도 경계를 보인 것이 아니다. 학승은 경계로 보이지만 선사는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말해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선사가 경계를 가지고 학인들을 가르치려한다면 그것은 학승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사가 남을 가르치는데 주먹을 주먹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를 나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다만 '안녕!' 하고 인사나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1문 1답은 모두 천마(天魔)나 외도(外道)에 떨어집니다. 가령 무언(無言)이라 해도 저 광망(匡網:어긋남)을 범합니다. 무엇이 조주의 가풍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묻는 법을 모르고 있어."
학승이 물었다.
"제발 화상께서는 대답을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응당 방망이 20대는 맞아야하네."

問 一問一答總落天魔外道 設使無言又犯他匡網 如何是趙州家風 師云 你不解問 云請和尚答話 師云 若據你合喫二十棒

일문일답이라도 있게 되면 천마(天魔) 외도에 떨어지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도 역시 어긋난다면서 어찌 가풍을 묻는가? 그렇게 말을 잘라놓고 물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무엇이 조주 스님의 가풍입니까?"하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선사는 자유자재로 취모검을 휘둘러 법을 보일 것이다.

만일 내게 학승이 이처럼 질문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예전에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그 뜻을 아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조주 스님은 있는 그대로 보이기를 좋아해서 분바르고 그리는 것을 싫어한다. 만일 임제 스님이었다면 할이나 방을 내렸을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9〉

팔정도-①정견(正見)

현실 통찰 사성제 바로 아는 처방전

도성제(道聖諦)의 도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법이며, 이 수행법은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팔정도(八正道)라고 부른다. 팔정도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론이다. 즉 의사가 병자에게 내린 처방전인 것이다.

병이 나으려면 약의 복용과 규칙적인 식습관 등이 병행돼야 하는 것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행을 실천해야한다. 그 수행법 중 첫 번째가 팔정도의 정견(正見; sammāditthi)이다.

정견은 사성제(四聖諦)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괴롭다는 것[고성제(苦聖諦)]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집성제(集聖諦)]을 알고, 괴로움이 소멸해 열반을 얻는다는 것[멸성제(滅聖諦)]을 알고,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얻기 위한 실천행[도성제(道聖諦)]을 아는 것이 정견이다"라고 설했다.

이처럼 팔정도는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결부돼 있다. 부처님 최초의 설법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조차 의심한다면 계(戒)를 지키며 수행에 정진할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견을 내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사성제를 바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착된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통찰한 다는 것'은 법(法; dhamma)을 통찰한다는 말과 같다. 정견의 '바를 정(正)'을 뜻하는 빨리어 삼마(sammā)가 법을 뜻하는 담마(dhamma)에 입각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견을 다른 말로 법견(法見)이라고 하며, 법견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근간으로 삼는다. 법[dhamma]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현실의 것[sandiṭṭhika]'을 말한다. 따라서 정견은 어떤 알기 어려운 관념적 진리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도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견은 집착을 떠나 중도의 입장에서 사성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지, 결코 현실에서 벗어난 어떤 심오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세계를 본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의 세계이므로 그 고의 원인을 찾아 고를 소멸함으로써 열반을 얻는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행중 하나가 바로 정견인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관련해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당연히 독화살부터 뽑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화살을 뽑기 전에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이며, 신분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또 화살은 어떤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 졌는지 등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모두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여길 것이다."

이 독화살의 비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현실세계에서도 중생들은 괴로움이라는 독화살에 맞아 온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 괴로움의 독화살은 놓아 둔 채, 다른 엉뚱한 것에 정신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독화살에 맞았다면 화살을 쏜 자 혹은 화살의 재질 등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견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독화살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이다. 이는 마치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다. 어둠속에서 등불을 밝혀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무명(無明)에 휩싸인 허망한 속세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올바른 길을 보는 것이 정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⑭



여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친구여' 라고 부르지 말라 〈맛지마 니까야 26〉

이미 지나왔는데 자꾸만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게 된다. 붙잡혀 버려서다. 이 말씀이 내도록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되새김질 하게 된다.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이다.

"여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친구여' 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도 '여래시여', '스승이시여' 라고 불러주기 전에 스스로 "나는 여래다", "나는 스승이다"라고 자임하고 나선 선언문(宣言文)이다. 거기에는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이 홀로 깨침의 길을 걸었던 구도자의 고독이 있고, 그런 고독을 떨치고 일어나서 스스로가 스승이 됨을 선포하는 용기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해볼 때, 나는 이런 항변을 부처님께 드리고 싶어진다. "부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은 아닌지요?" 비록 그것이 세속적인 이름이라거나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이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잠시 뒤에, 여래의 말씀을 듣고서 최초로 그의 제자가 되어준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들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물쇠를 꼭꼭 채우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아직은 올바른 호칭을 부여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때 "이제 고타마 싯다르타는 상대하지 말자. 그는 단식을 그만두고 유미죽(우유죽)을 먹고서, 이 수행도량을 떠나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집단따돌림의 결의를 했던 그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마음의 문(門)을 조금은 열어젖혔다는 것으로 읽힌다.

만약 그들이 조금의 틈새도 용납하지 않고, 옛날 그 결의대로 집단따돌림을 시도하였더라면 그들은 침묵했을 것이다. 외면했을 것이다. "싯다르타여! 참으로 오랜 만이오"라는 식의 인삿말을 토(吐)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는 부처님을 불러주기는 했던 셈이다. 고마운 일이다.

아무런 호칭으로도 불리움을 받지 못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또 어떠했을까. 내게는 그런 씁쓰레한 기억이 있다. 한 학생이 있었다. 나를 아무런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았다. 나는 한번도 그 학생으로부터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 불리워 본 기억이 없다. 왜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기다리면 고쳐지겠지, 했을 뿐이다.

무인칭(無人稱)은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현대 문명의 병리현상일 뿐이다. 결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척도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면에서 "고타마 부처님"이라 하는 것도 예의에 맞



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그저 "부처님"이라 하면 된다.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이시여"라거나 "여래시여"라 말하는 것은 존경의 염이 담긴 2인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고마타 부처님이시여"라고 이름까지 넣어서 부르는 것은 아직 거리감이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마땅히 2인칭으로 불러야 할 존재를 3인칭으로 부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해서 "고타마 부처님은 ---"이라 말하는 것은 옳다. 물론 그때 역시 "당신께서는"이라는 더 좋은 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나 역시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김춘수, 「꽃」)으로 불리고 싶다. 나와 너, 나와 그대 사이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고, 불리고 싶어서이다. 어쩌면 이미 부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신제품 흑 룡 초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크기 ∮7.5 × 29c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악쑥초 90cm ×90cm
② 악쑥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악쑥초 돈타레 5.6∮×27cm
④ 악쑥초 밀대 4.7∮×25cm
⑤ 악쑥초 1호 5.9∮×18cm
⑥ 악쑥초 2호 5.9∮×14cm
⑦ 악쑥초 3호 4.7∮×13cm
⑧ 악쑥초 4호 4.7∮×10cm
⑨ 악쑥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악쑥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악쑥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악쑥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악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악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27cm
④ 밀납초 밀대 4.7∮×25cm
⑤ 밀납초 1호 5.9∮×18cm
⑥ 밀납초 2호 5.9∮×14cm
⑦ 밀납초 3호 4.7∮×13cm
⑧ 밀납초 4호 4.7∮×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사찰 격에 맞고 자연과 조화 이뤄야 바람직

석누조

석누조(石淚槽)는 배수구의 물이 밖으로 잘 흘러 빠질 수 있도록 석단이나 기단의 상부 혹은 벽면에 약간 튀어나오도록 설치하는 물홈돌이다. 석누조를 설치하지 않고 배수구 물이 바로 석단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할 경우에는 배수구가 들여다보여 경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벽면을 타고 배수된 물로 인해서 석단의 돌이 변색되거나 석단자체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사지를 가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배수에 특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사면을 따라 내려온 물이나 마당에 내린 빗물을 명거나 암거배수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곳에 석누조를 설치해 경관요소로 활용했다. 석누조를 통해서 빠져나온 물은 구조상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정원에서는 이 물을 폭포로 이용해 시각적·청각적 효과를 갖도록 했다. 석누조의 형태는 흡사 혀처럼 생긴 것이 보통이나 궁궐에서는 용·거북과 같은 서수(瑞獸)의 머리 형태로 만들어 일반적인 공간의 그것과 차별화하기도 했다. 궁궐에 설치한 석누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덕궁 부용지, 창경궁 통명전 연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창덕궁 부용지 입수부에 설치된 석누조는 용두형이며,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우수를 못으로 입수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벌어진 입을 통해서 물이 못으로 떨어지도록 되어있어 폭포효과를 가진다. 한편, 창경궁 통명전 옆 석지의 입수부에도 석누조가 설치돼 있다. 이 석누조는 수원이 되는 샘물을 석지(石池)로 끌어들이는 석구(石溝)의 말단에 장치돼 있고, 혀모양으로 된 일반적인 석누조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석누조에서 석지로 떨어지는 물 역시 폭포효과를 보인다.

우리나라 사찰은 산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찰불사에 있어서 배수처리가 중요한 과제였다. 배수로가 끝나는 석단 벽면에 석누조를 설치해 배수처리를 기능적으로 완성하면서 동시에 석누조를 경관요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찰에 설치한 석누조는 궁궐에 설치한 용머리 석누조에서 얻으려고 했던 장식적 효과보다는 기능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사찰의 분위기에 조화되는 형태를 고려해 설치했다.

불국사 석단에 설치한 석누조는 다른 곳에 설치한 석누조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암키와 형태로 만들어져있다. 이 석누조는 무설전 후면에 있었던 샘물에서 흘러넘친 물과 대웅전 마당으로 스며들어간 빗물이 마당 하부의 자갈배수층을 통해 모아지고, 그 물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시설 말단에 설치했다. 불국사 석누조는 석단 벽면에서 불쑥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보인다. 이 석누조를 통해 배출된 물은 폭포를 이루며 하부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석누조의 물이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자연석을 놓아 물이 떨어지면서 사방으로 튀도록 만들어 청각적·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물받이 돌 주변으로는 자갈층을 형성하여 물받이 돌을 맞고 주변으로 흩어진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며 이것이 다시 구품연지로 입수된다. 이렇게 볼 때, 불국사 석누조는 일종의 배수시설이면서 동시에 구품연지로 물이 입수되는 입수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암사지 장대석 석단에 난 물구멍

경사지 가용공간 활용 배수 중시
장식보다 기능·경관 요소 우선
불국사 석누조 폭포 효과 장관

용주사에서도 장대석 석단에 설치한 석누조를 볼 수 있다. 용주사 석누조는 불국사 석누조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 편이다. 불국사 석누조가 자연석 석단상부에 설치돼 투박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용주사 석누조는 장대석 석단에 설치돼 있어 단아한 느낌을 주어 비교가 된다. 용주사에는 대웅보전 석단 및 나유타료 석단 등 여러 곳에 석누조가 설치돼 있다.

송광사에서도 여러 곳에 석누조를 설치해 마당에서 배수된 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대웅전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화엄전 담장에는 여러 개의 석누조가 설치돼 있다. 이 석누조는 크기가 작고 돌출정도도 심하지 않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산지사찰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대찰이었던 양주 회암사지의 경우에는 장대석 석단에 여러 개의 물구멍이 보인다. 장대석 석단의 축조기법이나 상세로 볼 때 물구멍을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한편, 고양 흥국사 약사전 기단에도 좌우로 물구멍이 보인다. 춘천 청평사 석단에도 물구멍이 보이는데 이곳에도 석누조를 설치하지 않고 물구멍이 그대로 보이도록 했다. 이것을 보면 보통의 사찰에서는 석단에 석누조를 설치하지 않고 물구멍이 그대로 보이도록 놔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모양이다. 특히 석누조를 설치하더라도 용두나 귀두형 석누조를 설치하지 않고 사찰의 격에 맞고 주변의 자연에 어울리는 형태의 석누조를 도입한 것을 보면 사찰에서는 작은 점경물이라도 사찰 특유의 경관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고양시 흥국사 기단에 난 물구멍. 배수구의 물이 밖으로 잘 흘러빠질 수 있도록 설치된 물홈돌이다.


창경궁 통명전 옆 연지의 입수부에 설치한 석누조


창덕궁 대조전 후원의 석누조


용주사 대웅보전 하부 석단에 설치한 석누조


불국사 석단에 암키와 형태로 설치한 석누조와 하부의 자연석 물받이 시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호신경 600조 @20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막대제등램프(분홍/연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영가 /방수등표大 판매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22㎝ • 100매 • 250SW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3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2,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3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2,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 @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 단 접 등(10.5㎝) 340,000원(100개)
• 비 단 접 등(12㎝) 350,000원(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 / 25 ㎝ / 30 ㎝ 5줄이상@ 65,000원
50 ㎝ 1m / 2 m 기타주문생산


LED전구 A형 110,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5W/8W) @45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봉투 : 19×13cm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 7,000원/ 25,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중생 성불 전하려 우리곁에 오신 성철스님”


복원된 성철 스님의 생가와 겁외사 사이에 2001년에 조성한 스님의 동상(강대철 作)

① 겁외사(劫外寺)

한국불교 1600년 연보(年譜)속에서 최근에 주목받은 대목은 단연 ‘성철’일 것이다. 스님이 남긴 생각이 출재가를 가리지 않고 한국 현대불교사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깨달음’에 대한 스님의 믿음과 신념은 한국불교를 뜨겁게 데웠고, 그 열기는 한국불교를 지탱시키고 숨 쉬게 한 원동력이 됐다. 이런 큰 족적을 남긴 성철 스님이 적멸에 든 지 벌써 20년이 흘렀고. 올해는 탄생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이제 스님이 걸어간 발자취는 의심할 수 없는 길이 됐고, 스님을 잊지 못하는 이들은 스님의 향훈을 따라 순례를 시작했다. 2월 23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 수행도량 순례단(단장 엄상호)’이 바로 그 첫 시발점이다.

불교인재원과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지난 해부터 준비해 발족된 순례단은 3월 31일 스님의 생가인 경남 산청 겁외사에서 출범식을 겸한 ‘영원한 자유인 성철 큰스님 수행도량 순례법회’를 봉행하고 순례를 시작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중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이미 성불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며 “스님 말씀처럼 오늘 이 순례길이 부처를 찾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성불한 나 자신이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는 순례가 됐으면 합니다.”고 순례의 의미를 새겼다. 이어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법어를 독송하며 스님의 뜻을 받들 것을 서원했다. 법회 후 순례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500포대를 산청군에 보시했고, 참가비 중 1천원씩을 사찰에 시주했으며, 5천원씩은 인재양성기금으로 적립했다. 순례단은 산청 대원사와 합천 해인사 등 성철 스님 수행도량 24 곳을 매월 한차례씩 2014년 8월까지 찾을 예정이다. 순례단은 개인 또는 신도회, 사찰, 직장신도회 단위로 동참 가능하며 상시 모집한다. 1661-1108(불교인재원 순례단)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210번지. 스님은 1912년 음력 2월 19일 이곳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이곳에서 길을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스님은 20대 때 우연히 읽게 된 〈증도가〉라는 책으로 인해 발심하게 된다. 새로운 공부에 눈을 뜬 스님은 지리산 대원사로 들어가 〈서장〉을 읽게 되는데, 그 때 무(無)자 화두를 만나게 된다. 정진에 든 지 40일 만에 동정일여(動靜一如)를 체험한 스님은 1936년 봄에 가야산 해인사로 출가한다. 그렇게 책 두 권에 침몰한 한 젊은이는 천륜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놓고 불가(佛家)에 이름을 적는다. 어느 날, 스님의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길을 나선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지 못한다. 가져갔던 음식과 옷가지만 놓아둔 채 돌아서야 했다. 법회 후, 스님을 모셨던 원택 스님이 겁외사와 스님의 일화들을 소개했다.



300여명의 순례단 참가자가 첫 순례지인 겁외사를 찾아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순례자들이 스님의 생가를 꼼꼼이 둘러보고 있다.

복원한 스님의 생가를 외호하기 위해 세워진 겁외사의 이름은 세속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진리와 함께 하고 있는 절이라는 뜻으로, 스님이 말년에 부산에 머물던 거처의 이름인 ‘겁외사’에서 따왔다. 겁외사는 일반적인 가람 배치와는 다르다. 일주문이 따로 없고 누각을 통하여 도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법당인 대웅전과 대중이 정진하는 심검당, 요사채가 있고 마당 한 가운데는 성철 스님의 동상이 모셔져 있다. 어머니도 불러오지 못했던 아들 ‘성철.’ 그 아들은 그렇게 돌아와 있었다. 스님을 잊지 못하는 이들의 손에 이끌려 100년 전의 마당에 돌아와 있었다. 스님의 동상 뒤로 복원된 스님의 생가가 있다. 300여 명의 순례자들은 스님의 어린 시절과 출가전의 모습을 떠올리려는 듯 집안 이곳저곳을 꼼꼼히 걸었다.

“가르침 곱씹으며 자비행 실천하자”
300여 불자 서원…산청군에 쌀 보시
생가 복원 겁외사 ‘시공간 벗어난 진리 도량’

순례는 시작됐다. 다시 읽고 싶은 책처럼 스님이 걸어간 길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적멸에 든 선지식을 다시 불러내야 하는 걸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던 스님의 조용한 일갈을 우리는 순례를 시작하는 길목에서 다시 만난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명징한 소리를 ‘성철’이라는 이름 없이도 기억해 낼 수 있을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순례는 계속될 것이며, 또한 그 길에 나선 이들은 순례길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부처님의 자비행을 쌓을 것이다. 순례는 이미 시작됐다.

산청 겁외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복원된 성철 스님 생가(2001년, 3월 30일 준공). 겁외사는 생가 왼쪽에 대웅전과 오른쪽에 심검당, 요사채를 두고 있다.

■ 순례 일정표

회 차	년 도	일 자	사 찰 명
1	2012	3.31	산청 겁외사
2		4.28	산청 대원사
3		5.26	합천 해인사
4		6.23	부산 범어사
5		7.7	통도사 백련암
6		9.1	은해사 운부암
7		9.22	대구 동화사
8		10.13	순천 송광사
9		11.3	예산 수덕사
10	2013	3.30	서산 간월암
11		4.27	법주사 복천암
12		5.25	선산 도리사
13		6.15	문경 대승사
14		7.6	문경 봉암사
15		8.31	부산 묘관음사
16		9.28	고성 문수암
17		10.12	통영 안정사
18		11.8	창원 성주사
19	2014	3.29	용문사 백련암
20		4.26	파계사 성전암
21		5.24	부산 혜월정사
22		6.14	서울 도선사
23		7.5	문경 김용사
24		8.30	해인사 백련암



목경찬 지음 | 264면
15,000원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唯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 나름이란 뜻?

- 약인욕료지 若人欲了知
- 삼세일체불 三世一切佛
- 응관법계성 應觀法界性
-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一切唯心造]
오직 식뿐[萬法唯識] 임을 밝히는
유식불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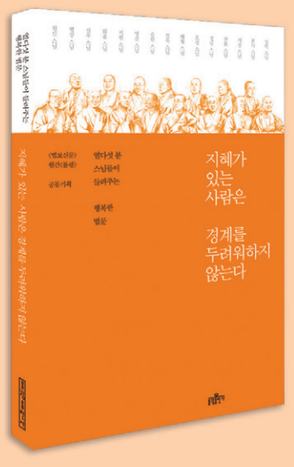
유식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한 세친의 『유식삼십송』에 대한 주석을 편집·정리한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이치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

목경찬
불광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각원사·능인선원·삼광사·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

2011~2012
원산 스님 영진 스님 정념 스님
평상 스님 승원 스님 진화 스님
설우 스님 진옥 스님 지장 스님
퇴휴 스님 해월 스님 본각 스님
지현 스님 호성 스님 상덕 스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가장 사랑받았고 감동적이었던
열다섯 분 스님들의 법문을 가려 엮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왜 내 이웃을 살피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지

열다섯 분 스님들이
들려주는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

원산 스님 외 14명 / 176쪽 / 11,000원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4)

도리천 다녀오시는 붓다상 보니…

현장법사가 순례한 불교성지 우다야기리와 랄리타기리

라트나기리를 답사한 일행은 버스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우다야기리로 서둘러 간다. 우다야기리는 비루파 강변에 자리한 고팔푸르에서 5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불교 유적지다. 우다야기리도 역시 부처님과 아쇼까왕이 다녀갔을 터이고 7세기 중엽에는 현장이 순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새 점심시간이다. 우다야기리는 오지인 데다 아직 참배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가게나 식당이 한 군데도 없다. 답사일행과 동행하고 있는 현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출발 전에 간편한 도시락이라도 준비한 게 다행이다. 현지인을 섭외한 도곡거사에게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데 우다야기리 입구 양편의 풀밭은 그늘이 없고 짐승들의 분비물이 널려 있어 일행이 편안하게 앉기에는 마땅찮다. 농가가 한두 채 보이지만 갑자기 들이닥쳐 빌릴 수도 없다. 도시락 음식냄새를 풍기는 것이 미안하지만 좀 더 유적지 쪽으로 올라가야 앉을 자리를 찾을 것 같다. 라트나기리가 언덕 하나를 중심으로 승가람이 조성되었다면 우다야기리는 여러 산봉우리 안의 오목렌즈 같은 분지에 형성된 유적지다. 마치 중국의 오대산 오대(五臺)를 연상케 할 정도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돈다. 절로 기도하고 싶어지는, 신앙심을 솟구치게 하는 천혜의 지형이다. 우다야는 '일출'이고, 기리는 '언덕'이란 뜻이니 일찍이 오래 전부터 수행자들이 찾아들었던 양명한 언덕인 셈이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마다 일광여래를 마주친다고나 할까. 십여 년 전에 한중인문학회 회원들과 답사했던 돈황의 막고굴들도 동향(東向)의 굴들로 일출의 햇살이 비쳐들 수 있도록 착굴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사면불 스투파로 유명한 승가람 터 우다야기리

점심공양 장소를 찾아 올라가는데, 보리수 뒤로 커다란 우물터가 하나 보인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우다야기리에서 가장 오래된 3세기 때 조성된 우물터이다. 우물은 벽돌 모양으로 깎은 돌을 수조(水曹)처럼 직사각형으로 격조 있게 쌓았는데, 연중 수량이 일정치 않은지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끔 계단을 조성하여 두레박 없이도 물을 편리하게 긷도록 만들어져 있다. 7평 정도의 우물 넓이로 보아 우다야기리에 살았던 대중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우물의 수량과 대중 숫자가 비례한다는 사실은 우리 절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물을 도리천의 영액(靈液)이라고까지 찬탄하여 감로수라고 부를 터이다.

우물 터 옆에는 초라한 힌두사원이 한 채 붙어 있는데 드러난 살림살이가 남루하다. 할 수 없이 일행은 유적지이지만 우물터 주변에 앉아 점심공양을 하기로 한다. 보리수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던 농부들 두어 명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숟가락 젓가락질을 흥미롭게 구경하더니 가버린다. 농부들의 인상이 순하고 무심하다.

이윽고 힌두 사두가 와 일행을 보고는 손을 흔든다. 인도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사과를 싸들고 가 보시하자 웃으며 받는다. 한국인들이 이곳에 왔느냐고 묻자 반갑게 대답한다.

"2년 전에 배낭을 멘 참배객이 왔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 오기는 처음이지요."

일본인 승려들은 더러 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힌두사원을 다 공개하겠으니 들어오란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난한 수행자이니까 보시하라고 한다. 보시를 요구하는 말투가 궁기를 풍기지 않고 진실하게 느껴진다. 나는 당신의 복전이 돼주겠다는 태도이다.

우다야기리는 현재 1구역과 2구역을 발굴 중인데, 앞으로도 발굴할 구역이 16군데나 더 된다고 설명한다. 우다야기리에 18군데의 승가람이 있었다고 하니 대단한 불교 유적지가 아닐 수 없다. 일행은 발굴이 어느 정도 완료된 1구역으로 먼저 가본다. 1구역 초입에 마하스투파가 있다. 스투파로 오르는 돌계단 양끝에 태극 문양처럼 판 것이 아름답고 더 특이한 것은 사면불(四面佛) 스투파이다. 10세기 때 완성한 스투파이지만 그 시초는 현장의 기록으로 보아 아쇼까 스투파가 아닐까 하고 짐작해본다. 현장은 자신이 다녀간 고팔푸르 일대에 아쇼까 스투파가 10여 기 정도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스투파 왼쪽 위에는 삼굴(三屈) 자세의 석조 보살상이 풀밭 노지에 서 있다. 삼굴이란 세 번 꺾었다는 말로써 목과 허리와 무릎을 꺾어 풍만한 신체를 돋보이게 한 간다라조각의 보살상 특징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에스라인을 강조한 자세라고나 할까.



각자 자전거를 타고 우다야기리로 견학나온 여학생들

스투파 뒤쪽 정면에는 석굴 법당이 있고 법당 문에 새겨진 조각이 선명하다. 특히 통통한 보살상의 머리에 코브라 다섯 마리가 보관처럼 조각돼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인도의 코브라는 동양의 용과 같이 영기(靈氣)를 상징할 터이다. 실제로 석굴 법당에 코브라가 산다고 현지인이 설명하지만 믿거나 말거나이다.

일행은 2구역으로 이동하여 1구역보다 큰 승가람 터를 보고 놀란다. 먼저 운주사에서 보았던 미완의 와불 형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삼굴 자세의 보살상이나 북처럼 생긴 타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상(樂士像)도 발굴현장에 누워 있다. 초입에 발굴한 승가람은 11세기에서 12세기의 유적이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지금도 발굴이 진행 중이고 한 승방은 원형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지위가 높은 수행자의 승방인 듯 좌선공간이 두 곳이며 흥미롭게도 비밀사물함이 하나 있다.

우다야기리를 답사하고 나오는 길에 여학생들과 마주친다. 자전거를 타고 온 여학생들인데 아마도 현장 학습을 나온 것 같다. 시골 여학생들이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보니 개방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사면불 스투파 아쇼까왕 조성 추측
우다야기리 승가람 18곳 중 2곳 발굴

기원전 중추적 불교도시 랄리타기리
불교유적 현재 10곳 발굴…풍광수려

기원전 2세기부터 불교 도시로 번영했던 랄리타기리

우다야기리에서 5km쯤 떨어진 다음 행선지 랄리타기리로 가는 동안 조그만 마을에서 벌이고 있는 힌두축제 현장과 마주친다.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행사용 트럭이나 승합차를 뒤따르고 있다. 일방통행에다 막무가내로 교통을 방해하지만 제지하는 경찰은 없다.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 같은 광란의 축제 모습이다.

랄리타기리의 불교 유적은 기원 전 2세기 슝가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트나기리나 우다야기리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셈이다. 검은 유약이 발라진 도자기 파편에 아쇼까왕 때 사용했던 브라미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나, 랄리타기리 스투파에서 부처님 유골이 담긴 사리함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된 것을 보아도 랄리타기리가 기원전부터 중추적인 불교 도시였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면불이 감실에 봉안된 우다야기리 제 1구역의 마하스투파. 왼쪽위에 삼굴 자세의 간다라 양식 석조 보살상이, 뒷쪽에 석굴법당이 있다.



아잔타석굴을 밖에서 재현한듯한 랄리타기리의 말굽형 사원터



대승불교를 꽃피웠던 우다야기리의 제 2구역 승가람터

기원후에도 랄리타기리는 6세기에서 11세기까지 번영했던 보마왕국의 수도였다고 하는데, 불교유적지는 현재 10군데 정도 발굴되었으나 앞으로 얼마나 더 발견될지 모를 만큼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고 한다.

일행은 랄리타기리까지 버스로 이동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차한다. 라트나기리와 지형이 흡사하다. 평지에 솟은 야트막한 산에 불교유적지들이 남아 있다. 언덕을 하나 올라서자 타원형의 절터가 나타난다. 안내인이 랄리타기리에서 가장 독특한 구조의 절터라고 설명한다. 말발굽 모양의 사원인데 중앙에는 법당, 양쪽에는 승방이 있는 구조이다. 마치 아잔타석굴을 밖에서 재현한 형태와 흡사하다.

조금 더 올라가니 조그만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의 불상들은 대부분 문수보살상이나 보살상들이다. 나는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한 뒤 상까시아로 일산을 쓰고 삼계보도를 내려오는 섬세한 조각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아마도 이 조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효성스런 부처님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다.

부처님 유골을 담은 사리함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된 스투파는 박물관 바로 뒤편 언덕 정상에 있다. 현지에서는 이 스투파를 아쇼까왕이 대동하고 다닌 장로의 사리함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부처님 사리함이라고 추정하니 조금은 헷갈린다. 그러나 사리함의 주인이 누구이든 내 추측이지만 이 스투파는 아쇼까왕이 조성하지 않았을까 싶다.

스투파까지 올라가 보니 랄리타기리 주변의 들녘이 한눈에 들어온다. 랄리타(Lalita)는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과연 풍광이 유순하고 목가적이다. 눈앞에 펼쳐진 풍광이 한 폭의 수묵화 같다. 일행은 석양이 지는 들녘을 향해 앉아 잠시 좌선삼매에 든다. 먼 숲에는 땅거미가 지고 추수가 끝난 빈 들녘에는 저녁연기 같은 푸른 이내가 감돈다. 그 이내 속으로 황새 떼가 점점이 날아가는데 광란의 힌두축제 노랫소리는 바람결에 간단없이 들려오고 있다.

문득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떠오른다. 사리불과 목련이 살았던 당시에도 왕사성에서는 바라문들이 주최한 산정제(山頂祭)가 밤을 새우며 계속되었고, 어린 사리불과 목련도 산정제에 참가했다가 광란의 춤과 노래를 보는 동안 '미친 듯 춤추는 저 사람들이 백년 뒤에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무상감을 절감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했던 것이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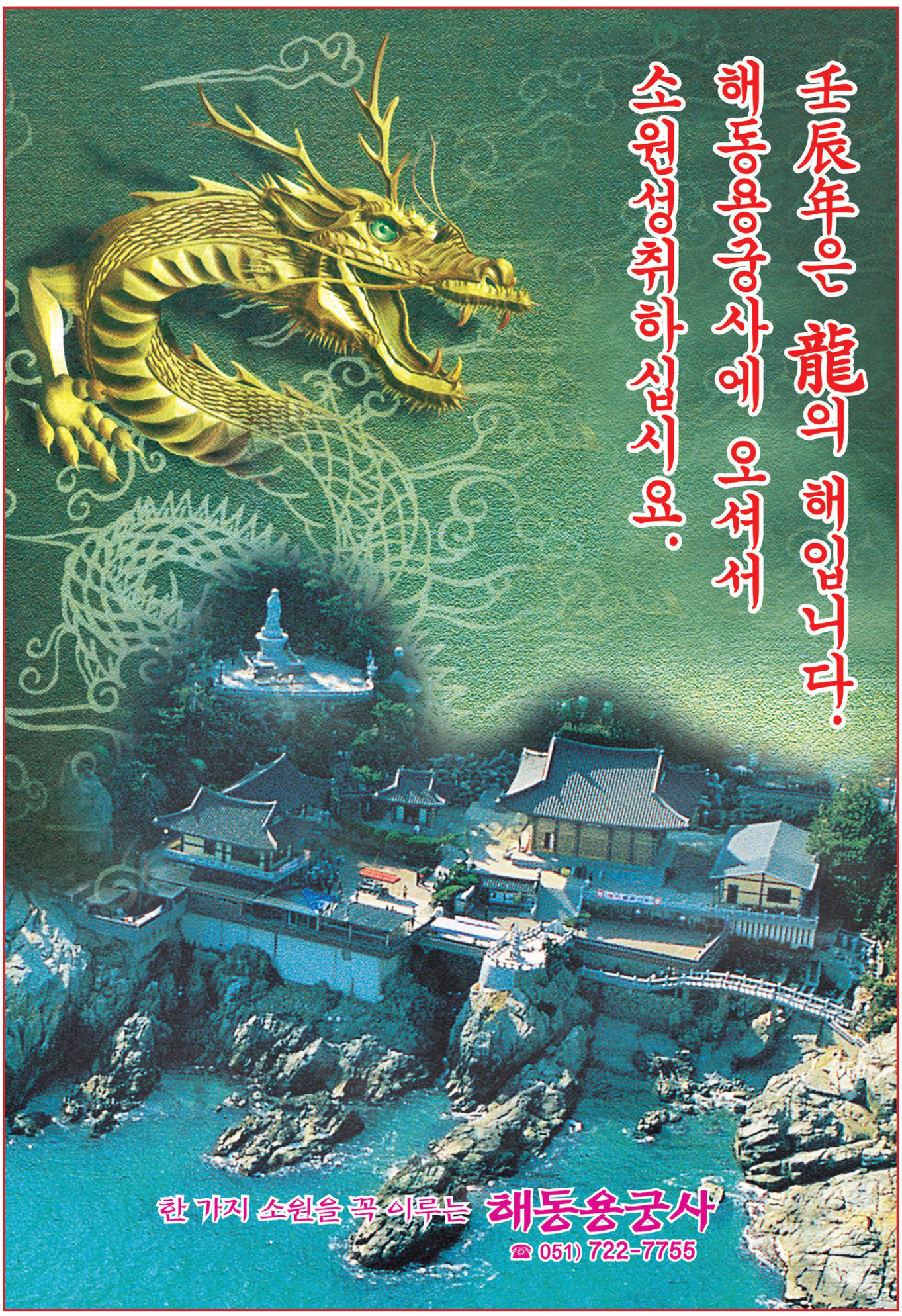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③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방산석경 자료 구입 세상 다 얻은 기분



중국 인쇄박물관 내 전시된 모형 가운데 활자판에서 조판하는 모습. 원형의 활자틀에서 일일이 글자를 찾아내 틀에 끼워 넣었다.



보국사 고문화 거리

북경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학술답사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니 호텔 밖에서 석탄 냄새가 난다. 중국 호텔에서도 난방으로 석탄을 때는 것은 아닌지 중국도 경제 사정이 안 좋기는 매 한가지인 모양이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인 보국사 고문화거리를 향했다.

중국 북경에는 고미술품 수집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주로 수집가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판자웬 국제 고물시장과 북경 고완성(백화점 형태의 고미술상가), 홍차우 시장 고미술품 코너, 양마 고미술품 시장, 조예 고미술품 시장과 보국사 고문화거리, 유리창거리와 전국각지에서 토 · 일요일 열리는 판자웬 고물시장을 겨냥하고 오는 상인들이 모이는 여관도 있다. 이 여관은 자신 방에 수집품을 판자웬 난장보다 일찍 보여주면서 거래하는 곳이다.

또, 시 외곽에 창고형 고미술품 거리도 형성돼 있다. 보국사 고문화거리는 목요일 오전 6시에 상인들이 난전에서 자리를 펴는 것으로 시작되고 가게 주인들이 그 다음에 문을 열기 시작해서 7시 정도가 되면 시장이 무르익게 된다. 근대 중국 서적들을 비롯한 우표, 돈과 같은 종류의 물품들이 거래되는 고미술 시장이다. 보국사 대웅전이 전폐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으며, 보국사에는 중국 수장가 협회도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는 8000만명에 이르는 많은 수집가가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집만 하는 사람들을 수집가라 하지 않고 상인들도 수집가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학자 · 상인들이 격의 없이 친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고미술품 시장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자 · 상인 · 수집가들이 고미술품을 사랑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필자가 운영하는 고판화박물관이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몽골 등의 유물 3500여 점을 수집하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알찬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등지를 오가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다

인쇄박물관 벽에 '금강경' 동판 변상도 부착

보국사 대웅전은 전폐 박물관으로

국영 영보재, 수인판화 전통복원에 주력

학자 · 수집가 · 상인 상호존중 교류활발

니면서 수집하는 상인들의 도움 없이는 모을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권희 교수 · 박도화 · 정병모 교수 등 관련학자들의 고판화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고판화박물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집가, 상인, 학자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고미술품 수집은 보물찾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옛날 물건 속에서 빛나는 문화유산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보국사 문화거리에 아침 일찍 답사단 일행이 도착해 많은 옛날 물건 속에서 중국 고판화 유물을 건져내고자 흩어져서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전폐박물관으로 전용된 보국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골목골목마다 옛 물건 난장이 펼쳐져있다. 혹시나 자신들이 연구하는 데 필요한 보조자료인 책자나 고판화 관련 유물을 구해 보고자 뛰어다닌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있던 차에 옛날부터 안면 있던 상인들이 하는 가게구역으로 들어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자료의 행방을 묻고 가게 안을 매의 눈으로 살펴본다.

그 때 마침 어제 답사했던 운거사의 석경 영인본이 눈에 띄었다. 방산석경을 중국불교협회에서 전집물로 만들었지만 서적에서는 절판되어 찾을 길이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2년 전 중국불교협회가 있는 광제사를 방문했을 때 한 권을 증정 받은 적이 있어, 석경 영인본이 쉽게 눈에 띄었고 반갑기가 이를 데 없다. 방산석경 책을 들고 가격을 묻자, 중국 상인은 방산석경의 원고본이라고 세 뭉치 원고 뭉치를 더 보여주었다. 원고본은 책을 발행하기 전 교정본이며, 근대유물을 수집하는 품목 중에 굉장히 귀중한 유물 목록에 들어간다. 석경에 탁본을 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만들어서 줄여서 청사진으로 만들어진 교정본이다.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편찬 위원들의 글씨가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쓰여 있다. 한마디로 보물찾기를 한 기분이다. 상인에게는 내색하지 않은 상태로 가격 흥정에 들어간다. 흔히 고미술품 거래를 진검 승부라고도 한다. 포커를 할 때 포커페이스와 같이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의 흥정을 마치고 유물이 손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수집가들은 더욱 보물찾기에 매료하게 된다. 방산석경 원고본은 이제 고판화박물관의 주요한 소장품에 속하게 되고, 석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 이번 학술답사의 중요한 성과로 남을 것 같다.

중국 인쇄 박물관

보국사 고문화 거리를 출발하여 시내 외곽으로 차를 달려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한 곳이 중국인쇄학원 내 중국 인쇄박물관이다. 중국인쇄박물관은 중국이 자랑하는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인쇄 발전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인쇄박물관 벽면에는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판화라고 하는 당나라 함통 9년(868)에 제작된 〈금강경반야바라밀경〉 변상도가 동판으로 만들어져 부착돼 있다. 이 〈금강경〉은 둔황 석굴에서 발견되어 영국 대영 도서관에 소장돼있다.

정문을 열고 들어가자 관장이하 많은 직원들이 고판화학회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에까지 나와 있어 인쇄박물관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아시아 최초로 열린 세계박물관 총회로 인해 다른 나라의 박물관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점을 실감한 적이 있다. 이번 인쇄박물관을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해 주었던 인쇄박물관 학예관은 지난 상해 세계박물관 총회에 관여했던 인물로 우리 일행을 살갑게 안내해 주었다. 환영행사를 마친 후 학예관의 전시해설을 통해 전시실을 안내 받았다.

중국 인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디오라마와 실물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전시 모형이 잘 준비된 박물관으로 인쇄학원 학생들이 박물관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전시돼 있다. 특히 근대 인쇄유물도 전시돼 있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쇄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전달됐고, 전달된 중국 인쇄문화가 업그레이드돼 다시 중국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문화는 돌고 돌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인쇄박물관에는 점토를 이용해 활자를 만들어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한 필승(畢昇; 990~1052)의 모습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유리창과 영보재

인쇄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조선 선비들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매불망 가고 싶어 했던 유리창 거리를 방문했다. 청나라 수도 북경에 연행사절이나 외교사절로 온 선비들은 업무를 마치고, 당시 첨단 정보센타 역할을 한 유리창으로 달려갔다. 대표적인 선비들이 유득공 박지원 박제가 김정희 허균 등이다.

유리창에는 고판화 관련 중요한 기관이 있다. 중국 국영기관으로 수인판화 생산지로 유명한 영보재(榮寶齋)이다.

채색판화는 중국에서 명나라 말기 1627년 호정언에 의해 만들어진 십죽재화보로부터 시작했으나 이를 가장 발전시킨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우키요에라고 하여 서양의 고흐나 마네 모네 등 인상파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우키요에 앞서 자신들이 판화 종주국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수인판화 전통과 더불어 연화(年畵)의 전통 복원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곳 중에 하나가 영보재이며,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인판화를 특화하고 있어, 북경 여행자들의 주요한 관광코스 가운데 하나이다. 영보재는 현재 컬러 인쇄판이 4000여 종을 비롯한 수만판을 소장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후 전통 예술을 계승 · 발전시키고자 영보재는 목판 수인(木板 水印: 물안료를 이용한 중국 전통인쇄법)를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곽말약, 서비홍 등의 관심과 지원 아래 숙달된 장인을 모아 몇 년 동안 노력하여 목판 수인 기술을 신속히 발전시켜 고금 명화 200여 종을 인출했다.

1960년대 이후 목판 수인은 대형화되고 정밀하게 발전했다. 대형화로는 정판교의 난죽도, 서비홍의 군마도가 있다. 정밀한 것으로는 오대 고굉중의 한희재야연도 등이 있다. 한희재야연도는 각판 1667개를 가지고 6000여 차례 인쇄해 전 후 8년 동안 고된 작업 끝에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친절한 안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중국이 자랑하는 수인판화의 전과정을 자세히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채색판화는 처음에는 부채본(敷彩本)이라고 해 검은색으로 그림의 윤곽을 인쇄한 후 다시 손으로 색을 칠하는 방법이다.

수대 대업(大業) 3년(607)에 만든 불화가 부채본 작품이다. 돈황에서 출토된 오대 시기의 불화 판화에도 부채본 방법으로 만든 작품이 있다.

다음으로 투인본(套印本)으로 북송시기 지폐인쇄가 칼라인쇄 기술의 창시적 역할을 했다.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투인본은 원대 지정원년(1341)에 중흥로 자복사에서 각인한 '금강경주'이다.

이 책은 경절장으로 붉은 색과 검은 색 두 가지 색으로 컬러 인쇄했다. 현존하는 최초의 2색 컬러본 서적이다. 컬러 인쇄의 점정을 이룬 것이 또우판(수인판의 일종) 인쇄본으로 목판 채색 인쇄로 '목판 수인'이라고도 한다. 기본 인쇄판 위에 다양한 목판으로 색깔을 인쇄하는 방법이다. 가장 유명한 인쇄본은 명대 호정언 의 십죽재 화보와 십죽재 전보이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 · 박도화 · 배남경 · 정찬민

어려서 벗은 몸이나 커서 벗은 몸이나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㉓ 모친 위한 해탈 법문

하루는 천장사에서 경허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법문을 한다고 대중을 불러 모았다.

"우리 어머니를 모셔 오도록 하라."

시자는 스님의 뜻을 연만한 할머니께 전하며, 큰스님으로 존경받는 아드님의 법회에 가시기를 청했다. 모친 되시는 할머니 또한 희색이 만연해 옷을 갈아 있고 대중이 모인 큰 방에 들어가 향을 피우며 정성을 다해 경의를 표하고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는 "우리 경허가 나를 위해 법문을 설한다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하며 특별 법문을 청했다.

세상풍속도 마음따라 달라
어려서 예쁜 것 커서 싫다니
경허 스님 어머니 노기는
특별 법문에 대한 상놀음

그 때 스님은 잠자코 앉아 있다가 어찌된 셈인지 어머니를 맞이해 부시럭부시럭 옷을 벗는 것이 아닌가. 스님은 완전히 벌거벗은 알몸이 되자,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하고 그대로의 나신(裸身)을 보였다. 그 어머니는 무슨 심오한 설법을 자기를 위해 해줄 줄로만 알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가 해괴한 모습을 보고는 크게 노했다.

"대체 무슨 법문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별 발칙한 짓도 다하는구나!"

할머니는 법석을 박차고 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에 스님은,

"저래 가지고 어찌 남의 어머니 노릇을 한단 말인가. 내가 아주 어려서는 이 몸을 벌거벗겨 씻기며 안고 빨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실까. 세상 풍속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군"하고 짐짓 쓴 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스님의 모친은 노발대발해

"그래, 나를 위해 법을 설한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짓이란 말이냐?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하고 탄식하며 좀처럼 노기를 풀지 않았다. 대중이 전부 몰려가서 아뢰었다.

"할머니, 그게 바로 스님의 큰 법문이랍니다. 특별 설법이었어요. 그러니, 어서 노여움을 푸십시요"하고 거듭 빌어야 했다.

㉔ 벌 드나드는 콧구멍

하루는 경허 스님이 큰 방에서 정진하고 계시는데 만공 스님이 스님에게 넌지시 물었다.

"스님, 저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경허 스님이 물었다. "왜 그런가?"

경허 스님이 되물은 즉 만공 스님이 대답했다.

"벌들이 저의 콧구멍 속으로 드나드느라고 그러합니다."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을 나무랬다.

"이 사람아, 벌이 드나드는 콧구멍은 간지럽지를 않아."

만공 스님은 한 마디 자기의 견처를 과시해 보려고 했으나, 조작된 망상임을 뉘우쳤다. 스님은 경허 스님의 자연스러운 지적에 깊이 깨우쳤다.

㉕ 무하향의 경지

경허 스님이 만년 10년 가까이나 떠돌며 보내던 열반지는 북녘 땅 끝 함경도 갑산·강계 지방 일대였다.

회갑 노년기의 스님이 강계 땅 장뚜루벌을 지나던 때는 1905년 무렵 어느 날 이었다.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의 시골 선비 담여 김탁은 경허 스님보다 3살 아래인 54세였다. 지방유지였던 김탁은 마침 고향 마을에서 10여 리 거리에 있는 장뚜루벌에 와 있었다.

어찌된 셈인지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속인이라 보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라 보기도 어려운 한 초로의 늙은이를 에워싸고 몰매를 갈기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이런 놈의 영감은 죽여도 그만이야! 나쁜 영감태기 같으니라구."

청년들의 모습은 살기가 등등했다.

김탁은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무슨 일인

만공 스님 망상에 따끔한 지적

유생 행세하던 경허 스님
대자유인으로 유유자적
고향·타향·차안·피안 구분없네

가 싶어 거리로 나와봤다. 이유인즉슨 아낙네를 희롱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펄펄 뛰는 것이었다. 김탁은 청년들의 분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의 무지막지한 폭행부터 뜯어말렸다. 김탁 덕분에 경허 스님은 청년들로부터 봉변을 그칠 수 있었다.

이 때였다. 스님이 김탁에게 도리어 목청을 돋구는 것 아닌가.

"미친 놈이,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길이나 갈 것이지, 괘씸하구나! 네 이놈,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너는 남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찌 삿싸움이나 하며 쓸데 없는 참견을 하러 드는고?"



그림 · 박구원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욕설 섞인 호령부터 하는 경허 스님을 보고 김탁은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면서도 김탁은 안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달래며, 스님의 얼굴과 행색을 다시금 눈여겨 보았다.

범상치 않은 풍채를 지닌 스님은 드물게 보는 괴이한 걸물이었다. 순간 김탁은 스님의 비범함에 끌렸다.

"이거 어른을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희 집 누처로 가시겠습니까?"하며 스님에게 동행을 청했다.

화가 누그러진 스님은 김탁의 뒤를 따랐다.

길을 걸으며 경허 스님과 김탁은 법담을 나눴다. 집에 돌아와서도 밤 새는 줄 모르고, 그 날 밤을 밝히며 스님의 일거일동(一擧一動)에 도취해 버린 담여 김탁은 유생 박난주로 행세하는 경허 스님을 깎듯이 받들어 모셨다.

경허 스님은 그 집에 머물며 정성들여 옷 시중을 하는 김탁의 부인 박씨를 계수처럼 부르며 한 집안 식구로 지냈다.

어느 날, 스님은 박씨에게 "계수님은 여기 강계에서만 살 분이 아니고, 장차 충청도 수덕사 혹은 천장암 근처로 가서 살 것 같소이다"하는 예언도 했다.

김탁의 집에서 스님은 줄곧 유생 박난주로 행세하며 마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도 경허 스님은 그 일대 도처에서 거침 없는 시흥(詩興)을 돋구면서 대자유인으로 유유 자적하는 나날을 보냈다.

경허 스님이 이 때 읊은 시가 여러 수 전한다. 이 가운데에는 김탁과 술자리에서 읊은 시는 7언 율시로 돈의 이상향이라 할 '무하향(無何鄕)' 의 경지가 도도하다. 고향이니 타향이니 하는 구분은 물론 구태여 차안(此岸)이다 피안(彼岸)이다 하는 구분도 없는 선객의 가풍 또한 여실하다.

구성=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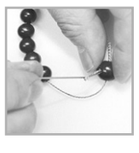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갸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도심 절 어린이 놀이터 있는 공원이어야”

길상사 자문위원 김종서 박사

“길상사가 생기기 전에 법정 스님이 친분도 없던 내게 ‘도시에서 사찰’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사 충정로 사옥 강당에서 오륙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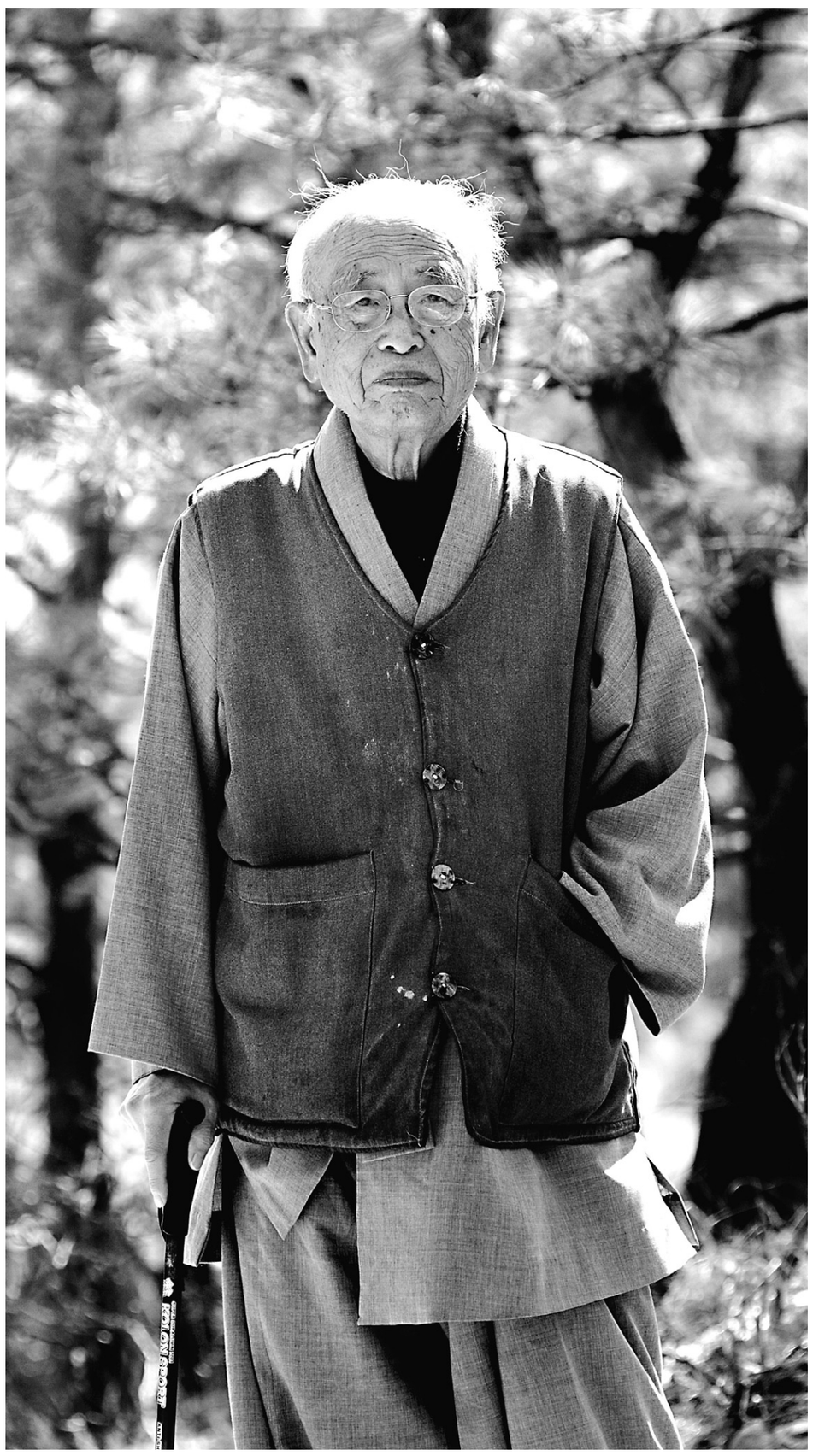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길상사 자문위원 원성圓成 김종서 박사(89) 첫 마디였다. 길상사를 열기에 앞서 ‘도심 절 살림이 어찌해야하는지?’를 고민했던 법정 스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다.

서울대학교 불교학생 지도교수였던 김종서 박사는 불자학생들과 송광사 수련대회를 갔을 때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 법정 스님한테 처음 얘기를 들었지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겠고,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땅을 떠나 일어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음이 미하여 가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은 중생이요, 한마음을 깨달아 가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이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말미암았으니,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보조 지눌 스님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머리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스님들은 수행에 전념하고 절살림 재가불자에게 맡겨라 누구나 부담없이 올 수 있게 가난한 절 만들라” 법정 스님 뜻

도심에 있는 절은 어때야 할까? “내가 늘 하는 주장이 있어요. ‘모든 사찰이 불자든 아니든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쉴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젊은 보살들이 애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지금 절에 오는 신도들도 대개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 손 붙들고 절에 오간 추억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찰이 없어요. 절이 공원이 되어야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고, 놀이터가 있어야 어린이들이 부모한테 절에 가자고 조르게 되지요.”

1997년, 맑고 향기롭게 이사였던 출판사 ‘동쪽나라’ 김형균 대표가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종서 박사에게 전화를 했다. 법정 스님이 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을 구하는데 되도록 절밥을 덜 먹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 박사님께서 길상사 자문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길상사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한정식 집에서 법정 스님한테 여러 번 식사대접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법정 스님 옆에 내가 앉았는데 고기를 다 나한테 주셨어요. 철저하게 계를 지키는 분입니다. 나는 법정 스님 책을 읽고 문필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님들 가운데 그렇게 글 잘 쓰는 분이 없어요. 사람 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법정 스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정 스님은 불교를 널리 펴는데 가장 으뜸가는 분이세요. 포교에서 법정 스님을 따라가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법정 스님 같이 계를 철저히 지키는 스님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해요. 스님들이 계를 잘 지켜서 소문이 널리 퍼지면 불교 격이 높아지고 융성해지지 않겠어요.”



법정 스님은 1997년 당시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던 김종서 박사에게 길상사 자문위원을 맡겼다. 김박사는 98년 길상선원에 입방해서 지금까지 거르지 않고 참선을 하고 있다.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불교가 융성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도덕성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기독교나 천주교도 불교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스님들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얽매이는 데가 없어서 도덕성 높은 생활을 하기가 가장 좋다고 봐야지요. 천주교 신부들도 가정이 없지만,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목사나 신부를 성직자라고 하거든요. 성직은 직업이란 말인데 스님이 직업인이냐? 아닙니다. 스님들은 수도를 하는 수행자이지요. 그렇기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균형 잡힌 시각을 지켜가며 수도를 하고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에 개혁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짚는다. “스님들이 신도 속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은 왜 공양을 따로 합니까? 신도들과 같이 해야지. 그리고 법당에 스님들이 드나드는 문이 왜 따로 있습니까? 스님과 속인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무엇보다 법정 스님은 신도 곁으로 다가오는 문을 활짝 연 분이십니다. 그 분만큼 포교를 열심히 한 분이 없어요. 불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스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길상사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빗장열고 팔을 벌리고 사람 속으로 뛰어든 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훌륭한 일이에요. 여기서 하루도 주무시지 않았는데 그 점도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음악도 사찰 냄새, 불교 냄새가 나지 않는 음악을 골라 틀라는 말씀을 하셨던 법정 스님이 길상사에 머무셨더라면 이곳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서울시내에 이만한 곳이 드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법정 스님, 포교에 으뜸가는 분 도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를 잘 지키는 스님들 계속 나와야 불교 격이 높아지고 융성한다

길상사를 열 때 법정 스님은 스님들은 수행에 전념하고 재가불자들이 절 살림을 책임지라고 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이 돈을 만지지 않고, 돈이 생기면 남에게 그냥 주고,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도 하지 않았던 분이니까. 처음에 스님들이 돈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일체. 그런데 스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이라면 우습지만, 재가자들에게 살림을 맡기면 잘못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면서 스님들이 살림을 맡았어요. 그리고 법정 스님은 절이니까 하는 수 없이 재(齋)를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재가 중심이 되어있어요. 또 가난한 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왔으면 좋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나 봐요.”

김종서 박사는 길상사가 1997년 12월 14일에 문을 연 이듬해 봄 1998년 3월 1일 길상선원에 입방해서 이제까지 거르지 않고 꾸준히 참선을 하고 있다. “98년 2월 28일까지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끝나자마자 삼월 초하룻날 이리 들어왔지요. 그즈음 어떤 대학에서 이사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 가면 참선을 못하잖아요. 법정 스님이 길상사에 오시면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에 가시느라고 이 선원 앞을 수없이 오르내리셨는데도 선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스님도 참선을 많이 하셨다는데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았으련만. 허허.” 아마 참선을 하는 분들에게 행여 방해가 될세라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선원 앞을 지나가셨으리라.

8.15 광복을 맞았을 때 대학생이던 김종서. 광복을 맞은 기쁨도 잠시, 날이 갈수록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광복된 지 보름이 지난 9월 초하루 오대산 상원사로 방한암 스님을 찾았다. 한암 스님은 나라가 해방이 되어 젊은이들이 할 일이 많은데 어째서 산에 들어왔느냐며 당장 내려가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그 말씀에 더욱 매료되어 간곡하게 가르침을 구하는 청년 김종서를 내치지 않았다. “한암 스님이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원성이라고, 둥글 원(圓)자 이룰 성(成)자. 계송도 함께 써주셨는데 6.25 때 없어지고 말았어요. 한암 스님은 스님들이 오면 평소 차림 그대로 맞았지만, 신도들이 오는 눈치가 보이면 바로 장삼을 입으시고 신도에게 먼저 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인은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이 말씀 끝에 2003년 길상사 법정 스님 법회가 떠올랐다. 청법가가 끝나고 법상으로 오르셔야 할, 스님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로 그냥 서 계셨다. ‘못 들으셨나?’ 잠시 시간이 흘러도 스님은 요지부동. ‘왜 그러시나?’ 어리둥절해하던 사회자는 바로 앞선 법회에서 절을 받는 일이 부끄럽다하신 스님 말씀을 떠올리곤 대중을 앉히고 입정에 들게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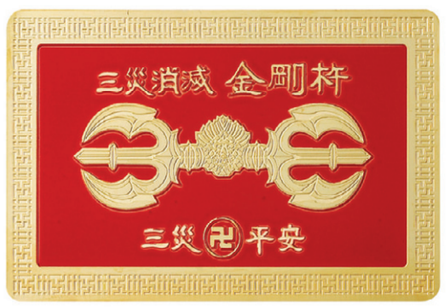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뭘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몇해전까지 길상사에서 '가정에서 자녀교육' 이란 주제로 강의하던 김종서 박사.

했다. 죽비 삼성으로 입정을 마치자 스님은 그제야 법상에 오르셨다. 스님은 절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대중들은 스님께 절을 올려야 하는 상황. 사회자 등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어쩐다?' 궁리 끝에 사회자는 자리가 비좁아 앉은 자리에서 합장 반배로 삼배를 올리겠다고 옹색하게 말했다. 스님도 선 자리에서 합장 반배로 삼배를 했다. 맞절. 그 뒤로 맞절을 하는 법회가 이어졌다.

김종서 박사가 불교를 처음 만나기는 해방을 맞은 해였지만, 참선은 이화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학교를 옮긴 1965년부터 시작했다. "아침마다 한 시간씩 참선을 했어요. 그러다 길상선원에 들어온 뒤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참선을 하지요. 오래도록 참선을 해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다리 아픈 건 좀 덜해요. 달라진 것이라면 얘기를 하면 한 시간 길이가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데 참선만 하면 금세야 금세! 참선은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쁠수록 참선을 해야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참선을 하면 바로 풀어져요. 마음을 비우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오랜 세월 이른 아침에 한 시간 반을 걷고 참선을 하는 김종서 박사 미수米壽를 넘긴 어른답지 않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다.

'학교교육만이 교육이라고 여기는데서 벗어나야 한다.' 는 김종서 박사는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이들이 제 스스로 크지, 부모가 키울 수는 없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크는 걸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나도 애들이 넷이 있는데 걔들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크는 것을 도왔을 따름이지. 내가 애들보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애들을 교육한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생긴 그대로 크는 겁니다. 걔네들이 뭘 붙잡으려고

애들이 넷이 있는데 교육하지 않았다
여름이면 애들을 발가벗겨서 키웠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 노랑머리로 염색
머리에 물 들이고 말고는 문제가 아냐

애를 쓰는데도 붙잡지 못하면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집안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게 해야 해요. 어린애들이 부숴 봤자 얼마나 부수겠어요. 귀중한 물건은 애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고 애들을 풀어놔야 해요.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마구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풀에 시들해져서 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하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에 드는 짓을 하면 도와주고 칭찬해주며 부추겨줬어요. 저희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자녀들 생각은 어떨까? "야단 한 마디 친 일이 없는데도 걔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풀어놓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꽁꽁 묶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차라리 잘못했다고 야단이라도 치면 반발이라도 할 텐데, 말없는 압력이 더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당신을 자연주의자라고 일컫는 김종서 박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발가벗겨서 키웠다. "옛날에 시골 사범학교 선생을 했는데 우리 애들을 여름만 되면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고 발가벗겨서 키웠어요. 첫째가 딸아이인데 발가벗겨서 키웠더니 동네사람들이 욕을 해요. 욕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김종서 박사는 '조물주 손을 떠날 때는 만물이 모두 선하였으나 사람 손에 들어오자 만물이 타락한다.' 는 루소 교육서 〈에밀〉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들 본바탕은 본디 착하고 훌륭한데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나빠진다고 말씀한다. "난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을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보냅니까?" 풀어놓음 때문일까? 동국대학 불교학과 교수로 있는 둘째 아들 김성철 님은 치과의사를 15년이나 하다가 평생 다른 사람 이빨만 들여다보고 살겠느냐며 의사 길을 접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동국대학원에 가서 석·박사를 마치고 불교학과 교수가 되는 새 길을 열었다.

김성철 교수를 비롯한 네 남매가 모두 대학교수인데, 자연주의 교육 힘도 크겠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김종서 박사는 '유전자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환경과 유전 가운데 환경이 더 중요하다' 고 말씀한다. 그 말씀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있다.

23대째 범죄자를 만들어 낸 집안에 일란성쌍둥이가 태어났다. 그 가운데 한 명만 좋은 집안에 양자로 입양됐다. 범죄자 집안에서 계속 자란 아이는 범죄자가 되었지만, 양지로 입양된 아이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다. - 〈생각, 엮고 허물고 뒤집어라〉에서.

손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손자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을 제대로 교육을 했을 것 같으면 손자교육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한 번은 손자 녀석이 대학에 가는데 하실 말씀이 없느냐고 묻기에 뭐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머리에 물을 노랗게 들이고 왔어요. 물들이고 들이지 않고는 문제가 아니다. 머리 물들인 일을 잘했다고도, 잘못했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생각대로 했으니 그럴수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해야 한다고 했어요. '뭘 잘하면 됩니까?' 묻기에 난 얘기 하지 않겠다.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 봐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랬어요." 겉모습보다 자기 성찰을 해서 자아실현을 이루는 일이 참 삶이란 말씀이다.

몇 해 전까지 길상사 불교기초교리강좌에서 '가정에서 자녀교육' 이란 제목으로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던 김종서 박사, 〈금강경오가해〉에서 야부스님이 읊은 노래에 나오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린이는 어린이요, 어른은 어른이다' 로 풀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키우지 않고 어른처럼 만들려는 어른들 잘못을 짚는다. 자연 흐름에 맡겨 잘된 일은 부추기고 잘못된 일은 내버려두면, 제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간다는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착하게 살라' 는 말씀 못지않게. 김종서 박사 가르침은 여시아문에서 나온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에서 만날 수 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가방을 메던 날


동국대 명예교수

지난 주에는 가방을 샀다. 어릴 적에 메던 모양의 가방은 아니지만 그저 기분이 좋았다. 세련미가 더 하다던가 색이 현란해서는 더욱 아니다. 그저 편하고자 산 가방이니까. 여태껏은 한 손에 수대(手袋)를 들고 다니니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번갈아 든다 하여도 몸의 균형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수대를 든 손을 해방시키고 싶은 뜻도 한 켠에는 담겨 있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방은 여유를 누릴 것 같다. 수업내용에 따라 가방의 무게가 달라 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가는 누군가를 따라 잡기 위해 뛸 필요도 없다. 오직 문고판 책 한 두 권 쯤 넣으면 족하다. 더 호사를 부린다면 순간의 생각을 담아두기 위한 메모지 정도면 그만이다. 하기야 혹사하는 날도 더러는 있을 법하다. 서점에 들르는 날이다. 그런 날이면 가방의 쓰임새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책의 무게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거푸 그런 날이 지속되면 풀 먹인 두루마기의 양 어깨에 골이 잡힌다. 그래도 좋다. 원하던 책을 얻었다는 기쁨이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무엇을 담는다는 것이 어찌 가방 만이랴. 주머니도 있지 않은가. 주머니의 수를 헤아려 보자면 한 두 개가 아니다. 그 만큼 일상생활에 지녀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비단 쓰임새가 많아서 만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많아 감당해야 하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부자도 되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상대도 얻고 싶어 한다.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보다 좋은 아들이 되어 주기만 바라는 마음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바람은 끝없이 질주하고 있다. 참 힘든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는 사연을 들어보면 벼라 별 일이 많다. 이러한 일들이 소원 성취가 되도록 정성스레 일주향(一柱香)을 올리고 간절히 기원한다. 아니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도 기원한다. 소멸보다 얻고자 기원하는 내용이 월등이 많다. 이리하여 성전은 항상 중생의 바램으로 가득 가득 넘쳐난다.

붓다가 인생은 고(苦)라고 강조한 연유가 있다.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얻으려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은 멀어지는 것이다.

어느 호젓한 산길에 피었다 사라지는 이름 모를 꽃에서 크나큰 배움을 얻게 된다. 그 꽃에게는 고통이 없다. 뭐 하나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웃과 다툼도 없다. 오직 내 모습대로만 살고자 할 뿐이다. 우리는 내가 없다고 하는 무아사상(無我思想)은 교리로만 배워 알고 몸으로 몸소 체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에 매이지 않으면 인생은 고가 아니다. 해탈하고자 한다면 육체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해방이 으뜸이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육체적 해탈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나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정신적 해탈을 얻는 것이다. 누군가가 억지로 안겨주지도 않은 헝클어진 실타래를 지고 낑낑거리며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휘황찬란한 달밤이면 잠 못 이루고 도량을 서성거리는 습성이 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동반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림자다. 그림자마저 신경이 쓰여 어찌하면 떨어져나가게 할까 궁리하기도 한다. 생각을 몰아가도 별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아하, 이것이다. 앉는 것이다. 앉으면 형상은 축소되기 마련이고 거기다 누우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생각이 주는 기쁨 보다 실천에서 얻는 기쁨은 무엇과 비교 할 수 없는 것 들이다.

'무엇되겠다' 는 바람 지나쳐
끝없이 얻으려는 것이 苦의 근원
매이지 않는 자유가 곧 해탈

놓는 기쁨은 이래서 좋은가 보다. 놓으면 금새라도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어디 그렇던가. 놓는 것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놓는 것은 건전한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다. 안온이요 상쾌한 산들바람이다.

인왕산은 나의 보물창고다. 등산을 하여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성소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형이상학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기에 무진장이 된다.

가방을 메던 날의 기억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한 손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다. 앞으로는 차차 가방의 흑사도 줄이려고 한다. 매미 허물과 같이 가볍게 살면 갈등이나 번뇌가 깃들 곳이 없으리라.

어떤 이는 호사를 부린다. 생전에는 부귀하고 사후에는 문장이라고 …. 생전에 부귀하지 않아도 헐떡거림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 사후에 문장이 방향(芳香)을 잃었다 한들 애잔할 일도 아니다. 글에 생명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굴려도 죽지 않고 잘 사는 식물 – 호생지물(好生之物)일 테니까.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출발 확정 상품

■ 미얀마 성지순례 : 6일, 7일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 7일
6월 1일 , 6월 9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6월23일 요금문의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해외 파견 견습생 2명
◆ 국내 연수 견습생 2명
◇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종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 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문의 : 02)365-7747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왕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이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마음 챙김 통해 비즈니스 배운다

최고 경영자 마음 다스리고 집중력 키우는 교육 과정 수강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피터 F. 드리커 · 마사토시 이토 대학원(Peter F. Drucker and Masatoshi Ito Graduate School),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 등에서 개설한 최고경영자 과정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 불교의 '마음 챙김(mindfulness)'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기술'을 찾아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asia.wsj.com, 아시아판)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이 주로 등록하는 명문 비즈니스 스쿨에서 불교의 마음 챙김이 교육의 주제와 방법으로 적극 수용되고 있다"고 4월 3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에서 "MBA 및 최고경영자 과정을 맡고 있는 교수들은 피교육생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에 주목하고 있다"며 "교수들은 마음 챙김이야말로 최고경영자들이 느끼는 분기별 이익 보고서에 대한 엄청난 압력까지도 떨쳐내게 하는 비즈니스 기술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하고, "최근 몇 년 간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기업윤리로 인해 비난을 면치 못한 명문 비즈니스 스쿨이 새로운 교육 철학을 찾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벤 브란트(Ben Bryant) 교수는 최고경영자 과정의 피교육생에게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호흡에 집중하고, 소리와 감각에 깨어 있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가르치고 있다.

"너무 바쁘고 많은 짐을 지고 있어 자신은 물론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최고경영자들에게 단지 명상만을 강조해 비즈니스와 접목한다면 진저리 칠 것"이라는 벤 브란트 교수는 "(마음 챙김은) 바쁜 일상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것(마음 챙김)은 마치 최고경영자들에게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방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하버드大 비즈니스 스쿨 등
'마음 챙김'서 경영비법 구해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하고 있는 벤 브란트(Ben Bryant · 사진 맨 왼쪽) 교수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피터 F. 드리커 · 마사토시 이토 대학원(Peter F. Drucker and Masatoshi Ito Graduate School, 이하 DRUCKER)의 제레미 헌터(Jeremy Hunter) 박사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로 '마음 챙김'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그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집중력을 강화하는 최상의 방법"이고, "집중력은 사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까닭에 최고경영자의 교육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DRUCKER의 최고경영자 및 MBA 과정에서 '자영(自營, self-management)'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제레미 헌터 박사는 "자신을 경영한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 역시 잘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수업에 앞서 짧은 명상으로 피교육생의 감정을 다스린 후 강의를 시작하는 그는 또한 "DRUCKER 비즈니스 스쿨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굳이 '명상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지 않더라도 마음 챙김의 방법론과 그 유용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관람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의 리더십 교수 윌리엄 조지(William W. George)는 피교육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이끄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그는 최고경영자 과정의 수업에서 모든 피교육생에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유한다.

"경험을 토로하고 공유하게 하는 것은 자각(自覺)의 힘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윌리엄 조지 교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경영자 대부분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마음 챙김은 최고경영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조직(기업) 안에서 안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등의 모든 망상을 떨쳐내는 힘이 있다"며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명상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를 보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 라마, 템플턴상 수상

일명 '종교계 노벨상'…"비폭력 · 종교간 화해" 등에 기여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 · 76)가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Templeton Prize)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존 템플턴 재단(John Templeton Foundation)은 "보편적 윤리와 비폭력, 세계 종교 간 조화를 위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온" 공로로 2012년 템플턴상을 달라이 라마에게 수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단 측은 시상식이 오는 5월 14일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서 거행된다며 상금은 110만 파운드(약 20억원)라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의 템플턴 수상 발표는 중국의 탄압정책에 항의해 티베트인이 30번째로 분신을 감행한 가운데 나왔다. 티베트 불교 승려와 여승이 대부분인 분신기도자 중 최소한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달라이 라마가 템플턴 수상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대중에게 화답하는 모습

템플턴상은 과학과 종교 간 이해 증진을 위해 1972년 미국 태생 영국의 금융인이자 자선사업가인 존 마크 템플턴이 창설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장경 인쇄展

4월 22일 UCLA 파울러 박물관서

티베트 대장경의 제작 과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가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파울러(Fowler) 박물관에서 4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된다.

'설국의 진주 : 더게 파켕의 티베트 대장경 인쇄' 전시회에서는 티베트 불교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더게 파켕(Derge Parkhang)에서 3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 방식 그대로 제지 · 판각 · 인경 등 대장경 제작 전체 과정이 재현한다.

이와 함께 더게 파켕에서 제작된 30만여 장의 경판을 비롯해 도서, 그림, 판화 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경판 중에는 200여 년 전 삼에(Samye) 사원에서 경판을 만들었던 파드마삼바바(Guru Padmasambhava) 스님의 초상화와 티베트 불교사에서 가장 뛰어난 학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드로마(Guru Droma) 스님의 초상화 등도 처음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일 30만여 장의 경판을 정리하고 있는 판각 기술자들

오종욱 편집위원

사회주의 시각으로 선종해석

세계의 불교학자(13)

두계문 中 사회과학연구원 박사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두계문 박사는 〈중국불교와 중국문화〉라는 저술로 잘 알려져 있다. 21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책에는 두 박사가 20년간 매진해 온 불교연구 및 한국 일본 불교학계와의 교류 성과 등이 수록돼 있다.

두계문 박사는 불교사 연구에 있어 중국의 불교 문화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했는데 이는 그의 저서 〈중국선종통사〉 〈대승기신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적 · 역사적 입장에서 중국불교사를 기술한 그의 학문적 영역은 1994년 중국 고적도서 출판분야 2등상 획득이 말해주듯 확고한 위치에 있다.

〈중국선종통사〉는 중국 최초로 선종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두계문 박사는 이 저서를 통해 선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성격을 보여줬다. 두 박사는 선종의 선 관념과 선종조직 형식이 변천하는 과정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사회 ·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고찰해 기술했다. 두계문 박사는 단순한 전거와 사상적 원류, 철학적 이론, 사유의 방식, 학파들의 분기 · 결합 등 사실의 나열에 국한하지 않았다.

두 박사는 사상의 흐름 속에서 중국 선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형성된 성격 및 양상과 같은 제반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증명했다. 또한, 그 속에서 사회적 · 역사적으로 제약받았던 활동의 작용이나 역할들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두계문 박사의 넓고도 깊은 중국선종사에 대한 이해는 그의 연구성과물이 세계 불교학술계에서 주목받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두 박사는 중국 선종 전체의 활동상을 철학적 기초와 사유방식에 대입해 체계적으로 논술했다. 두계문 박사가 선종 속 신이(神異)를 학문적으로 고찰한 것은 그간 학술계에 만연했던 신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성과도 거뒀다.

〈중국선종통사〉를 통해 두계문 박사는 중국불교사 전반에 관해 현실적이면서도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다.

두 박사는 중국불교가 다민족문화의 사상이는데 착안해 연구를 전개했다. 두계문 박사는 중국불교를 중국민족의 출가자, 재가문인들, 소수민족 등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고 봤다.

동한시대 말기 이후에 서방의 여러 나라를 통해 중국으로 불교가 유입된 이후로 불교는 발전했다. 수당시대에 이르러 불교의 여러 종파가 형성됐다.

두계문 박사는 수당시대 형성된 종파의 창립자들이 중국민족이 아닌 출가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삼론종의 창시자는 파르티아인 길장(吉藏)이었다. 현장이 개창했던 유식법상학이 최종 형성됐던 것은 그의 제자인 선비족 규기(窺基)와 조선인 원측(圓測)에 의한 것이었다.

두 박사는 중국불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밀종과 선종의 개성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생각했다. 밀종과 선종은 선명한 개성을 갖고 당시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에 부응했다는 설명이다.

두계문 박사는 사회적 · 역사적 상황에서 봤을 때 외래불교가 도입된 것이 중국에서 승려 계층을 형성케 했다고 봤다. 두 박사의 이러한 견해에는 바로 승려계층이

불교사연구에 문화 · 사회 접목
선종사 연구 등 학문적 입지 확고
'중국불교와 중국문화' 등 저술로
중국고적도서 출판분야 2등 하기도

사회적 대항이나 반발에서 일종의 완충적인 역량을 구성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당대부터 남송시대에 이르는 선종의 발전사에서 그는 그러한 선종의 발전사에 깔려있는 사회적 토대는 바로 토지를 잃은 농민, 유랑민 및 좌절한 사대부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그는 선종 속에는 농민과 사대부들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두 교수의 연구성과는 사회적 · 역사적으로 선종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불교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두계문 교수는 1930년 중국 산동지방 청도 인근 노산에서 태어났다. 1958년 북경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61~1963년 남경대 불학연구반에서 학습했다. 당시 저명한 불교학자인 여징(呂徵)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이후 내몽고 대학 철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그는 북경대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주요 저서로는 1980년대 임계유가 주편한 〈종교사전〉 1권과 〈중국불교사〉 1~4권 저술에 참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원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사랑하는 마음만을 전달합니다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합반 :
(1) 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 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특 혜 :
(1) 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 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옻가네 お金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시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D제조업체등록, 공업규정등록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악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5월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족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아침에 화장실이 깔끔하게 볼일을 보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사라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족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피로도 확 풀려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 제품은 만나기 힘들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30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땀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읍니다.

하지 정맥에 있어 굵은 정맥이 튀어 나왔고 심핏줄이 수십개 여러 덩어리로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읍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丸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가네 お金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등공양하면 재물 · 지혜 얻으리

석등(石燈)에 깃든 법수(法數)


동화사의 석등

우리나라에는 백제시대 이후로 많은 석등들이 남아 있다. 근래에 만들어진 것들을 제(除)하면, 280여 기(基)의 조선 이전에 제작된 우수한 석등들이 남아있다고 한다. 대승불교가 유행(流行)한 동양 삼국 중에서 석등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일본 ·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석질(石質)이 우수한 화강암이 풍부하지는 않아서, 대개 나무나 금속으로 등을 만들어 사찰 경내에 설치한 반면에 한국에는 익산의 황등석과 같은 매우 품질이 뛰어난 돌들이 많아 수각(水閣) 석불(石佛) 주춧돌 돌계단을 비롯한 많은 석조작품들이 아직도 전국각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등들이 많이 남아있다. 석등이 유행하게 된 근거 중의 하나인 〈불설시등공덕

화강암 풍부한 한국에 석등 많아

팔각 석등은 팔정도 의미

경(佛說施燈功德經)〉은 중국 중북부의 섬서성(陝西省)의 성도(省都)인 서안(西安)에 위치한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번역됐다고 전한다.

흥선사는 진(晉)나라 무제(武帝) 연간(265~289년)에 건립돼 처음에는 준선사(遵善寺)라 불리웠다가 582년에 대흥선사로 개명했다. 수당(隨唐) 시대에는 중국제일 사찰로 역경원(譯經院)이 설치됐다. 그곳에서는 많은 인도승려들이 역승(譯僧)으로 살다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밀교(密教)의 시원지이고 진언종(眞言宗)의 중심지였다.

북인도의 오장국(烏萇國) 출신으로 556년에 북제(北齊)의 업도(鄴都)에 도착, 대흥선사에서 〈불설시등공덕경〉을 번역한 분은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 스님이다. 기록에 의하면, 589년 수(隨)나라 개황(開皇) 9년에 세수 100세를 일기로 입적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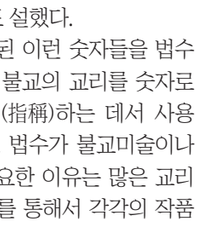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시등(施燈)의 공덕(功德)을 밝히는 많은 법문을 하시면서, 항상 숫자로 헤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탑과 사찰에 등명(燈明)을 보시하면, 사후(死後) 33천에 태어날 것이고, 그 곳에서 5가지 청정을 얻게 된다"고 설해져 있다. 또, "누구든 사탑에 등명을 보시하면, 4가지 법을 얻는다. 그 것은 하나, 색신(色身)이요, 둘째, 재산과 재물이요, 셋째, 큰 선행이요, 넷째 지혜이다" 라고도 설했다.

경전에서 언급된 이런 숫자들을 법수(法數)라고 한다. 불교의 교리를 숫자로 표현하거나 지칭(指稱)하는 데서 사용하는 숫자들이다. 법수가 불교미술이나 불교예술에서 중요한 이유는 많은 교리(教理)들을 숫자를 통해서 각각의 작품에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양양 낙산사(洛山寺)에서 사천왕각 아래의 수각을 디자인할 때에는 수각의 디자인을 상하로 구분한 후에 상천(上泉)의 기단을 팔각(八角)으로 하고, 상단을 사각(四角)으로 한 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석등(石燈)에서 하대석의 복련(覆蓮)의 연엽(蓮葉)이 8개이거나, 중대석인 간주(竿柱)나 화사석(火捨石)이 팔각(八角)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왜 수많은 수들 가운데서 8이라는 숫자를 강조했는가를 생각해야한다. 여기에서 불교교리에 근거해서 지어진 많은 불교미술품들에서 보여지는 법수(法數)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수를 통해 바라본 불교미술의 세계는 실로 아름답고, 심오한 불교의 진리들을 말없이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정(無情)의 표현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미술사학은 불교학의 깊은 이해와 신심(信心)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행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따스한 선율로 마음치유를"

유나방송 개국 5주년 기념 음악회
4월 22일 오후4시 성남아트센터서
서울신포니에타, 가민 등 무대올라


피리연주가 가민


서울신포니에타


가수 한영애

마음치유와 명상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 '유나방송'이 개국 5주년을 맞아 청취자와 시민들에게 음악회를 선사한다.

유나방송(대표 김재진)은 너(You)와 나(I)의 합성어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뜻의 불이(不二)를 상징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마음공부전문방송이다.

유나방송은 BBS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음악'의 진행자로 유명한 정목 스님이 이끄는 선다암과 정각사를 모태로 하고 있다.

유나방송은 마음의 안식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이 돼주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목 스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김재진 시인의 '가슴에 남는 음악' ▷장현갑 교수의 '마음을 훈련하면 뇌가 바뀐다' ▷일묵 스님의 '윤회와 행복한 죽음' ▷혜민 스님의 '희망의 트윗, 혜민 스님'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방송을 운영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34개국 4만5000여 회원이 종교의 벽을 넘어 유나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정목 스님은 "유나방송은 그간 수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위안의 기쁨을 안겨드렸다. 우린 이미 작은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마음의 에너지를 곳곳에 펴며 제약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됐다"며 "다섯 번째의 생일을 자축하는 음악회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나방송은 4월 22일 오후 4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차이콥스키의 왈츠곡으로 서막을 연다. 이어 피리연주가 가민이 태평소와 생황, 피리로 '머나먼 곳의 바람' '가락' '리베르 탱고'를 연주한다. 가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을 부수석을 역임한 재원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모인 실내악단 '서울신포니에타'의 협연도 선보인다. 서울신포니에타(단장 김영준)는 2007년 한국음악 비평가협회로부터 한국음악대상을 수상한 단체로 국내 음악계의 선도와 발전을 위해 매년 10여 회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음악회,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연주회 등 사회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서울신포니에타는 유나방송 개국을 축하하는 '세상에 꽃이 필때'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러 유명해진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영화 닥터 지바고 中 라라의 테마' 'Happy Birth Day To You' 'Moon River' 'My Way' '몬티의 챠르다쉬' 등을 연주한다.

이어 블루스의 여왕 한영애가 '여울목' 'Over the Rainbow' '조율' 등을 노래한다.

김재진 대표는 "개국 5주년을 자축하기 위해 국악, 클래식, 가요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가와 실내악단을 초청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소수의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유나방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제적인 치유콘서트를 구상해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유나방송 www.una.or.kr (02)3216-1789


유나방송 '길을 찾는 사람에게' 진행자 정목 스님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장자 소리 중생 번뇌 씻어줘"

4월 12~18일 서울 백악미술관서 열려
두타 스님 제작한 주장자 등 100점 전시

주장자는 큰스님들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한 도구이다. 주장자를 '쾅' 하고 내려치는 순간 법계를 울리는 지혜의 소리가 삿된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낸다.

1980년대 초 은사스님에게 주장자와 지팡이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제자는 30년 뒤, 100여 점이 넘는 육환장(六環杖) 주장자 지팡이를 만들었다. 공주 금룡암 회주 두타 스님은 1987년 금룡암 창건 후부터 본격적으로 용안목(龍眼木)을 구하러 다니면서 육환장과 주장자 등을 제작했다.

용안목은 감태나무 중 벼락을 맞아 검게 탄 자국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안목이란 이름은 검게 탄 자국이 마치 용의 눈처럼 고르게 터져 나와 있어 지칭된 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예부터 큰스님들의 주장자나 지팡이, 육환장 등을 만들 때 용안목이 주로 애용됐다.

보통 용안목은 160~180㎝의 크기로 곧게 뻗어 있으며, 검은 무늬가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한다. 때문에 주장자에 사용될 좋은 용안목을 고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타 스님은 "용안목은 60~70%가 휘어서 자라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무를 곧게 피는 과정이 중요하다. 보관이나 손질방법 등이 잘못되면 나무가 본래대로 다시 휘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두타 스님은 "은사스님이신 능엄 스님으로 인해 용안목에 대해 처음 알게 됐지만, 주변의 좋은 인연들로 인해 많은 주장자, 지팡이, 육환장 등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전시는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육환장 · 지팡이 · 주장자

스님이 용안목으로 직접 만든 육환장 주장자 지팡이들은 4월 12~18일 서울 종로 백악미술관 특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02)734-4205 이은정 기자

혜공 스님, '법화경' 독송 앨범 발매

안양 자운정사 혜공 스님은 일반 불자들이 〈법화경〉을 쉽게 수지 독송 할 수 있도록 '법화경요품' '묘법연화경' 두 앨범을 선보였다.

이번 앨범은 〈법화경〉의 방대한 양을 한 장의 CD에 담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묘법연화경'에는 〈법화경〉 7권 28품이 한글독송으로 한 장의 앨범에 모두 담겨있다. '법화경요품'은 〈법화경〉의 각 품별 중요 내용만 간추려져 담겨있다.

한편, 혜공 스님은 4월 중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부모은중경〉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031)386-1569

이은정 기자





윤달 삼사순례
무료점심공양


법당에 모셔져있는 조선시대 관세음보살상

전국에서 불심이 가장 돈독한 부산의 관음제일기도도량 칠보사가 전국의대덕 큰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칠보사는 천마산 중턱의 조선시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해맞이 기도도량입니다.
그리고 5~10분거리에는 부산항, 자갈치시장,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또한 방생할 수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과 다대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칠보사에 오셔서 무료로 점심공양과 철야정진기도를 하시면 대덕큰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산승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한점씩 무료 법보시합니다.

※숙소 관계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

부산시 서구 남부민1동 93번지 ☎051)244-2040
대한불교조계종 천마산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승무에서 발레까지 춤사위 펼쳐”

‘춤으로의 여행’ 여는 성균소극장 이철진 대표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21개 무용단이 5개월 동안 펼치는 ‘춤으로의 여행 2012’가 4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그 중심에는 한국전통, 한국창작, 발레, 현대무용, 피지컬 씨어터, 해외민족무용 등을 소극장 무대에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균소극장 이철진 대표(사단법인 한국춤예술센터 이사장)가 있다.


이철진 성균소극장 대표


이철진 성균소극장 대표는 8월 29일까지 ‘춤으로의 여행’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무용공연을 펼친다.

이 대표는 “무용의 전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작년에 9개 팀이 참여한데 비해 올해는 21개 팀이 참여하는 등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전한다.

5개월 동안 매주 금·토·일 마다 펼쳐질 이번 공연은 21개 무용단 150여 명의 안무가들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기성안무가 및 무용단의 춤판인 ‘샐러드프리젠테이션’ ▷창단한지 5년 미만으로 참신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용단들이 펼치는 ‘뉴웨이브 안무가전’ ▷한국전통춤의 오늘과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전통 춤의 窓’ 등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창작무용단 댄스컴퍼니 리의 불교정신에 기반을 둔 창작무용 ‘茴舞(회무)’(5월 25~27일)를 비롯, 청어람무용단(7월 27~29일), 판댄스컴퍼니(8월 10~12일), 박덕상 타무천예술단(8월 17~19일) 등의 한국전통무용단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다수의 불교적인 작품을 창작해온 댄스컴퍼니 리는 ‘茴舞’ 공연에서 불교적인 색채를 주요 이미지로 명상춤과 무용치료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티베트악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스러운 소리와 울림은 관객을 깊은 명상상태로 유도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승무 공연을 엿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대표는 “이매방류, 한영숙류 등 류파별 승무가 소개되어 차별화된 예술성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극장이 지난 해 전통춤전용극장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승무 등 우리 전통춤을 알리는 공연 기획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불교적 명상춤 ‘회무’ 등 선보일터
전통안무가 네트워크 구축 계획

이밖에도 살풀이춤, 태평무, 장구춤, 검무 등의 한국전통무용과 스페인플라멩코 및 발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 3월 이 대표가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한국춤예술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는 전통 안무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회원을 확보 한국춤 알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는 “전통춤 안무가들을 위한 협회 등이 없어 그동안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단법인 승인을 계기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통춤 안무가들의 고충을 함께 듣고 고민하며 전통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권익시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월파태율 스님의 ‘진여산실제암 [眞如山實際庵]’

모든 깨달음이 ‘한 마음’ 이네

山號眞如得 (산호진여득) 산을 부르니 진여가 얻어지고
庵名實際尋 (암명실제심) 암자를 이름 하니 실제가 구해지네.
溪聲生妙曲 (계성생묘곡) 계곡물 소리 묘한 곡조 만들고
松韻散淸音 (송운산청음) 소나무 울림 맑은 음 흩뿌리네.
佛獨明三覺 (불독명삼각) 부처님은 오직 깨달음 셋을 밝히셨는데
僧兼悟一心 (승겸오일심) 스님은 겸하여 일심을 깨닫누나.
壺中風景好 (호중풍경호) 병속의 경치 좋아
終日臥仙林 (종일와선림) 종일토록 신선 림에 누웠네.

월파태율(月波兌律; 1695~?)스님의 〈월파집(月波集)〉 서문에 “그 사람을 보고 그 말을 들으며 그 시를 완상하면 맑기가 월파와 같아서 허탄하지 않다”라 했다. 월파(月波)란 하늘에 뜬 달이 비추는 고요한 밤, 그 부서지는 달빛에 비친 은색물결을 뜻하는데 맑은 바람과 상쾌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월파라는 이미지에 스님의 모습과 언행, 시문의 고졸함을 부친 것이다.

산 이름과 암자명이 진여요 실제니 부를 때마다 진여와 실제가 구해진다고 했다. 부른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산과 암자에 기거하는 스님은 이미 진여자체고 실제 자체인 것이다. 진여와 실제의 오묘하고 맑은 경지는 계곡물소리와 솔바람소리로 형상화 됐다. 시제를 풀어놓은 재치가 돋보인다.

부처님은 오직 스스로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달음을 얻게 하고 깨달은 내용과 작용을 두루 원만하게 비추어 수행해 나가는 자각(自覺) 각타(覺他) 각행(覺行)원만을 말씀하셨을 뿐인데 스님은 더 나아가 모든 깨달음이 곧 이 마음임을 깨달았다. 일심(一心)의 진여로 되돌린 선사의 예봉이 드러나는 부분이 기도하다.

‘병속의 경치’는 호중천(壺中天), 즉 속세와는 다른 별천지인 신선의 세계이다. 스님은 깨달았고 게다가 경계는 신선림을 보태니 댓돌 맞듯 맷돌 맞듯[築著磕著]인 셈이다. 그러니 종일토록 완상하며 자랑하고 싶을 수 밖에.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아사리)

‘대자연속의 나’ 아크릴로 캔버스에

선스페이스, 이상기 작가展 4월 14일까지

대지가 약동하는 초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삼청동 스페이스선 갤러리는 이상기 작가를 2012 스페이스선 추천작가로 선정, 4월 14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이 작가는 ‘마음풍경_꽃비를 뿌리다’를 주제로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꽃비가 내리는 풍경 등 21점을 선보인다.


보시를 상징한 작품 ‘꽃비를 뿌리다’ 53×45.5

이 작가는 캔버스에 아크릴로 대자연과 대자연 속의 ‘나’를 풍부한 색감으로 담아냈다. 캔버스 속의 붓놀림은 자연이 소생하듯이 역동적으로 꿈틀댄다.

이 작가에게 꽃비를 뿌리는 것은 단순한 봄과 꽃의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우주의 공동체 속에서 연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빛을 나누길 소망하는 작가의 뜻을 담아내려 한 것이다.

이상기 작가는 불교의 선(禪)과 명상적인 사상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꽃비를 뿌린다는 것은 불교에서 보시의 마음을 모두가 함께 공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널리 퍼뜨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02)732-0732 이나은 기자

김경호 회장 사경 美 신학대에 봉안

“고려전통사경 봉안된 일 이번이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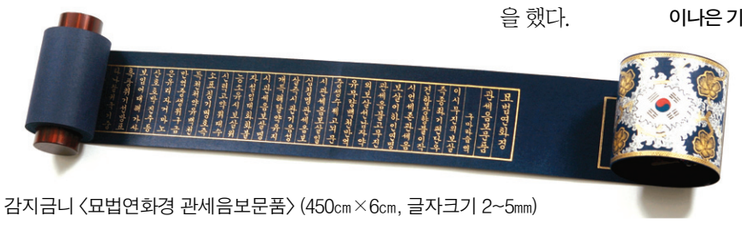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사경이 미국 대학교에 복장물로 봉안돼 눈길을 끈다.

외길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회장은 자신의 작품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4월 6일 클레어몬트 링컨대학교에 기증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클레어몬트 링컨대는 신학대학으로 신학과를 종교학과로 개편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고자 한국 불상을 지난 해 12월 봉안한 바 있다.

김경호 회장은 “신학대에 한국 불상이 모셔지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불상의 복장에 고려 전통사경이 선보인 일도 처음”이라며 “한국 현대사경사에 한 획을 긋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작품은 역대 사경 중 가장 작지만 가장 정치(精緻)하게 제작됐다. 표지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바탕으로 한 태극무궁당초문으로 장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호 회장은 4월 8일 LA에 있는 원명사에서 한국 전통사경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나은 기자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관세음보문품〉(450㎝×6㎝, 글자크기 2~5㎜)

명창 정정렬 추모음악회 열려

익산 심곡사서 4월 21일 공연
지역내 정기공연으로 자리매김



조계종 심곡사(주지 화평)는 4월 21일 오후 3시 산사 내 정정렬 명창 득음기념 공연장에서 ‘제1회 심곡사 떡목 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2부로 진행돼 ▷익산시 사물팀의 사물놀이 ▷최승희 명창 여는소리 ▷채순자 무용단 살풀이 등 다양한 예술공연이 펼쳐지며 가수 이승훈, 하윤주, 더 베스트, 윤태규 등이 참여한다.

정정렬(1876~1938·사진) 명창은 19세기 조선적인 판소리 시대가 서서히 끝나갈 무렵 태어나 오랜 수련을 통해 훗날 오명창의 하나로 꼽힌 세기의 명창이다.

하지만 정 명창은 소리꾼으로 대성하기에는 치명적인 조건인 ‘떡목’을 가지고 있었다. 떡목이란 고음부의 음역이 좋지 않아 자유로운 소리 표현이 잘 안되고 소리가 심하게 거친 목을 일컫는다. 정 명창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신의 고장인 익산 미륵산 심곡사 등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견디며 소리에 매진했다.

이에 심곡사는 고장을 빛낸 국창 정정렬 선생을 추모하며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정정렬 명창 득음 기념 떡목 공연장’을 건립했다.

화평 스님은 “심곡사에서는 떡목공연장 개관을 기념하고자 한국국악협회 익산국악진흥원과 함께 올해를 시작으로 지역내 정기 공연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063)855-2001 이나은 기자



외길 30년 계승자, 초의 스님 '차향 순례'

다맥 전수자 박동춘 박사 우리 茶 기행

다산 · 추사 등 지식인과 교류
시와 차 나눈 흔적 인문학 기행
응송 스님 '다도전게' 최초 공개

박동춘은 다인(茶人)이다. 그는 조선 후기 사멸 위기에 처했던 우리 차 문화를 부흥시킨 초의 선사(1786~1866)의 정통 다맥을 이은 '초의차' 5대 전수인이다. 초의의 다맥은 범해 금명 응송을 거쳐 박동춘에게 전해졌다.

박동춘은 최근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를 펴냈다. 책에는 저자가 응송 스님(1893~1990)에게서 제다법과 차 이론을 배우고 받은 '다도전게(茶道傳偈)'가 최초 공개돼 있다.

응송 스님은 저자에게 전한 다도전게에서 "전함이 없는데도 전했으며 받음이 없는데도 받은 것이라/ 전함이 없으니 그것은 참으로 전한 것이요/ 받음이 없는 고로 참으로 받은 것이라"라고 적었다.

저자가 차를 만들고 연구한 지 3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저자는 금석학의 대가인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한학을 사사했고 성균관대에서 유학을, 동국대에서 선학을 공부했다.

현재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에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 전수하고 있다.

초의 선사와 차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지어 세상에 선보인 저자는 한세대를 훌쩍 넘어선 길다면 긴 이 세월을 차와 함께 흘려보냈지만, 이제 비로소 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인 것 같다고 말한다.

책은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탈고 후, 초의 선사와 인연 있는 곳을 답사하며 자신의 다도 인생 30여 년을 둘러보고 그 술회를 적은 결과물이다.

책에서는 강진 다산초당에서 청년 시절의 초의에게 시학과 주역을 가르쳐준 다산 정약용과 평생 초의를 후원해준 다산의 아들들, 초의와 동갑내기로서 평생을 지기지우로 지내며 맑은 정신 세계를 교감했던 추사 김정희, 절창의 시문으로 '초의차'의 웅대한 경지를 묘사했던 박영보와 신위, 황상 등 조선 후기 지식인들을 만날 수 있다.

산사를 통해 명맥을 유지해오던 우리 차의 진수가 조선 후기 눈 밝은 사대부들을 만나 하나의 '문화'로 만개하는 광경은 초의 다산 추사라는 걸출한 세 인물의 숨겨진 곡절을 전해 듣는 일만큼이나 깊은 감흥을 준다.

차를 만드는 명인이자 차이론 연구학자로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차 문화'를 조형하며 한국 전통차의 향방을 되묻고 있다. 옛 선인들이 그랬듯 탁마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대중에게 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차의 역사는 신라 말기 선종과 함께 유입되면서 시작됐고,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사찰의 주도하에 송나라에 비견될 만큼 차 문화가 융성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로 들어와 배불 정책이 실시되면서 쇠퇴기에 이른다"고 말한다.

때문에 왕실의 무관심은 당연했고, 다만 음다(飮茶)의 이로움을 인식했던 소수의 문인이나 수행승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조선 후기 초의 선사라는 걸물에 의해 한국 차가 중흥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그의 차원 높은 선다(禪茶) 정신과 투철한 장인 정신 외에도, 그의 차에 담긴 선미를 알아본 조선의 지식인들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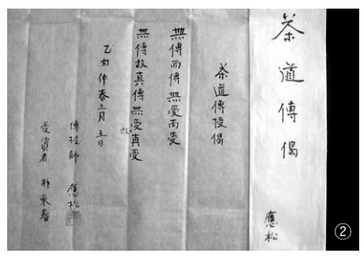
저자가 만드는 '동춘차'는 이 '초의차'의 계보를 잇는다. 그의 차는 고려대 고미술학과 변영섭 교수에 의하면 기운이 좋고 시원한 방향(芳香)이 나는 차, 녹 황의 황금비례가 갖추어진 맑은 차다. 특히 그는 차를 우릴 때 열탕(熱湯)을 고집한다. 펄펄 끓인 물을 기포가 막 가라앉는 정도에서 뜨거운 채로 붓는 열탕법은 응송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전통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는 시종일관하여 담박(澹泊)하고 소쇄(瀟灑)하여 맑고 시원한 한국성을 지향한다. 산 높고 물 맑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산자수명(山紫水明)한 풍토에서 형성된 한국적 '맑음'이 저자 박동춘의 차에 고여 있다.

초의의 후학이자 오늘날 그 차의 품격을 되살려내고 있는 저자는 책에서 초의 선사의 고향인 전남 무안군 삼향을 기점으로 그가 거쳐 간 운흥사 쌍봉사 대흥사 학림암 등을 잇는 길을 되짚으며 옛 다성(茶聖)이 남긴 정신과 인연의 흔적을 좇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①초의 선사로부터 다맥을 이어 박동춘 소장에게 전한 응송 스님
②최초공개된 응송 스님이 박동춘 소장에게 전한 다도전게.
③초의 선사가 상주했던 해남 대흥사 일지암 연못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박동춘 지음
동아시아 펴냄
1만9800원

남도 폐사지의 아름다움 담아

이지누 작가, 전국 폐사지 답사기 全8권 중 첫 권 펴내



폐사지는 중요성에 비해 인기 있는 답사지는 아니다. '폐허'라는 이미지가 답사객들의 발길을 막기 때문이다. 잘해야 석조 유물 몇 점, 아니면 텅 빈 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런 오해(?)를 불교유적답사가 이지누 작가는 가볍게 넘어선다.

이지누 작가는 최근 펴낸 〈마음과 짝하지 마라, 자칫 그에게 속으리니〉에서 폐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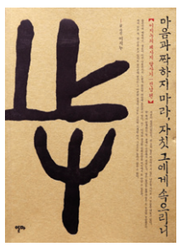
"폐허란 그저 지저분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돈해야 할 공간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폐허의 스산한 풍경이 혐오감이나 두려움만 발생시키던가. 그렇지 않다. 아름다움이란 음양 모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결코 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어떤 것에 비해 우월하거나 우선하지 않는다."

저자는 폐사지 답사와 별도로 여러 폐허들을 둘러본 경험이 있다. 태백 등의 폐광, 서해안 염전, 도시의 재개발지역 등.

저자는 "폐허가 인간 본성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톺아보지 못하는 눈과 마음으로 어찌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겠는가"하고 말한다.

책은 이 특별한 아름다움에 취한 저자가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를 돌아보고 적은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그 첫 번째 갈무리인 책은 전라남도의 폐사지 아홉 곳을 답사해 담고 있다.

저자는 전북 충청 경기 경주 강원 경남 경북 지역 폐사지를 돌아보고 적은 책도 펴낼 예정이다.



마음과 짝하지 마라, 자칫 그에게 속으리니
이지누 지음
알마 펴냄
2만2000원

이번 책은 진도 금골산 토굴터, 장흥 탑산사터, 벌교 징광사터, 화순 운주사터, 영암 용암사터 · 쌍계사터, 강진 월남사터, 곡성 당동리 절터, 무안 종지사터 등 맑은 선풍이 맹렬했던 남도의 폐사지 풍경을 글과 사진으로 오롯이 담고 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전국 5400여 폐사지 가운데 전라남도를 그 첫 번째로 택했을까?

남도는 불교문화가 활발히 꽃 피우던 통일신라시대부터 중앙정부인 경주와는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고려의 개경, 조선의 한양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사정거리 안에 단 한 차례도 있지 않았다.



월남사터는 월출산 기슭에 자리잡은 평지가람이다. 진각국사 혜심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저자는 이 같은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남도가 경제 ·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낙후됐지만 오히려 사상은 분방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불교사상은 물론 불교미술 또한 여타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역사적으로도 남도는 한반도에 수차례 새로운 사상적 기운을 불어넣었다. 나말여초 완도 청해진을 통해 선종이 유입됐고, 고려 시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정혜결사 등 결사운동의 진원지였다. 또, 조선 후기에는 대흥사 등을 중심으로 유교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책에는 수록된 작품에 가까운 사진이 일품이다. 100컷의 사진 한 장 한 장 소장하고 싶을 만큼 인상적이다.

저자는 한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 불리던 계간지 〈디새집〉을 만들며 보여줬던 실력을 이 책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디새집〉은 2000년대 초 한 일간지에서 '잡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저자는 "남도처럼 기존 질서와는 다른 불교문화는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에 남도는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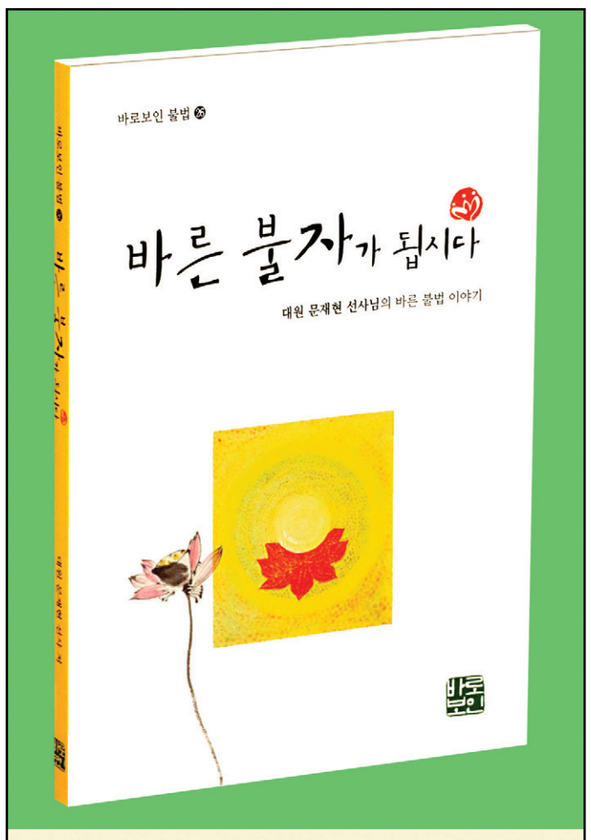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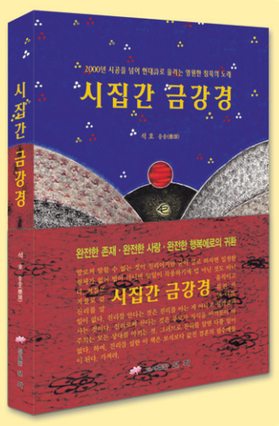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5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6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산 외	불광출판사
7	마음을 열어 빛을 보다	진제	매일경제신문사
8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9	마음수업	이광정	휴
10	붓다 일어서다	손석춘	들녘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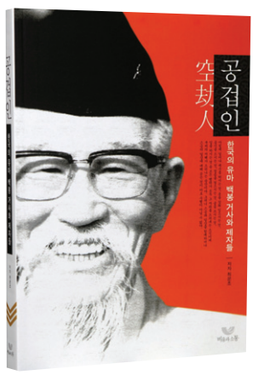




신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031-534-3373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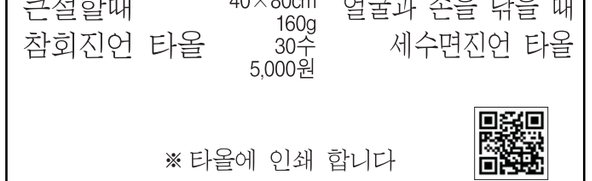
금강경이 시집갔다?
화제의 책
시집간 금강경


응송 : 석 호 스님
신국판 | 359쪽 | 값 15,000원
도서출판 연화 刊
완전한 존재(無相), 완전한 사랑(無住), 완전한 행복(妙有)에로의 귀환!
단 한 번의 정독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금강경 하면 단연 석호스님의〈시집간 금강경〉입니다. 진리는 잡을 수 없지만 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책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 정독하십시오
〈전국 서점 및 인터넷서점 절찬 판매중〉
도서출판 연화 053)253-1923

공겁인 空劫人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와 제자들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의 생생한 언행 기록
8년여 자료조사와 인터뷰로 되살린 가르침
이 책은 백봉 거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열한 명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와 녹취, 비디오 촬영에는 1년 반이 걸렸지만, 각자의 수행기 작성 등 자료조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8년간의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
백봉 거사의 감동 깊은 구도기와 깨달음,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은 재가 불자를 비롯한 출가 수행자에게도 의미심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백봉 거사 문하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재가 수행자들의 각고의 노력,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화두 타파와 깨달음, 스승의 인가(또는 인정)에 대한 가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의 마음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운초 지음 | 부분 감라 |
440쪽 | A5 | 값 16,5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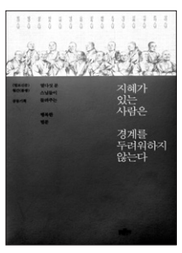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참회진언 타올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붓펀...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놓으시면 바로 자유로워져요"

15명의 선지식이 들려주는 명법문 모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보신문
월간 〈불광〉 기획
불광 펴냄 | 1만1천원



자기자신 이기는것이 수행
원력은 행복으로 향하는 문열어
대중 눈높이 맞춰 차근차근 설명

제법 불교공부를 했다는 사람도 막상 불교 교리나 선(禪)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어렵다' 는 말을 반복한다. 숨막힐 정도로 빼곡한 한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선사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을 볼 때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불교에 '입문' 하기로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 이런 애로사항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법회에 가기만 하면 된다. 스님을 상대로 하는 설법이 아닌 이상 '법회' 에서 들려주는 스님의 법문은 쉽고 명쾌하다. 법문에는 각주도 없고 애매한 결론도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스님들이 법회에서 한 법문을 모은 것이다. 때론 수천여 명이 모였고 때론 2~3백여 대중이 모였다. 법문 들으러 온 사람들은 선문답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려운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다. 뭔가를 얻으러 온 사람도 있고 뭔가를 비우러 온 사람도 있다. 스님들은 얻으러 온 사람에게는 비우는 법을 가르쳐 주고, 비우러 온 사람에게는 채우는 법을 가르쳐 준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영원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놓아버리세요. 지금 자유로워지세요. 현재는 과거의 필연적 산물이고 모든 미래의 필연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깨달음의 성취도, 평화스러움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다음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되 고정된 관념과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미 해탈한 자유로운 존재이며 부처님 품속에 들어 있는 존재입니다."(前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스님 법문중에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은 참 쉽습니다. 술잔을 들지 않고, 성냥을 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습성에 빠진 우리에게 잔 하나 들지 않는 일이, 성냥 하나 켜지 않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쓰기도 어렵지만, 몸으로 실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움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조금씩 자신을 바꿔가는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달라진 스스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해월 스님 법문중에서)

이 책속에서 법문 하고 있는 스님의 일상은 법문을 듣고 있는 신도들과 비교해 무엇 하나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춰 법문을 하며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그리고 결국 죽음과 태어남이 하나로 얽혀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스님들의 경험에는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엿보인다.

"잠깐 제 출가 본사인 금산사에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당시 한 보살님께서 절에 자주 오셨는데 종종 뵙다보니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보살님께서 제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관세음보살보다 더 영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질문을 받은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영진 대사를 찾으시오."라고 답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결제를 맞아 선방에 들었다가 정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글쎄 금산사가 온통 웃음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제 말을 철썩 같이 믿고, 기도를 할 때마다 "영진 대사, 영진 대사…" 하며 제 법명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살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보살님께서 바라던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관세음보살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순수 하게 믿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 법문중에서)

어떻게 보면 스님에게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지만 이 경험을 들려주며 스님은 무엇이든 그것을 확고히 믿고 일념으로 정진하면 그 마음이 도달하는 곳에 행복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은 모두 열다섯 분이다. 많게는 50년 넘게, 적게는 25~26년을 헤아리는 기간 동안 절집에서 살아온 다양한 이력의 수행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법문 속 메시지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왜 '마음' 을 찾아야 하는지, 두 번째, 왜 행복할 수 없는지, 세 번째 왜 내 이웃의 자비를 빌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첫 번째 '마음' 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은 경봉 스님의 말을 인용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더라도 그 주인을 찾아보지 않고 가면 무례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몸을 평생 끌고 다니면서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한지 한 치의 애매함도 없이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곧 두 번째 물음, 즉 이 마음이 왜 행복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지현 스님(부산 관음사 주지)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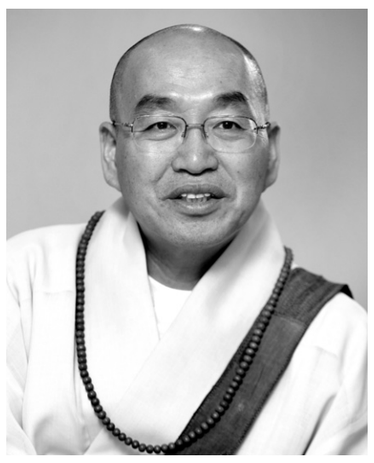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천진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린아이를 보면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건 요구사항이 많아질 때, 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면서 고통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열다섯 분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에는 이런 믿음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깨어있으면 내면 들여다 보여

과거의 삶은 연습일 뿐 현재가 중요
법륜스님 생생한 현실 언어로 설명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 강조



스님들이 먼저 읽고 권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기도〉를 통해 자기변화 방법을 일러주었던 법륜 스님. 이제 스님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한다. 현재를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마음의 눈을 감고 습관처럼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세상이 어둡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이다. 법륜 스님은 이 순간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보다 '내 눈을 뜨는 것' 이 먼저라고 말한다. 지금 '깨어있음' 에 대해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말 대신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의 언어로 가르침을 전한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울 때는 언제였는가? 내 자신을 위했던 때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가족을 돕고 친구를 돕고 남을 도왔던 때인가? 남에게 도움이 될 때가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로 남아 있지 않은지. 결국 그러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더 이롭지 않았는지.

법륜 스님은 짤막한 일화들을 통해 지금까지의 내 삶과 현재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내면의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헛된 삶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동안의 헛된 삶을 버리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금 여기서 '내 눈을 뜨는 것' 이 절실한 까닭이다. 감았던 눈을 뜨고,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위해 불을 밝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 붓다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책은 깨닫게 해준다.

"스님은 무슨 부처님 깊은 가르침은 얘기하지 않고 인생 상담이나 하고, 그저 웃고 야단만 치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계속 고집하면 스님이 야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연습일뿐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당당히 서면 됩니다."



깨달음 | 법륜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2천원
김주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후회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 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죽을병에 걸렸거나 재앙이 닥쳐 곧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라면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달 뒤면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더라도 죽음 직전까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나는 길가에 핀 풀 한 포기와 같다. 자신이 별 게 아닌 줄 알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그 때문에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마음공부는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따라 배우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참자유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행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의식혁명이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또 바뀐다는 말이다."

'비움' 통해 변화된 세 모녀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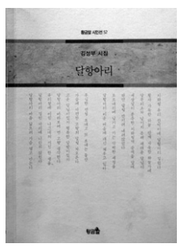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도시로 나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잠시나마 유학이란 것도 해보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체제 속에서 평범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경험한 후 '쉴 틈 없이 쫓기며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길은 없는 걸까?' 를 고민하게 됐고, 결국 '체제' 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녀가 두 딸 아이와 선택한 삶은 바로 '땅으로 돌아와 농사짓고 사는 삶' 이었다.

이 책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과 고투의 기록이다.

없는 것이 많아서 자유로운 | 도은 여연 하연 지음 | 행성B 잎새 펴냄 | 1만4천원 김주일 기자

오체투지 정신 시에 녹아 있어



선(禪) 수행을 바탕으로 시작(詩作)을 해왔던 시인 김성부가 2005년 〈이별연습 그리고 기다림〉이후 6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달항아리〉를 발간했다. 책에는 김성부 시인이 국내 사찰과 명승지, 강가를 다니며 녹여낸 시 70여 편이 담겨있다.

김성부의 시는 유무정물(有無情物)을 부처삼아 용맹정진하는 그의 정신이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돼 있다. '선화(禪畵)' 라는 작품에서 "언 마음으로 살며시 석양을 불러놓고/ 오래도록 선정(禪定)에 들 수 있을는지"라는 화두를 통해 그의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김영탁 문학청춘 주간은 "김부성 시인의 오체투지 정신이 시와 결합해 아름다운 서정의 꽃을 피우며, 독자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달항아리 | 김성부 지음 | 황금알 펴냄 | 8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서 울 범 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위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21:00 ~ 03:00 법화경 전품 독송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2012.3.25 ~ 2014.12.19 (100일 X 10회)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재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동참 불자님은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 참 금 : 10만원
- 접 수 : 전화접수 가능
- 문 의 : 032)932-3525 / 070-4147-6525
- 차량운행 : 조계사앞 매주토요일 저녁 7시 (차량기사 전화 : 010-4931-5713)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하여 드림.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문무왕이 대왕암에 묻히고자 한 까닭은?

"동해 용왕되어 호국·호법하겠다"

1. 동해구와 대왕암

한국 미술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현 고유섭(1905~1944)은 "경주에 가거든 문무왕의 위적(偉蹟)을 찾으라. 구경거리의 경주로 쏘다니지 말고 문무왕의 정신을 기려보아라. 태종 무열왕의 위업(偉業)과 김유신의 훈공(勳功)이 크지 아님이 아니나 이것은 문헌에서도 우리가 가릴 수 있지만 문무왕의 위대한 정신(精神)이야말로 경주의 유적(遺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니 경주에 가거들랑 모름지기 이 문무왕의 유적을 찾으라"며 경주의 수많은 유적들이 국방(國防)적 경영이자 정경(政經)적 치적이 아님이 아니나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동해의 대왕암(大王岩)을 찾으라." 우현의 '경주기행의 일절(一節)' 4장 '경주에 가거든'에 실린 글이다. 그는 '문무왕의 위대한 정신'을 더 없이 기리고 있다. 우현의 지적처럼 동해 입구의 큰 돌 위에서 장사를 지내달라는 문무왕의 유언은 그의 '정신'의 지향을 의미할까. 아니면 그의 '무덤'의 시설을 의미할까.

문무왕은 살아서는 삼국통합을 위해 나라 걱정을 늘 하였다. 그는 죽어서는 용이 되어[爲龍]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삼국사기〉(권7)「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조에는 "뭇 신하들은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돌 위에서 장사를 지냈다. 「속전」(俗傳)에 왕은 돌아가시어 용이 되었으므로 그 돌을 가리켜 대왕석(大王石)이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왕을 '동해 입구의 큰 돌 위'에서 '장사를 지낸 것'[藏骨處]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이곳에 뼈를 뿌린 것이냐'[散骨處]이다. 문무왕은 유조(遺詔)를 통해 "임종 열흘 뒤

"나라 지키는 큰 용되어 불법 받들겠다"
신문왕 부왕 뜻 받들어 바다에 뼈 뿌려

교외 궁문[庫門] 바깥 뜰[外庭]에서 서국(인도)식으로 불[火]로 태워[燒葬]장사지내라"고 하였다. 그는 장례의 장소와 법식에 대해서까지 조칙(詔勅)을 내려 놓았다.

여기서 교외의 '궁문 바깥 뜰'이란 과연 어디를 가리킬까. 대왕암을 해중릉(海中陵)으로 보는 이들은 '고문외정'을 경주시 배반동(排盤洞)의 능지탑(陵只塔)이 있는 곳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들은 능지탑의 유구가 탑묘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출토된 탄편(炭片)과 인근에 자리한 사천왕사지에서 문무왕비편(文武王碑片)이 나왔고, 비가 꽂혀진 귀부의 거북머리가 대왕의 탑묘가 있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신라 사람들이 문무왕의 화장터를 그냥 방치할 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 이곳의 지명인 '능지'(陵只)가 『동경잡기』에 나오는 '능지'(陵旨)와 동일하며, 능지탑이란 '능의 탑'을 가리키고, 마을사람들이 이 일대를 '고문뜰'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탑묘 양식을 지니고 있는 이곳은 평소 검소한 장례를 원했던 문무왕의 유조와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대왕이 나라를 21년 다스리다 영륭(永隆) 2년 신사년(681)에 붕어하자, 유조에 따라 동해 속의 큰 바위 위에서 장사를 지냈다[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왕은 평소에 늘 지의(智義)법사에게 '짐은 죽은 뒤 나라를 지키는 큰 용[護國大龍]이 되어 불법(佛法)을 높이 받들며 나라를 지키고 싶소'라고 하였다. 법사가 말하였다. '용이란 축생의 응보인데 어찌 용이 되려 하십니까?' '짐은 세상의 영화를 염증을 느낀 지 오래요. 비록 추한 갚음을 받아 짐승이 된다면 짐의 뜻에 맞는 것이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동해 입구'[東海口] 즉 '곳집 문 바깥 뜰'[庫門外庭]에서 대왕의 장례를 치렀다면 바닷가 큰 바위 위에 매장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문왕은 바닷가 가까운 뭍에서 부왕의 장사를 치르고 바닷가의 큰 바위 위에 뼈를 뿌린 것이 분명하다. 이는 평소 죽어서 용이 되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뜻을 의식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2. 사중기의 이해

〈삼국유사〉(권2) '기이' '만파식적' 조목에는 '절의 기록'[寺中記]를 할주(割註)에 싣고 있다.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창건하였다. [〈사중기〉에는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기 위해 이 절을 지었으나,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어 바다의 용이 되었으므로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 개요 2년에 끝마쳤는데 금당의 층계 밑에 동쪽을 향한 구멍을 뚫어 놓았다. 즉 용이 이 절에 와서 돌아다니게 한 것이다. 유조에 따라 뼈를 묻은 곳이 대왕암이고 절의 이름은 감은사이며 용이 나타난 모습을 본 곳이 이견대(利見臺)라고 하였다." 문무왕과 김유신의 호국 충정을 담고 있는 '만파식적'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권32) '악지' 편에도 실려 있다.

"고기(古記)에서 이른다. 신문왕 때 동해에 홀연히 한 작은 산이 나타났다. 모습이 거북머리와 같고, 그 위에 있는 대나무 한 줄기가 낮에는 갈라져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고 이름을 만파식(萬波息)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 김부식은 만파식적 설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기록한 문무왕이 '용이 되었다'[爲龍]는 주장은 점차 해중릉설로 발전하여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태어나기 5년 전에 신문왕의 태자 이홍(理洪, 理恭)이 부왕에게 와서 축하를 했다는 기록은 하였다는 효소왕(孝昭王)의 적통성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에서도 확인된다. 그 결과 위용설(爲龍說)은 문무왕이 바다에 늘 머물면서 나라를 돕는다는 이야기로 널리 퍼졌다.

그런데 위의 '사중기'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왜병의 진압에 관한 것이다. 삼국통일 시기의 왜국은 문무왕이 걱정할 정도의 국력을 지니지 못했다. 백제 부흥을 위해 3만 척의 배를 출범시켜 나당연합군에게 크게 패했던 왜국이 신라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국력과 침입을 지니지 못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중기'에는 이같은 기록들이 부가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은 삼국통일



문무왕은 감은사가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신문왕이 아버지 뜻을 받들어 완공했다. 사진은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문무왕의 위신력은 일연 당시
왜국의 움직임 고려 만들어낸 설화 추측

시기의 기록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연(一然) 당시 왜국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문무왕의 위신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고려 국민들의 민족적 연대감 내지 국민적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설화를 기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불교나 붓다의 위신력과 결부시켜 외침을 이겨내기 위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왔다.

문무대왕이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었다면 나라를 침범하는 대상이 상정되지 않을 수 없다. 동해에 자리한 문무대왕릉을 염두에 둔다면 외적은 왜국을 이은 일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려 당시 일본은 나라(奈良)와 헤이안(平安)에 이은 가마쿠라(鎌倉)시대를 열면서 새롭게 비상하게 된다. 종래의 한반도 영향권에서 벗어나 열도의 자립과 대륙 문물의 직수입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게 된다. 그들은 당시의 중심 세계관이었던 불교조차도 반도에서 수용하지 않고 인도와 중국을 거쳐 곧바로 일본으로 유입되었다는 '삼국불법연기사관'을 주창하기까지 하였다. 일본 가마쿠라시대의 승려 교넨(凝然; 1240~1321)은 72세에 〈삼국불법전통연기(三國佛法傳統緣起)〉(1311)를 저술하여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3. 믿음과 상징

짧은 시간대로 잘라 보면 역사적 팩트(사실)와 문학적 상상은 대립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긴 시간대로 겹쳐 보면 문학적 상상과 역사적 사실은 상호 교섭을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마치 복선 위를 달리는 두 열차가 나란히 가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간이역에서 만나는 것처럼 '사실'과 '상상'은 종종 해후하기 마련이다. 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화의 영역이 국부적이라면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설화는 통합적이다. 인간의 역동적인 삶의 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합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는 한 '동해 입구의 큰 바위 위에서 장사를 지내달라'고 했던 문무왕의 유언은 기록상으로 보면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문왕이 부왕을 바다 속의 대왕암에 뼈를 묻거나[藏骨] 뼈를 뿌렸는지[散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기록에 의거해 짐작해 보면 문무왕은 '동해 입구'의 교외 '궁문 바깥 뜰'에서 화장되어 그 뼛가루만이 대왕암 위에 뿌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장사를 치른 이들의 의식 속에는 나라를 보호하는 용이 되겠다고 한 대왕의 유조가 대왕암 위에 뼈를 뿌리는 내내 끊임없이 메아리쳤을 것이다. 그리하여 문무왕이 동해의 용이 되었다는 전설은 그의 승하 이후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동해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감은사는 문무왕이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승하하자 그 아들인 신문왕이 낙성한 것이라는 사중기의 기록을 더 신뢰할 수 있다. 동해에 대한 문무왕의 깊은 관심은 「문무왕비문」의 '파경진씨'(波鯨津氏)와 '분골경진'(粉骨鯨津)이라는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문무왕은 '경진'(氏)이 동해(神)임을 알고 스스로 동해 용왕이 되고자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의 '속전'과 '사중기' 후반에 보이는 '개'(蓋) 이하는 '사중기'와 달리 〈삼국유사〉의 찬자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의 이해나 인식을 적어 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즉 '향인은 지금 대왕암이라고 부른다'는 표현에서처럼 '향인'은 당시 사람들이자 〈삼국유사〉 찬자뿐만 아니라 이 설화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바위'나 '돌' 앞에 붙은 '대왕'은 문무왕으로만 확정할 수 없다. 오히려 대왕암의 '대왕'은 이후 여러 왕들에게도 가탁되어 왔음을 시사해 준다. 동해신에 대한 믿음은 문무왕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울산 앞의 대왕바위를 비롯해 전국 바닷가 곳곳에 살아있는 다수의 대왕신(大王神) 혹은 대왕신앙(大王信仰)은 미추이사금 (3년, 264)이 동쪽으로 순행하여 '망해'(望海) 의식을 치른 이래 지속되어온 동해신에 대한 경건한 의식에서 비롯되고 계승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무왕에 대한 신앙 역시 이러한 망해 의식의 계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감은사(感恩寺)의 '감(은)'은 그 소

부처의 힘으로 왜군 막고자 감은사 창건
신문왕이 부왕 뜻 이어받아 완공해

리인 '감'을 취한 것이니 곧 신(神)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은사는 동해신(용)을 모시기 위한 절이었다. 나아가 대왕암은 문무대왕의 해중릉으로 제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동해신인 용신을 모시기 위한 무덤이었다. 예로부터 용인 '미리' 혹은 '미르' 또는 '미륵'은 '황제' 또는 '왕'을 상징하여 왔듯이 대왕암은 죽어서 호국용이 되어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을 기리기 위한 곳이며, 동시에 감은사는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인 용의 지킴을 받는 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이 땅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지금도 면면히 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무왕이 대왕암에 묻히고자 한 까닭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며 그것을 믿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던 이유 역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역사와 문화의 한복판에 상호의 존성과 상호존중행을 역설하는 불교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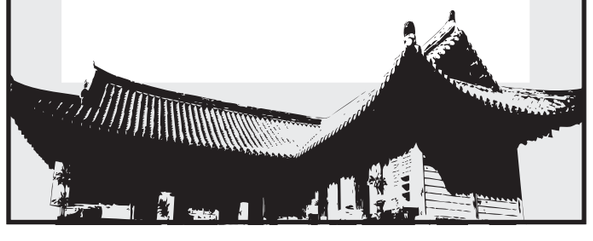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광석에서 나온 금강석이 광석을 자르듯이 자기가 저지른 악업이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넝쿨이 자기가 기댄 나무를
휘감아 말려 죽이듯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증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재혼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파동에너지 양생기공

1. 파동술로 만성질병을 고치는 법
2. 파동술로 가위눌림,빙의,불면증을 고치는 법
3. 파동술로 장시간 병명없이 시달림의 고통을 퇴치하는 법
현재 명리나,풍수,지압,침,활법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권장합니다
051)722-6426 / 011-9785-6426
010-3768-7387 부산 태백정사

역학 개인지도

1. 사주,궁합,택일,조상,성명학
2. 가장 알기쉽고 정확하게
3. 음양오행의 근거로 강의합니다
4. 단기간 완성
5. 개인 및 그룹지도
6. 출장강의도 환영함 (사찰포함)
010-4237-9088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강사
010-2418-6222

한국불교태고종 범패학인모집

천수바라. 사다라니
복청게. 도량게작법
태징.북.사물다루는법
6개월내 전문가처럼
필요한작법만지도전수
예수재.49재.점안의식
011-3809-4373

금강송 분양

11년생 금강송(3m~3.5m)
- 10그루 이상 분양
- 1그루당 15~20만원
(선착순 분양)
- 현지 확인후 당일 채목, 상차
016-573-2032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역학 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 신수, 궁합, 성명학
우울증, 공포, 빙의, 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사주명리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한 사람의 사주로 !!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사업)운, 건강 운,
자녀 학과(직장)운, 결혼 운, 부모님 건강 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극락왕생 못한 영가를
알 수가 있어 영가천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는 본 학원에서 한글로
편집하여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문의처: 유심명리학원
TEL: 010-3711-5072

불교전통(범음범패)의식과 불공을 해 드립니다

49재,천도재,점안식,
예수재를 사찰여건에
맞게 해드립니다.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상 담 안 내

천도재 최고로 잘 모시는 절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예견
고민 완전해결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정방사
50대후반에서 60대중반
010-5219-7021

입학, 취직 사업

각자에게 맞는
직업 선택.
재물소통 전문상담
자성스님
국민 220401-04-069516 임은자
010-7459-0108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영통호흡기도

• 영과 통할 수 있게 하는 호흡기도법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경기 안성, 55세 미만)
010-3450-1147

신심있는 사무장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55세 미만)
010-8954-8033

비구 부전스님 구합니다

(부산, 50세 이전)
051)558-8830

처사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마산)
염불 배울 수 있음
010-3428-6665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대한불교조계종 양양 휴휴암 기도법회 안내 차 량 출 발

매월 지장재일(음 17, 18) ,
관음재일(음 23, 24)
철야정진 매월 4째주 토요일 당일운행
서울,경기,분당,성남지역 출발안내
033)671-0093. 0094. 0095
011-785-0026.
010-3000-5066 일심행

병에서 해방

그 어떤 병도 원인을 알면 치유할 수 있다.
스님의 신통력과 법력으로 치유한다.
범용사 대원스님 합장
연락처 : 055)352-8045 / 010-5453-8611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010-2563-5550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사위 될 분을 찾습니다

- 신부 : 출생 서울, 학력 대졸,
- 직업 : 서울국세청, 나이 40세
- 사위될 분 : 74~75년생,
대졸 이상
011-779-3669
어 머 니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65세 이하)
010-8934-6058

부전스님 모십니다

절에서 무료 기도하며
사실 분 모십니다
011-9707-3490

서울 경기지역

문중 절, 시골집, 가든, 법당,빈터
무상임대나 저렴가격 관리
맡기거나 불사에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010-3131-0772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법보시 상담환영〉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배우자를 찾습니다

- 46세(67년.12.1일생) 자시
- 직업 : 개인택시, 아파트 소유
- 아버님 : 스님
불교신자로 인연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자녀없는 재가여성 불자님도 좋습니다
010-5160-8955
055)744-1994
010-7581-5425

극락사 사찰 운영 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노스님 시봉하실분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행자(비구니) 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관 광 버 스

대우차, 2003년식, BH120,
6기통, 43인승,
노래방, TV양호, 타이어양호,
엔진양호, 무사고, 전체도색(빨강)
가격 : 1천 9백 7십만원
010-8675-3384

승복·전통복식 32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우리 옷
- 32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겨울신상품 특가세일
— 목화솜면누비 —
적삼 200,000원
동방 250,000원
※손누비 특별주문 받습니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공 고

(사)한국불교정토종 이사장 지산스님께
3월14일 현대불교신문에 공고한 본인(무각)에
대한 체탈도첩이 무효함을 공고합니다.
종회의장 추대자는
본인 총무원장에게 보고하고 총무원장이
종정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었으나
그런 절차가 없고 종헌 종법상 어디에도
총무원장직 체탈이나 승적체탈은 함부로
할 수 없는데도 법인 이사장 지산스님의
명을 받은 몇몇 잘못된 스님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회법에 고발 조치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본인의 체탈도첩은 무효임을 공고하고
다수의 스님과 법사단분들은 현혹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

(사)한국불교정토종 이사장 지산스님은
총무원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를 바람.

만세력 없이 사주 보는 비법 장소가 필요없음, 즉시 활용 가능

농협 071-02-217956 이민혜
보시금 30만원
(급) 매매 전문
010-6621-4599

통영 미륵도에 일몰이 아름다운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민박이나 몸 수양 하실 분 환영

011-9532-0707

도심불사 포교당을 함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 스님과
사무장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41)835-3933
010-8353-3337

무료 이름 감정

평생 불리울 이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명, 개명, 무료상담
010-4063-0087
지리산 부성사
주지 금봉 합장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30~50대)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9416-7743

대중 불자 스님께!

도현 스님의 기통(氣通)찬
① 심신 병고 (비만, 혈압, 당뇨, 암 · · 고민) 근본 치유 예방
② 염불 · 간화선 · 수행 성취
③ 신속 정확한 운신수 철학
묘법 전수 불사 해결 바람
신불산 불국토 건강도량
心佛정사 道炫 합장
011-855-8180

불자정보 26 | 883호 | 전면광고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18억

※ 9억 지불후 잔여금 후불 가능. 조절 불가임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4평
- 가액 : 3억 5천

토 굴

- 위치 : 충남
- 법당 : 8평
- 요사 : 18평
- 부지 : 40평
- 가액 : 4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 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7억 5천

♣ 사무실 이전 안내 ♣

연산부동산 사무실을 3월 중순 만덕동 지하철 1번출구 부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금와산방이라는 조그만 방도 마련하였으니 마음 편히 오셔서 하룻밤(숙박은 무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원, 수련원, 선방, 포교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북한산 자락)
- 평수 :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 사찰, 수련원, 요양원(연수원)
- 강화도 (투자 가치있는 명당터)
- 평수 : 1만 2천평
- 가액 : 12억

주인직접 011-372-7744

대구최고포교원

시작하는스님, 보살, 불사하고싶은분

- 법당15평, 삼존불(금.동불) 후불도, 각단탱화
- 신중,칠성,극락,방2개, 공양간, 상담실, 욕실
- 50평, 옥상50평, 소각장1 (최고시설)뒷산
- 앞 큰대로 전철 3분시장 3분

010-6892-3999

토 지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추계리(금계산 용목동)
- 지목:전, 면적: 1250㎡(1필지), 가액: 5500만원
- 현재 신축하우스 1동 소재함(15m*6m)
- 금계산 정상아래 해발 500m위치함
- 진입도로개설,차량통행,토목공사 평탄 완료, 전기시설
- 당진~대전간고속도로 유규IC 근접(약7km거리)
- 조망 최고자리임,추천용도, 암자, 공부자리

010-2429-2069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9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포천시 송우리 근교
- 1층 50평, 위패단
- 2층 법당 35평
- 요사채, 공양실20평, 선방 6개
- 산신각, 휴게실 20평
- 가액: 14억(상담 후 절충)

010-7130-72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 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암 자 터 안 내

- 구례 토지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가액: 4천 3백만원 대출 30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0-9393-4965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010-7154-6654

사찰(급)안내

-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8억(조정가능)
- 평수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도계동
- 3층 대형 상가건물 내
- 2층 45평, 큰법당에 시설 완벽
- 가액: 시설비 포함 1억 8천만원

010-4668-6550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

010-2503-077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주방,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100만원 가액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3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011-874-1593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대지 85평, 법당, 삼성각, 용왕당
- 요사채 공양간 텃밭
- 특징: 도심 산자락에 위치 한 아담하고조용한 사찰
- 가액: 2억 7천만원

010-5346-4138

별 장 안 내

- 절하면 정말 좋습니다
- 위치: 밀양시 단장면
- 면적: 1200평, 건물 50평
- 특징: 천혜의 자연경관
- 앞 탁 트이고 뒤에는 산
- 가액: 3억 5천만원

010-8676-27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내
- 지하철 2호선 3분거리, 교통좋음
- 평수: 대지 62평, 주택 2층법당 15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108불, 인등
- 1층요사채 18평
- (20평 전세 6500만고) 1억 7천 5백만원

018-564-3390
019-581-308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대지 50평, 1층 요사채 40평
- 방4, 2층 법당 35평
- 바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수정산 공원 접 주차완비
- 가액 : 2억 8천만원

011-238-5810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 세종시에서 15분거리
- 전 420평, 전기 도로 되어 있고
- 청정계곡 옆에 있음
- 가액: 6천만원

011-753-0768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대산면 대방리
- 땅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 6평
- 화장실2, 창고1
- 가액: 1억 1천만원 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9183-065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사찰(급)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근처
- 대지 224평
- 법당 30평, 요사채 10평, 산신각, 옥외화장실2개, 하우스 1동
- 주차장, 텃밭, 천연염색 가능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1-9588-59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 3층건물의 3층, 평수 35평
- 옥탑방 포함, 옥상 사용가
- 시장입구
- 버스정류장 앞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약간

010-5607-0108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0억
- 위치 : 충남 온양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컴퓨터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지하철 4호선 서동역도보 2분
- 법당 35평, 요사채 70평
- 공양간 30평, 주택밀집지역
- 시장, 교통최적지, 생활보장
- 부동산사절직거래(취득세없음)
- 가액: 5억 (은해융자가능)

010-3867-47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울산 ●3층건물중 3층
- 총평수 60평(베란다포함)
- 법당(삼존불,각단탱화 등)산신각,용왕당
- 시설완비,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주차장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월46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016-614-8730

사 찰 안 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약 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 등
- 가액: 25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내부관리상태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인등 230불
- 법당1, 방4, 바텐식주방, 창고1, 화장실2(실내,외각 1개)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현대식 시설
- 전세5천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영양군 수비면 계리 토지 양도 전 170평
- 농림관리 503평, 합 370평, 옛날집터귀농지
- 주변국유지 조용하고 최상의 자리 1,000평이상
- 농사지을 수 있고 가재가 사는 청정계곡 끝지점
- 급양도가 2700만원

010-3288-1317

사찰터 또는 전원주택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에서 부석사 중간, 산 100~200m 고지
- 진입도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진입 완료
- 독립구역 5,300평(관리지역, 지목 : 과수원)
- 4개 계단형 부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건축 가능
- 백두대간이 보이며, 경치가 좋고, 아늑함
- 가액: 3억 3천만원

016-573-2032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생각과 감정으로 낭패를 본자는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 대혜종고 -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6〉 의지의 작용 업(業)

빼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업은 존재를 모양 지우고 윤회를 초래하는 인과율



바와(bhava: 생성과정 또는 존재)와 앙가(aṅga: '요소'의 뜻 보다는 오히려 '원인' 내지는 '도우는 것'을 뜻하는)의 합성어인 바왕가(有分)는 존재의 지속을 위해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빠알리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동의어는 life-continuum(생명-연속)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바왕가 찟따가 존재하는 까닭으로 식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태어난 현재의 생이 맨 처음으로 시작되는 삶이고 죽음이 삶의 진정한 끝이라면 인생사를 두고 골머리 썩힐 필요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둑카(苦)의 문제 즉 모든 경험적 실존의 불만족성의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애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도덕적 질서, 옳고 그름의 진실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실질적 의미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감각적으로 즐기고 충족시키면 이 짧은 인생을 똑똑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사람들이 왜 똑같지 못한지 그 까닭을 해명해 주지 못합니다. 탐구심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나 이 불평등성의 원인을 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씨와 열매의 영속운동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꼭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부처님의 주요한 가르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업'과 '다시 태어남'입니다. 업은 존재의 운명을 모양지우고, 다시 태어남을 초래하는 도덕적 인과율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의지(cetana 思)의 작용, 의지가 촉발하는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의지의 작용이 업임을 나는 천명하노라. 의지를 지녔기에 사람은 행위, 말,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니라."

즉 의지의 작용은, 선이든 악이든 우리의 모든 활동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업은 작용이자 씨앗입니다. 업이 초래하는 반작용, 결과 또는 결실은 업보라고 합니다.

의지 작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며 의지 작용이 빚는 행동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따라서 선업도 되고 악업도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 씨와 열매의 이 끝없는 놀음이 영속 운동으로 지속하며, 이것이 바로 생성인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논했듯이 존재라는 정신, 물리적 현상의 끊임없는 변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을 통해 행동합니다. 행동 즉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합니다. 갈애, 우리의 갈망은 그 역시 마음의 한 요소인데 행위를 생기게 하고,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결과는 새로운 욕구, 새로운 갈애, 갈망을 가져옵니다.

선악행위 상벌할 초월적 힘은 없다

원인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의 전개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법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자는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악 행위를 상벌할 외부적 힘은 불교 사상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변화의 방향만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보편적 자연법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도덕의 영역에도 적용된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교가 회개에 의한 죄의 사면이라는 관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념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남들을 위해서나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탓하되 이를 '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죄'란 용어부터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잘못을 벌하고 선행을 상주는 법제정자도, 중재자도, 권력자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의 법에 위반됨'과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맛보거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일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도 그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은, 선이거나, 악이거나 모든 행동은 반드시 과보를 초래할 만큼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선업이 악업을 눌러 버릴 수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교의가 숙명론이 아니란 점,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자유롭지 못하며 의지에 작용하는 외부적 힘과 같은 동기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신에 의해 미리 예정된 것이라는 취지의 철학적 교의가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시는 변경될 수 없게 고정되어 있다는 이론,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소산이라는 이른바 '엄격한 결정론'에 동의하지 않으셨으며 '완전한 비결정론'을 지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교에 다르면 업 또는 의지적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생은 태어나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업은 재생의 당연한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재생 역시 업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태어남은 죽음에 선행하고 다시 죽음은 태어남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이 한 쌍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중단 없는 연속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아가는 영속적 자아나 영혼 또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물질이라는 정신·물리적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정신 또는 마음은 결코 지속하는 실체, 미리 만들어 놓은 영구적인 어떤 것을 뜻하는 영혼, 또는 자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금생의 기억뿐 아니라 여러 과거생의 기억마저도 능히 축적할 수 있는 어떤 힘, 일종의 역학적 연속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
매 순간마다 살고 죽기 반복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진다
변화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변화 방향은 자기 의지로 좌우

온갖 형태의 욕망 즉 갈애는
악과 인연 맺는 온 세상의 적
집착이 전 세계에 고통 안겨줘

마음의 역동적 흐름 업력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물질'은 긴장 상태에 있는 에너지이며, 실질적 내용이 없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자들에게 '정신'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른바 '존재'니 '개인'이니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 정신적 힘 내지 에너지의 결합에 불과하며 지속성을 띤 변화라고 힘주어 역설하셨을 때 그분은 현대 과학과 심리학을 2천 5백년이나 앞지르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체란 이처럼 존재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한 순간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순간에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그 무엇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 정신, 물리적 유기체는 비록 그와 같이 부단한 변화를 겪지만 매 순간 새로운 정신, 물리적 과정을 창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기적 진행을 미래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한 순간과 다음 순간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일생동안 매 순간마다 이처럼 살고 죽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와 마차가지로 단순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권처럼 여기고 있는 삶이라는 지속적 변화 과정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 유동(流動)을 끊임없이 지속합니다. 우리가 업력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역동적 흐름인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 그 살겠다는 의지력이 계속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이 영속적인 식의 흐름은 끝없이 계속되며, 수 만개의 얼굴을 가진 '갈애'가 우리의 그 모든 정신 나간 짓 중에서도 가장 큰 번뇌인 무명과 짝지어 식을 발동시키는 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욕망이 갈애에 포함됩니다. 재유(再有)의 인(因)인 탐욕 갈망 색욕 격정 동경 열망 의향 애모 가족사랑 등 갈애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얼마든지 많은데,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 갈애들이 바로 '우리를 존재형상으로 끌어들이는 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통, 좌절, 갈등, 괴로운 흥분상태, 불만족과 같은 둑카(苦)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 자신이 늘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존재들은 소유 내지는 욕망 충족에 대한 강렬한 갈구로 인해 생존이라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묶이게 되고, 그러고는 고뇌라는 바큇살 사이에서 비틀리고 찢기어져서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문을 단단히 닫아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욕망이야말로 온 세상의 적이니,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악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모두 이 욕망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은 비단 감관적 쾌락이나 부귀영화에서 오는 즐거움, 또 남을 거꾸러뜨리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쾌감 따위의 탐욕과 집착뿐만 아니라 관념 견해 의견 신조 등에 대한 집착[洸執]도 포함하며, 이런 집착이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난과 파멸로 이끌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법륜시리즈 7"(고요한 소리刊)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83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5042-100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 물수랑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 지리산
- 평수 210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80평
- 황토한옥 30평
- 용왕각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시내
- 법당: 11평, 요사채 방2칸, 공양간,욕실 현대식
- 비구니스님, 철학자, 법사, 보살께서포교하기에 아주 좋음)
- 가액: 5000만원
- 전세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010-2055-3366(스님직접)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근접
- 평수 70평
- 3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6십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500-8234

실버타운, 요양시설, 적지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 모두 갖춘(명당), 식수1급수
- 현,전원주택, (옛날 학교터)
- 554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517-8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집기일체완비
- 몸만오시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 1층 요사채 50평
- 2층 법당 50평
- 옥상 : 지장보살 입상, 대종
- 대지 75평, 시설 A급
- 가액: 4억 7천만원(시설비 포함)
010-3621-874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평수 180
- 산신각, 용왕당 대웅전(23평), 종각 요사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포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532-59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2리 240번지
- 평수: 54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각 13평, 5평
- 가액: 1억7천만원
011-571-8961
010-2739-381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평수 약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4십만원
- 시설비 1천 2백만원
- 투입된 가격에서 1/3만 받습니다
- 삼존불, 각단탱화4점, 범종,집기류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시설완벽
- 봉축법회 이곳에서 보내셔도 됩니다
010-3383-38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 덕계, 서창 근교, 산밑에 위치
- 슬라브건물
- 법당 27평, 요사채 32평
- 단청완료
- 가액: 2억 4천만원 (조절가능)
- 사정상 양도
016-707-2916

사찰 명당부지 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삼가면
- 한옥 황토집3채
- 대지 약1천평
- 주변 경관 산세 수려하고 전국 교통망 편리 (진주, 창원,대구..20~40분거리)
- 가액: 22억
055)934-4488
010-3521-6920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 대지 145평, 건물 25평, 방4, 인법당
- 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순간온수기, 비데설치, 에어컨2대, 불상1, 후불탱화1
- 식수, 자연생수(석간수), 텃밭,차고있음
- 마을에서 500m 떨어져있음
- 20m전방에 마르지 않은 계곡
- 가액 : 6천5백만원
010-3509-0124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11억 예산
(서울.안양 인접 의왕시 소재)
010-3678-256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위치 조건이 좋은 대로변
- 평수 약 3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결정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3572-842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부지 988평
- 청룡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8284-0667
043)275-0667

큰명당절터 3600평,
큰명당 사찰 384평
큰명당사찰 2600평
포교원 30평
수도권 양도 또는 전세
풍광 좋고 도로매우 양호
나이가 많아 정리합니다
010-9245-49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역 3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7십만원
- 평수 약 60평
- 3층건물에 2층
- 법당, 시설완벽, 살림가능
- 큰방2, 주방, 화장실 2개
- 가액: 5천 7백만원
010-9939-6966

'현우경' 이야기 (15)

금천과 금광명 부부

동전 한 닢, 물 한병, 거울을 보시한 공덕

슈라바스티에 한 부자가 살았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온 몸에서 금빛이 났다. 부자는 아들의 모습을 기이하게 여겨 '금천'이라 이름 지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금천이 태어나던 날 집안에 우물이 저절로 생겨났다.

그 우물의 물을 길어다 쓰면 신기하게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됐다. 옷이 필요하면 물이 옷으로 변했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으로 변했다. 부자는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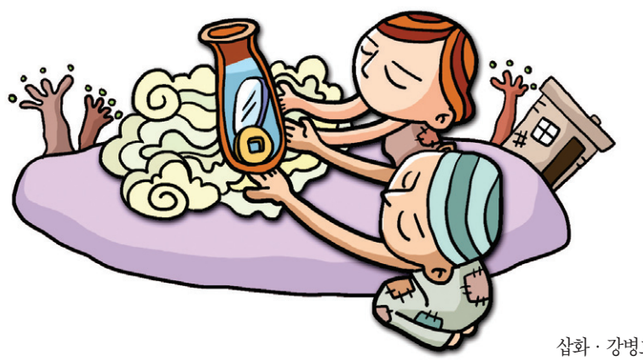
'이 아이는 무한한 복을 갖고 태어났다. 장차 아이가 크면 꼭 이와 같은 여인을 골라 혼인을 시켜줘야겠다.'

시간이 흘러 금천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다. 부자는 사람들에게 일러 나라 안의 좋은 규수를 찾아오라고 명했다. 그때 옆 나라 염바국에는 금광명이라는 여자가 살았다. 그녀는 외모가 수려하고 온 몸에 금빛이 났다. 그녀가 태어나던 날도 금천과 마찬가지로 집안에 우물이 저절로 생겨났고, 그 우물의 물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해줬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곧장 금광명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고 금광명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과 혼례를 올릴 것을 청했다. 금광명의 아버지 역시 금천의 소문을 들은 터에 바로 혼례를 허락했다.

금천과 금광명은 슈라바스티에서 혼례를 올렸다. 금천의 아버지는 결혼식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고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은 공양을 마치고 금천과 금광명을 위해 법문을 설하셨다.

부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 부부는 며칠이 지나 부모님을 찾아뵙고 간청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삽화 · 강병호

부모들은 부부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출가를 허락했다. 부부는 그 길로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며 출가를 허락했다. 금천은 다른 비구들과 함께 생활했고, 금광명은 부처님의 이모로 최초의 비구니가 된 대애도에게 맡겨졌다. 둘은 시간이 흘러 모두 아라한이 됐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다.

"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지금의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먼 옛날 비파시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비구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교법을 펼치고 있었다. 그때 스님들은 어느 작은 마을에 들러 며칠을 묵게 됐다. 부자들은 스님들에게 서로 앞 다퉈 공양을 올리고자 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본 한 남자가 생각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창고에 곡식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쌀 한 톨도 가진 것이 없으니 스님들을 만나 뵈도 공양을 올릴 것이 없구나…."

남편의 근심어린 모습에 걱정된 아내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겁니까?"

"스님들이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양을 베풀고 있소. 하지만 우리는 공양을 올릴 쌀 한 톨도 없구려. 공양을 올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으니 괴로워서 그렇소."

아내가 말했다.

"지금 창고를 다시 한 번 뒤져 보세요. 혹시 그곳에 공양으로 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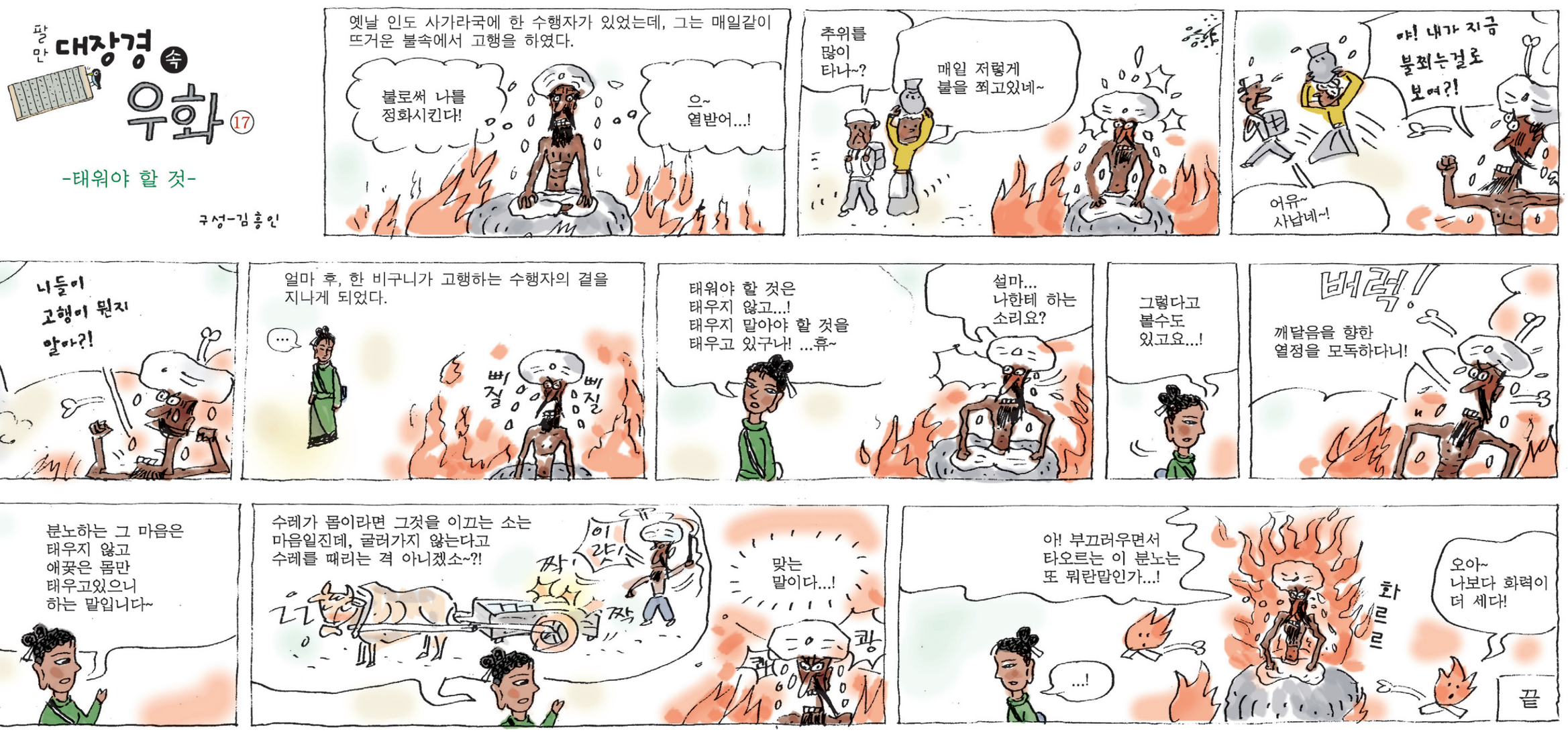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창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창고 구석에 동전 한 닢이 떨어져 있었다. 부부는 동전 한 닢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 부부는 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 동전을 넣고, 병 속에 거울을 세워뒀다. 그리고 스님들에게 달려가 정성스럽게 그 물을 공양으로 올렸다.

스님들은 그 물을 받아 바루를 씻은 뒤, 물을 마셨다. 부부는 평생 동안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다 생을 마쳤다.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물을 보시한 부부가 금천과 금광명이니라. 전생에 돈과 물과 거울을 보시해, 날 때마다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온 몸에 금빛이 난 것이니라. 그리고 그때 불법을 믿고 따랐기에 지금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아주 조금마한 복을 짓더라도, 복을 짓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을 쌓는 것과 같느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대행 스님

오직 나오는 그 속에다 다시 놓아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불사가 잘못돼서 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볼 땐 2년이지만 내가 볼 땐 한 찰나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속을 썩습니까? 하하하…. 아니, 2년이 걸렸든 하루가 걸렸든 3년이 걸렸든 10년이 걸렸든 백 년이 걸렸든, 천 년이 걸렸든 내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게? 안달복달 아무리 해 봐도 할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해 놓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집을 짓고 나서 바로 경전으로라든가 학인들을 가르치려면, 우리의 언어나 용어를 전자의 방편의 용어하고 걸맞게 바꾸어서 대치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하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화엄경 하나 가지고도 10년이 걸렸대요, 모두.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드니까…, 아, 먹일 걸 해 놓고 불러야지 먹일 걸 해 놓지도 않고 부른다면 그거 말이나 됩니까. 빈 상 놓고 오라고 그래요?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잘됐다. 허허허…, 잘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 절이 늦게 지어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늦게 지어지는구나!' 그러고는 가니까 내 마음은 아주 더더욱 편안하죠. 하하하…. 그러니 이게 부처님 법이 아니고 뭡니까? 네? 덩그라니 집만 됐더라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집만 덩그라니 해 놓고 알맹이가 없다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 누가 만들었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러고 나무랄 수가 없죠. 그게 다 내 돈입니까, 또? 하하하…. 여러 부처님들 돈이죠. 그러니 부처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가 모르든 알든, 잘못하든 잘하든 진실하게만 심부름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더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하는 거지 어떡하느냔 얘깁니다. 남한테 해롭게 안 하고 내 마음으로는 진실하게 하고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내가 더 잘하려고 집착하고 온통 야단법석을 해 봤던들 그건 허사입니다. 모두가 허탕이고 욕심이고 여러분한테 오히려 애만 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니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앞으로 금집을 짓고 금몸을 해 가지고, 허허허…, 상세계에서 잘해서 종자를 별성으로, 그냥 모두 별같이 총총하게 해서 이 세상을 달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아, 삼분의 이가 아니라 삼분의 일만 잘한다 해도 이 세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개개인이 혼자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극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고 알면 모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질문만 받고 얘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라오니까 또 말을 하게 되네요. 하하하….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큰스님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부해 온 과정을 말씀드리고 점검을 받아 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정의 우환과 병고로 혼자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도 좀 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더 갈등이 일어나고 저의 그 짜증스러운 생활은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잘 안되는 순간에, 큰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무(無)』라는 책을 낮에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잡아일으키는 것처럼 딱 고개가 들리더니, 내가 울지도 않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계속, 한 30분간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진실한 뜻은 모르고 지내다가, 여기 선원에 한번 와서 큰스님 법문 카세트 테이프를 좀 사 가지고 가서 차에다 놓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차만 타면 그 테이프를 계속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마음에 닿는 것도 있지마는 모르는 거 투성이였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걸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신호위반도 하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래도 걸리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공부를 했는데, 한번은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그리고 내가 만일에 죽었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몸을 하나하나 분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는 게 내 몸뚱아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더라구요. 그래서 물방울이 돼서 한번 흘러내려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부터. 계속 흘러 내려가서 나무가 먹으면 나무로도 들어가고, 또 풀이 먹으면 풀로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쭉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더라구요. 그럼 바다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데 바다에서 수증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하! 이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제 몸이 실타래처럼 착 풀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리더라고요. 그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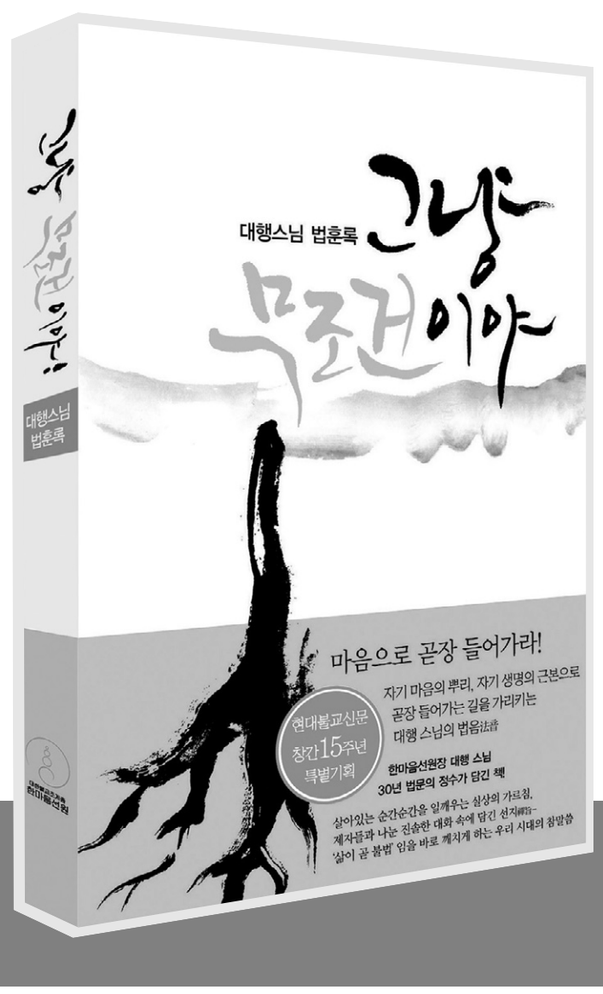
그래도 마음의 불안 같은 것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고 있으면 때로는 이 몸뚱아리가 산처럼 커져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앞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와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한 날은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안됐습니다만 저기 부처님 형상 같은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상하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또 한 3, 4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부처님 형상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미간에 물줄기가 하나 쫙 뻗치더니 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고 좀 있더니 수많은 염주알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염주알인 것처럼 보이다가는 그게 또 용으로 변하더군요.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더니 하얀 새들이 한 너덧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지금까지 해 오다가, 법형제는 이제 오늘까지 딱 네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다 가는 첫날 밤 꿈에 창고에 불이 하나 붙었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연기가 나오기에, 이게 무슨 불인가 하고 살아생전의 의식처럼 바께쓰로 물을 떠다가 끄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책 쌓아 놓은 창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붓자 더욱 세게 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치악산 갔다 왔을 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저도 거기서 구경을 하다 낚시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낚시가 그물로 변하더니만 큰 고기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다에다가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들어가더니, 들어가는 장소가 훤하게 변하더니만 거기서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확실히 마음에 의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께 점검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큰스님: 다 끝났습니까? 하하하…. 그러나 그 고기를 건진 놈도 당신이고, 고기도 당신이고, 나온 놈도 당신이고, 고기가 부처님한테서 나온 것도 바로 당신이요, 또는 그 한 마리에서 수천의 염주알로 화(化)한 것도 당신, 당신이 알 일이요, 당신의 법입니다. 그것이 모두 공부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다듬지 못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나오는 그 속에 다시 놓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이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고…. 죽어야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죽어야 죽은 세상을 다 배우죠. 아시겠어요? 죽어야 죽은 세상을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열반이라는 그 자체도 살아생전에 열반을 해야지 죽고 나서 열반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죽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죽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어차피 앞으로 한 번은 죽을 거 이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하하…. 몸이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모두.

질문자2(남): 청주지원에서 왔습니다. 그 동안 큰스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제 스스로 어느 정도는 제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도 돼 봤고, 또 이 세상의 극락에서도 제 나름대로 살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제 자신 혼자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저 혼자가 아닌 여럿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주인공에 맡기면서 마음을 내 봤습니다만 주인공에만 맡기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제 눈으로 그 영(靈)의 세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언제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밀어 넣으면 또 나오고 밀어 넣으면 또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심안을 열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합니까?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으라고 그랬으니 믿어야죠. 뭐가 궁금합니까? 제 뿌리에서 제 싹이 나서 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 뿌리를 의심을 합니까? 자꾸,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에서 가지, 잎새 다 나오고, 흔들리는 것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흔들리고, 바람을 맞는 것도, 채이는 것도, 눈을 맞는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제 뿌리의 제 나무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그냥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대로 믿는다면 자꾸 되풀이되질 않지만, 이게 못 믿고 궁금하고 그러면 자꾸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죠. 좀 푹 놓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문제도 거기에다 그냥 놓으세요. 언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구요. 죽고 사는 것도, 또 남을 건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부터 건져야 남을 건지지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그냥 몽땅 믿으세요, 그냥.

남김없이 믿고 거기 놓으시면 돼요. (합장하시며)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길 때는 '참 감사하구나! 주인공.' 하고요. 주인공이라면 일체 공심을 말합니다. 공심 말입니다. '참 고맙구나!' 하고 거기다가 놓으면은 그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공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공심을 몰라 가지고야 공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건져지고, 들어도 건져지고, 그저 가고 오지 않아도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건져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질문자3(남): 공주에서 온 학생입니다. 한마음 공부 한 지는 1년 다 됐는데, 좀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공부한다는 게 좀 실다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직접 큰스님 면전에서 뵙고 한 말씀 듣고 약속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잘 나왔어요. 게으르다거나 잠이 많아서는 부처님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것도 참선이요, 깨어 있는 것도 참선이요, 서 있는 것도 참선이요, 앉아 있는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누워 자는 것도 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그게 전부 참선이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참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게을러서 이 공부를 못 하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저 생각나면 '주인공, 네가 너의 몸을 형성시켜서 이렇게 끌고 가니까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선 그냥, 그냥 아예 철석같이 믿고 그냥, 그냥 그렇게 해 버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도요. 아주 하기 쉬운 것이 이 공부인데…, 하하하…. 아주 하기 쉽고 간편하고, 중간치만 알았다 해도 아주 간편한 건데 말입니다. 아이, 참 내!

질문자4(남): 본원에 다니고 있는 신도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느낀 것은, 저를 아직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저 자신을 100%는 못 믿더라도, 제가 또 외부 경계와 내면의 경계를 100% 돌려놓지 못하고서 좀 지나가는 게 있더라도, 어떤 의정을 꽉 잡고 간다면, 더 거기서 용맹정진을 한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의정이 나게 하는 것도 네가 나게 하는 거다.' 하고서 관은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마는, 내가 일부러 내 가지고 하는 거는 의정이 아니에요.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림자같이 나타났다 할 때 '아, 저게 뭣인가?' 하고 스스로 의문스러운 게 있어야 의정이지, 아니, 번연히 여기 있는 걸 알면서 의정을 내면 그게 의정입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내가 스스로 무의 법을 배우죠.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를 만났을 때에 부(父)와 자(子)가 만난 것이니라.' 하는데, 이렇게 상봉할 때에, 과거하고 현재하고 만났을 때, 둘 아니게 만났을 때에 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일 겁이라고 한다면 겁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겁이 만억, 만천억 이렇게 할 때에, 어저께도 일 겁이 될 수도 있고, 천 겁이 될 수도 있고, 만 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저께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부터 알아야, 그렇게 상봉을 해서 알아야, 무의 법의 채찍을 맞아야 거기에서 진실로 의정이 나죠.

내가 예전에 그랬죠. 그때에 백련사라는 데를 가는데 아, 어느 묘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 묘지는 아비의 묘지이고 이거는 아들의 묘지인데, 이 아들이 아비한테로 오면 아비로 하나가 되고 또 아비가 아들한테로 가면 아들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냐?' 하고 물었을 때에 그거를 모르니까 의정이 날 수밖에. 그게 의정이에요. 그런 게 의정이지 번연히 아는 걸 의정을 내 가지고 내가 의심한다는 건 의정이 아니지, 그건 망상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심도 하지 말구요, 내가 스스로 생활 속에서 그냥 거기다가 놓고 갈 때에 체험이 되는 게 있어요. 조그만 거라도 체험이 될 때에 '이건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 말고, '우연히는 없다. 내가 있는 이상 우연히는 없다.' 그러고 그냥 거기다가 놓고 '아, 감사하구나!' 이러고 또 가다 보면 어떤 조그만 거라도 또 체험이 될 때 또 놓고 가고, 자꾸자꾸 그렇게 되면 이게 조복이 돼요. 그런 연에 내가 완전히 발견이 되게 되고, 그때는 뭐 그냥 의정이 나오는 거죠. 한창 배울 때는 의정이 많죠.

내가 이런 말도 했죠. 예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쓰러져 있는데 물줄기 내려가는 소리가 나서 겨우 엉금엉금 기어서 물을 한 모금을 먹으려니까, '물 한 모금을 먹는 데에 천 모금이 될 수도 있고 삼천 모금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 삼천 모금이 한 모금이 될 수 있고 한 모금이 삼천 모금이 될 수 있다니 그게 언어도단이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냥 쓰러져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구요. 그게 의정이에요.

질문자4(남):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질문도 몇 번 나와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오래 되신 분들이 지금 어떠한 경계에 부딪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공부 과정을 오래 공부한 어느 분이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같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큰스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좀 오래 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네, 오늘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래 이렇게 공부해 가시는 분들은 그냥 나할 일만 쭉 하면서 가고 있지, 정말 상층에서는 한 분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조그마한 거라도 경험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나오시고, 또 경험 못한 분도 나오시고, 아파서 나오시고, 이러는 분들만 나오지, 하하하, 상층, 중층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 밑으로 그렇게 나오시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 의정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방편으로써 내가 함이 없이 하시란 얘기죠.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이만큼 배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이 없이 하는 거를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한다고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 보셨어요?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자국 떼어 놓듯,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말하고 돌아서면 딴 말 해야 하는데, 그게 말한 것입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공(空)했느니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러니 그냥 공했다는 말까지도 놔라. 없다. 공했다는 말 자체도 없다.' 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게 참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것도 하는 사이 없이 그냥,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해라 이거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 그런 분들이 좀 하지 않고….' 이러곤 그냥 속으로만 중얼중얼하고 나왔습니다. 허허허….

사회자: 질문 다 마쳤습니다.

큰스님: 다 마쳤습니까? 예. 내가 불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설법도 들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우트라인은 다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정작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에게 놓으라는 말씀은 없으세요, 모두가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이 보배고 자기 몸도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되는 그런 몸입니다. 남의 몸을, 부모의 몸을 빌려서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몸을 함부로 굴려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는 것도 이 몸 때문에 알게 되는 건데 함부로 굴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떨쳐 버리는데, 버리지 않고 버려라 이겁니다. 소중한 이 몸을 버리지 않고…, 자기 몸으로 아니까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건 자기 몸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집합소죠. 남의 집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자기 몸이라고 착각하고 함부로 굴리지 마시고, 남의 생명들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소중한 겁니다, 중생들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이 되지, 마음으로 이 몸뚱이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뭐 허깨비 같고 구름 같고 이렇다니까 그냥 내버린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세세생생에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위 법문은 1996년 4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문제도 주인공에다 그냥 놓으세요.
언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구요.
죽고 사는 것도, 또 남을 건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부터 건져야 남을 건지지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그냥 몽땅 믿으세요, 그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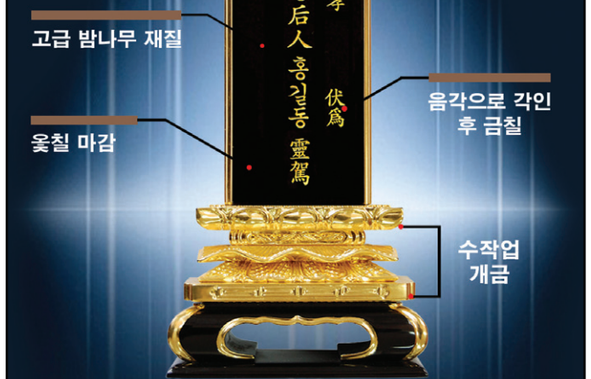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顯考學生府君 神位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자 세상보기

부정적 감정 증오를 푸는법



선업 스님
광덕사 수련원장

‘내 맘대로’ 안된다고 분노말고
상대 향한 감정 안으로 거둬서
나부터 스스로 변화함이 해법

‘내 맘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상황적 위기’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심각해져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적응장애’로 판단한다.

적응장애의 증상을 보면 과거 일에 대한 반복적인 후회를 통한 우울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불안이 반복되어 당면한 일에 대한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에 몰두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과음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 대인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모든 일을 타인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극대화하여 폭발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그 예로 미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발생한 한국계 미국인에 의한 총기 난사사건을 들 수 있다. 현지 경찰이 밝힌 진술 중에 “친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대목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제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원인을 “교직원들과 몇몇 학생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본인의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일반화시켜 결국 학생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경우라 하겠다.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부처님 제자인 띳사 장로 이야기도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 그는 조금 늦은 나이에 출가했는데 젊은 스님들이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다가 다투기 까지 하게 된다. 급기야 이런 그의 행위에 대해 누군가 심하게 비난 하자 그는 부처님에게 달려가 눈물 흘리며 불만족스럽고 화가 난 사항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

띳사 장로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실수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중들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 비난하기’, ‘힘센 사람에게 이르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적응장애의 한 유형이다.

적응장애의 해소법을 보면 먼저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다. 그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울음 섞인 불평을 하는 제자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띳사 장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관점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동감을 통해 달래는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증오의 감정을 품지 말라. 증오는 오직 증오의 감정을 품지 않을 때만 풀어 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직면을 통해 핵심을 짚고 있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띳사 장로에게 부처님은 세상살이가 본인의 의도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적 반어’를 제시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그는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내 것을 빼앗았다”는 생각과 ‘증오’라는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풀어 상황적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관조하면서 제대로 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거울삼아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한다.

사부대중 칼럼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울 것인가



박 지 숙
카루나마인드힐링연구소 소장

현대사회는 소유와 채움이 그 어떤 요소보다 강력하게 행복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나의 만족과 건강이 배제된 무조건적인 시대편향적인 비움과 무소유 개념은 허상에 불과하다.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비우고, 제대로 채워서 가득하고 풍요로우면서도 한없이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비결이 어떻게 비우고 채울 것인가에 달렸다.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인하여 파김치가 다될 정도로 지친 가여운 나의 심신에게 어떤 감로수와도 같은 ‘비움과 채움’의 힐링을 실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전 그 시절의 파워에너자이져로 원상복귀할 수 있을까?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제대로 비우기 위한 5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가 과식과 과음 등으로 지쳐있는 장비우기이다.

현대인들은 영양이 모자라서 병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든지 넘치고 과해서 문제이다. 가끔은 24시간 내내 풀가동되고 있는 지친 나의 장에게 휴식을 선사해주자. 때론 금주와 금식의 기간을 설정하여 비워둠의 묘미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자.

그 다음이 축적되고 쌓인 찌든 땀 빼면서 노폐물 비우기이다. 땀으로 노폐물을 빼는 행위처럼 시원한건 드물다. 프로작(우울증 치료제)보다 달리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의학논문도 다수 있다. 즉 달리기나 등반 운동 등으로 땀을 쭉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심호흡으로 분노 스트레스 비우기도 중요하다. 갑자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의 열을 식혀줄 가장 강력한 소화물은 호흡이다. 스트레스 이완치료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요법이 바로 이 심호흡이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심호흡을 아침 · 저녁으로 4~5번 정도 습관적으로 해주면 몰라보게 평온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비교하는 마음 비우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내 자신이 비참하고 슬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이다. 비교하는 순간 소중한 나의 것이 초라하고 볼 품 없어진다. 나의 사랑스런 연인이 소녀시대나 꽃미남과 비교되는 순간, 나의 고마운 애마가 잘나가는 친구의 럭셔리 세단과 비교되는 순간 짜증나고 허탈해지기 때문이다.

모두 비워냈다면 그 다음은 제대로 채우기이다. 우선 햇빛을 쬐며 세로토닌으로 채워보자. 행복한 나의 삶도 일단 즐거운 무드가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억지로 되지 않는다. 우울한 나의 모드를 밝고 따뜻하게 즉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영양제는 태양이다. 햇빛을 기분 좋게 쬐면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란 물질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우며 우리의 기분을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작용과 더불어 면역력도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자신감을 채우자. 회의나 시합 전 우리가 관습적으로 외치는 구호는 사실 기대 이상으로 상승 작용을 한다. 매일 아침마다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언사는 나의 자신감을 훨씬 수월하게 충전 시켜 줄 수 있다. “오늘 하루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길!”,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생길까? 파이팅!”, “오~오늘 정말 멋지고 근사한걸~, 정말 잘 할 수 있을거야 ” 등 자신만의 격려 구호로 축 처진 나의 어깨를 한껏 올려보자.

나눔의 실천으로는 풍요로움을 채울 수 있다. 나눔의 실천이야 말로 나를 가장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나중에 좀 더 여유로워지면, 지금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차 라는 말은 실은 나를 더욱더 궁핍하고 메마르게 만들 뿐이다. 오늘 한 잔 마실 커피 값을 절약해서, 오늘 한 대 태워버릴 담배 값을 모아서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매달 만원씩이라도 정기 후원을 눈 딱 감고 맺어보자. 커피 한 모금, 담배 한 모금이 감히 선사할 수 없는 가슴 벅찬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루에 천원이면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귀한 감동은 없다.

숲속 피톤치드로 건강함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숲속으로 달려가 본다. 숲은 우리에게 무한정의 피톤치드를 공급해준다.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우리의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각종 나쁜 세균 등을 살균해준다. 그러므로 숲속을 한 번 거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나쁜 오염물질은 정화해주고 그 대신 건강함만으로 그득 채워주니 상쾌하고 날아갈 듯이 가벼운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社說

선원 수좌회까지 나선 승려 복지

수행은 출가자의 본분이다. 특히, 선원수좌에게 수행은 초개(草芥)와 같이 던져버린 목숨 뒤에 홀연히 남겨진 수단이다. 오직 불법의 대요(大要)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날마다 새롭게 가행정진(加行精進) 해야 할 선원수좌들이 자신들의 수행복지를 직접 챙기겠다며 나섰다.

전국 참선수행자들의 복지를 외호하고 수행환경 조성과 수행문화 확산 · 전승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수좌회’.

평생 선원에서 참선 정진하면서 수행종단의 근간을 이뤄왔지만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몸에 병을 얻어도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잦은 것도 한 까닭이라고 한다. 수좌들의 고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젊은 스님들 역시 해제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시골 폐가나 토굴을 마련해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출가자를 외호할 의무를 지닌 재가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수좌들의 수행환경 조성에 힘쓸 사판승들이 어찌 처신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폐불 · 억불 속에서도 불조의 혜명이 지금까지 현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좌스님들의 공이 아니었던가.

이판사판(理判事判)이라 했다. 어쩌다 이판승이 의식주 걱정을 하게 됐는지, 목숨 걸고 수행해도 모자랄 판에 왜 도틀 궁리를 미루고 살 궁리부터 하게 됐는지. 특히 사판승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사부대중의 참회와 대책을 바란다.

노동위 설치 늦었지만 성과 기대

“해고는 살인이다.”

3년 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제작한 플랭카드에 적힌 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짧은 이 한 문장을 위정자에 알리려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옥상에 올랐고, 청와대가 내려다보이는 북한산 자락에 올라 플랭카드를 청와대를 향해 내던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에 정부는 묵묵부답, 메아리 삼아 돌아오는 것은 동지의 잇단 죽음 뿐이었다.

4월 3일 또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2번째이다. 산 목숨 모질게 끊지 못하고 있을 뿐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 등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찾아 “중생들이 못살겠으니 제발 도와 달라”고 읍소했다. 조계종이 앞장서 범종교인 연석회의 등을 열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총무원장스님은 그동안 종단이 노동문제에 소홀했다며 노동위원회를 설치해 노동문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을 통한 5대 결사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결사는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 노동위 설치는 텅빈 결사의 그릇을 채우는 역사에 다름 아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아픔에서 비롯된 조계종의 서원이 대자대비(大慈大悲)하고 구고구난(救苦救難)하는 관음보살행으로 현현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귀를 다스리며 깊은잠을 들게하는 선조들의 지혜

100% 수작업으로 만든 안전한 제품, 10년 동안의 연구와 논문으로 특허

저는 예로부터 봄철에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게 벗겨 내어 말려 귀에 꽂고 불을 붙여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봉입니다. 어디에 좋은지 왜 그렇게 했는지 오래도록 알 수 없었지만 꼭 필요한 분들끼리 그 방법을 알고 전해내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00% 수작업 안전필터로 귀를 보호

닥나무 전통 최고급 한지를 십 여 가지가 되는 자생초를 우려낸 물에 담갔다가 다시 말리기를 반복해서 그 효과와 기운이 한지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꾸지뽕 잎사귀를 빻아 쑥뜸처럼 촘촘하게 만든 필터로 중간부분을 막아 이명에 좋다는 꾸지뽕의 효과는 귀로 스며들고 귀속의 안전도 지켜 일석이조의 효과이지요. 귀로 스며든 저의 기운은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창문을 열어주지 않은 축축하고 습한 머리와 귀 전체에 자생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스트레스, 무거운 머리,쉽게 화가날 때

컴퓨터나 핸드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현대인들은 귀가 먹먹하고 불안, 긴장감도 큽니다. 이봉을 사용해 보신 많은 분들은 머리가 가벼워지는 이 경험을 놀라워하십니다.
저를 한 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저를 잊지못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귀와 눈이 환해지고,마음이 편안해져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중력 부족한 학생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은 아래 논문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요. 꼴지 뇌파가 일등 뇌파로 바뀐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구요, 물론 직장인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다고 저를 많이많이 좋아라 해주십니다. 잠자리가 뒤척여지고 밤이 무서운 분들도 저를 꼭 만나보셔요

해외의 제품 함부로 사용 말아야

전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귀와 머리를 맑게 하는 제품에 대한 흔적은 대한민국과 인디언 뿐이라고 합니다. 인디언의 벽화에서 발견된 그림을 독일사람들 이 힌트를 얻어 의약품으로 승인 내어 쓰고 있다는 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조악하고 위험하게 만들어진 한 개에 100원하는 비슷한 제품을 관광 다녀온 분들이라면 보셨을 거에요.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해외에서 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봉이 있어요. 우리 것을 아끼고 알리고 쓰셔야지요.

귀가 멍하고 귀울림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오래 전부터 청주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신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이봉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신자가 아닌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 몇분이 찾아오셔서 혹시 이곳이 아무아무게 할아버지가 다니는 절이 맞냐고 하시더랍니다. 스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본인들도 귀에다가 무엇을 꽂고 태워준 그걸 좀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쭸더니, 며칠 전 이 절에 다니는 아무게아무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할멈이 궁시렁 궁시렁 잔소리를 해대는데 노망이 들었는지 하루종일 중얼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평소 다니시던 절에서 주지스님이 귀에 뭔가를 태워 주셨다는데 바로 그것이였구나, 원래 이 할머니는 잔소리 많기로 동네에 유명한 분이신데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셨다가 바로 이봉을 몇 번 받으시고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신거지요, 눈도 환해지고 코도 뚫리는 시원하고 재밌는 이야기지요?

일본,뉴욕의 유명 뷰티숍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

뉴욕에서 매우 잘나가는 뷰티숍에서도 저를 만나실수 있답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곧 이봉을 많은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 ~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중 입니다.
궁금하신 분 들은 모두모두 오십시요. 특별한 시연행사도 합니다. 물론 저를 만나실 수 있는 전국의 한의원도 많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전문 상담원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압현상(SUCTION 효과)

이봉을 태우면서, 미세한 온도의 변화는 귓속 피부온도에 전달, 귀주변의 조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은 일부 높아진 온도로 인해 기화되어 밖으로 배출된다. 이봉을 태울 때 봉 안쪽은 높아진 공기온도로 인해 감압상태가 되어 귓속의 정체된 공기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때 귓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은 기화되어 이봉으로 배출된다(suction 효과). 기화된 노폐물은 낮은 온도의 봉내벽과 부딪치면서 다시 고체로 변한다. 기화된 노폐물이 이봉 벽에 부착되거나 이봉 안에 쌓이게 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노폐물은 귀뜸봉을 하지 않는 한 배출되지 않는다.

눈이 침침하다
귀가 어둡고, 어지럽다.
아이가 폭력적이다.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다.
기(氣)가 뻥 뚫립니다.

진정한 이완감, 휴식
화락하고 안온한 기분
좌우뇌의 온전한 밸런스

이봉의 원료의 성분 등이 기화되면서 대류현상에 의해 피부조직으로 스며들어,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확인된다. 원료는, 전통적인 제법의 한지와 꾸지뽕, 인동초,쑥, 박하, 구기자, 창포등을 여러차례 적시고 음건하여 예로부터 자생초의 약리작용을 활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결과적으로 이봉을 통하여 귀 주변과 나아가 귀를 통해 뇌와 근접한 기관의 기혈의 흐름을 왕성하게 하므로 그 결과, 이봉을 뜨기 전과 뜬 후의 뇌파비교를 통해 뇌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뇌 과학의 신기술과 실용적인 뉴로피드백 원리인 뉴로하모니로 거울 보듯이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바란스가 깨진 뇌압이 균형을 찾으면서 스트레스(직장인, 수험생, 가중한 학습을 하는 초등, 유아)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불안심리, 기분장애 등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 질환 및 귀관련 은 물론 뇌 신경들과의 상호 합목적 적인 소통으로 오관(눈,코,귀,입)의 기능을 바르게 하고, 정신활동의 방해를 초래하는 ADHD 등 학습 장애, 정서장애를 개선할 뿐 아니라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다. 뇌는 신체의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봉의 체험은 뛰어난 가정생활요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음을 씻어주는 귀뜸봉은 곧 뇌를 씻어내는 것임을 뇌파의 변화에 의해 기분 변화, 상태변화, 눈, 코, 귀, 목, 뇌 등의 변화를 가져옴을 알게 한다. 이봉으로 현대인들의 심각한 뇌와 귀건강을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정지혜원장,김재수박사의 논문 중

"만명이 넘는 임상과 체험자들의 관심속에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귀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 체험 후 다양한 변화들 중 머리가 맑아지는 원인을 찾았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이봉 체험 후 평온하고 안정한 뇌파로 바뀌는 놀라운 사례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을 통하여 귀 주변 나아가 귀를 통해 뇌와 근접한 기관의 기혈 흐름 등을 왕성하게 하여 귀의 건강 뿐만 아니라 뇌압의 균형을 찾고 숙면을 취한 듯 머리를 맑게 하고 차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신경과 상호 합목적적인 소통을 갖는 오관(눈,코,귀,입)의 기능을 바르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개발특허: 김 지 문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험생 및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 불안과 불면증, 시험증후군, 수면부족, 강박관념,우울할 때, 눈이 침침하거나 정신집중이 필요하신 분. ADHD중후군 면역 기능강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 출장이 잦은 분, 휴대폰과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 등등..편안한 휴식과 함께 누워서 이봉을 귀에 대고 불을 붙이게 되면 귀를 통해 우리땅 가까운 곳에서 자란 건강한 자생초의 활기와 따뜻한 약제로 가득 채워져 가벼운 압력과 굴뚝효과로 머리속의 압박감이나 통증을 없애주며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귀가 밝아지고 막혔던 코가 뚫리며 숨쉬기가 시원해지고 후각이 살아나 냄새를 잘 맡게 되는 것입니다.

〈YTN방영 캡쳐〉



10여가지 원료를 다려낸 농축액에 적신 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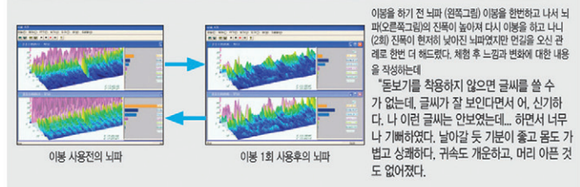
2중 안전 장치로 귀를 보호



음건하여 봉으로 만듬

[이(耳)봉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효과 사례]

성별/나이/성명	증상	횟수
남 / 69 / 운 0 0	고혈압, 당뇨, 편두통, 눈이 침침, 귀가먹먹하다	11회
변화 / 느낌	머리속이 개운하고, 두통해소, 시력회복, 날아갈 듯한 기분 피부가 윤택해 보이고, 화색으로 젊어 보임	



이봉을 하기 전 뇌파 (왼쪽그림) 이봉을 한번하고 나서 뇌파오른쪽그림)의 진폭이 높아져 다시 이봉을 하고 나니 (2회) 진폭이 현저히 낮아진 뇌파였지만 먼길을 오신 관계로 한번 더 해드렸다. 체험 후 느낌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돋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글씨가 잘 보인다면서 어, 신기하다, 나 이런 글씨는 안보였는데...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였다. 날아갈 듯 기분이 좋고 몸도 가볍고 상쾌하다, 귀속도 개운하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졌다.

이봉 사용전의 뇌파 | 이봉 1회 사용후의 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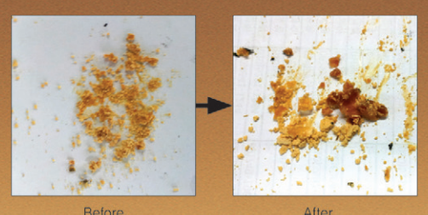


특허제 10-0839663호
〈특허명 -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보조용 원통형 뜸봉 이외의 제조방법〉
비염 / 우울 / 귀먹이
편두통 집중력 미약에
관한 임상을 통해
호전된 결과

[2008년 6월 특허등록]

귀울림! 스트레스! 어질어질! 잘 안들리세요?

이(耳)봉



유사품이 많습니다. 주의 하십시요.
국내특허와 연구 임상 제품은 이(耳)봉 뿐입니다.
www.ebong.co.kr

이젠 그동안 등한시 했던 가장 중요한 머리 · 耳 에 관심을 가지세요

1. 귀가 시원하고 잘 들린다.
2. 눈이 시원하다. 시야가 안개 걷힌 것 같다.
3. 코가 뻥 뚫린다. 냄새를 맡게 되었다.
4.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다.
5.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6. 몸이 가벼워 붕 떠 있는 느낌이다.
7. 피곤이 풀리고 개운하다.
8. 잠을 자고 일어난 느낌이다.
9. 묵직하게 무거웠던 머리가 가볍다.
10. 시원하고 맑은 느낌이다.

"龍"의해를 맞이하여 원암 김지문선생의 "龍"자를 선착순 30분에게 증정합니다.



[주요경력]
· 대전충남서예가협회 초대작가
· 불료미술대전 종려상
·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
· 대한민국 서예대전 문인화 입상
· 대한민국 현대 서예대전 입상
·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3회
원암 김 지 문

〈아이들〉
꼴찌 뇌파를 일등 뇌파로!!
- 산만한 아이
- 집중력 부족

〈성인〉
-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 사소한 일에도 격분한다
-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선착순 100분
20% 할인

주문전화
1544-0272

〈대리점 모집 30인 이상 시연행사 가능〉 동부화재-배상책임보험 1억원가입 수산동천영농조합 입금계좌:[농협] 1544-2395-29(예금주:이은아)